EAST ASIAN LIBRARY
RM 1039 ROBARTS LIBRARY AUG 20 1981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93 1981년8월15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August 15,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P 9184

한국야구 캐나다도 격파

준결승 쿠바와 대결, 캐나다 탈락

최동원, 거의 완전게임 기록 1 : 0

(에드몬톤)한국팀의에이스 최동원 투수는 강속구로 캐나다팀을 1 : 0 셧아웃, 한국팀은 15일의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대륙간컵」쟁탈 세계야구대회 예선 마지막날인 13일 한국은 캐나다를 물리침으로써 5승2패로 예선전을 마치고 미국, 도미니카, 쿠바와 같이 준결승에 진출, 15일 쿠바와 대결한다.

캐나다는 이날의 패배로 결승리그진출이 막혔다. 이어 속개된 미국과 쿠바의 경기에서 쿠바는 미국을 13:3으로 격파,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날 금년봄 1억원 스카웃설이 나돌던 최동원 (롯데소속)투수는 140㎞ 시속의 강속구와 씽커볼로 캐나다 타자들을 농락, 8회까지 완전게임을 기록했다.

최선수의 퍼펙트게임 기록의 꿈은 9회초 캐나다의선두타자 맥그로우가 라이트앞 안타를 날려 깨졌으나, 단 1안타에 11명의 타자를 삼진시키는 게임을 운영, 500여명 교포응원단을 환호하게 만들었다.

한국팀의 1점은 1회에 이루어 졌다. 선두타자 김일권이 센터앞 안타로퍼스트에 진출, 이어 이해창 선수와의 히트·앤드·런 작전이 성공, 김일권은 3루에 닿았다.

이어나온 홈런타자 김재박은 라이트 앞 희생플라이로 김일권을 홈으로 불러들여 1점을 선취했다.

이것이 이날게임의 유일한 점수이며, 한국팀의결승점이 됐다. 캐나다팀은 크레·리착·쿠주민스키의 3투수가 나와 한국팀에게 7안타를 허용하고 이를 1점으로 잘 막아냈으나 공격에서 1안타의 졸공으로 패전했다.

이날의 승리투수 최동원은 매일 200여회 투구연습을 해왔다고 하며, 스피드건으로 재어본 투구 속도는 시속 140㎞(88마일)로 프로야구의 1급투수들과 맞먹는다.

"내가잡은 스트라익아웃중 대부분은 속구와 씽커볼(타자앞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볼)때문이었고, 이제까지의 경기중 오늘경기가 최고였다"라고 말했다.

최투수는 이제까지 3번의 노히트 노런(무안타 무실점), 1번의 퍼펙트게임(상대팀을 한명도 1루에진출 안시키고 노 에러, 노포볼, 노히트, 노런의 경기)을 기록했다.

최투수는 연세대 재학시절부터 국가대표 세계야구대회에 계속출전, 미국프로야구팀 스카우터 들로부터 입단교섭을 받았으나 병역관계로 보류해 왔다.

금년도 연세대를졸업, 롯데에 소속된 최선수는 롯데가 한국실업야구 전기리그패권을 잡는데 큰 공헌을 했다.

최선수가 롯데팀에 들어갈때 1억원 스카웃설로 아마추어리즘에 위반된다는 야구협회와의 불협화음도 있었다.

이날 쿠바가 미국을 물리침으로써 한국은 쿠바와 준결승에서 재대결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편 4천여 에드몬톤 교포들은 선수들 돕기에 여념이 없어, 매일 5,6백명의 응원단이 경기장에 나가고, 선수들이 묵고있는 알버타대학 기숙사로 찾아가 한국음식등의 뒷바라지를 해왔다.

15일 쿠바와의 준결승에는 약 2천명이 대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수필가 유인형씨는 본사와의전화에서 밝혔다.

◇완벽에 가까운 피칭으로 강적 캐나다를 셧아웃 시킨 최동원 투수의 투구폼. 볼을던진 후에도 조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한국노년회가 모집한 고국방문단원 62명중 1진 32명이 10일아침 토론토공항에서 여객전용 대합실로 들어가기 직전 최동주 서울여행사장 으로부터 탑승권을 받고있다. 정인기 노년회장은 단장, 성용창 부회장을 부단장, 이영묵씨를 총무로한 노년회 방문단은 고국서 8.15 경축식에 참가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정부주선 관광길에 오른다. 1인당 1,246달러의 항공료를 낸 노인들이 본국서의 2박3일 관광중 숙식을 무료로 제공받는지는 불분명 하다. 노인들이 어린애 같이 그리던 고국방문에 나서는 10일 공항 C·P항공사 앞은 교포노인들과 배웅가족으로 붐볐다.

광복절 맞아 1,061 석방

김대중씨는 제외된듯

(서울15일=연합)한국정부는 제36주년 광복절 전야인 14일밤 12시를 기해 전국에 걸쳐 총 1,061명의 복역수를 특사, 가석방및형집행정지로 석방했다.

정부대변인 대리 김은호 문공부차관은 14일 대통령 특사를받은 61명은 광주사건 관련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7명포함, 계엄령위반자 들이라고 발표했다.

김차관은 "이들이 모두 개과천선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자중 3명은 복역중인 김대중씨의 측근이다.

광주사건에 관련된 김승영신부도 형집행 정지로석방됐다.

정부발표는 석방설이 돌던 김대중씨에 대해서는언급하지 않았다.

"우편정상화에 적어도 8주걸려"

42일만에 재개된 우편소통이 정상화 되려면 적어도 8주가 걸린다고 토론토 우체국 대변인 미키·정씨가 11일 말했다.

외국으로부터 들어 오는 우편물은 17일부터 처리된다.

우편소통 재개 첫날인11일 우체국 작업량은 평소 분량의 3분의1정도밖에 안됐으나 그후 2,3일안에 밀린 우편물이 밀어닥쳤다.

우체국은 임시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다.

토론토우체국 근무 노조원의 80~90%가 11일현재 직장에 복귀 했다.

퀘벡에서는 우편 협상조건에 불만을 품은 노조원들이 우체국 창문을 부수며, 노조대표들에게 항의한 일도 있었다.

한편 우편노조원들이 얻어낸 17주간의 유급임산부 휴가는 정부의 다른 노조에게도 같은 영향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 전국 여성협의회 라우엘·리치 회장은 11일 "지금까지 퀘벡주 이외에서 여성권익이 노조에의해 확보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임산부를 위한 휴가제도는 현재 뉴·브룬스윅의 12주 휴가에서부터 B·C주의 18주 휴가까지 있지만 그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은실업보험수당 뿐이었다.

퀘벡주 공무원은 79년부터 20주의 임산부 유급휴가제도를 적용 받아왔다.

여자경찰 인기높아 경쟁율 75 : 1

(서울14일=연합)한국여성들에게는 아직도 취직문이 좁다.

13일 여자경찰 80명 모집에 무려 6,014명이 몰려와 75 : 1의 경쟁율을 보였다.

이들은 체력및 필기검사를 거쳐야 한다. 한 경찰간부는 이같은 현상을 "결혼후에도 해임 안한다는보장이 있고, 경찰관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는 자부심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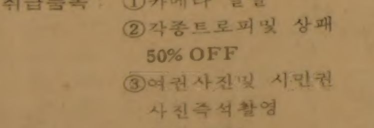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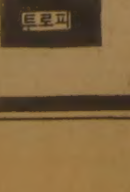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교포를위한 제4주년 기념 특별세일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MODERN FURNITURE
ecosys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킴스 카메라 및 트로피
Kim's Camera & Sound

취급품목 : ①카메라 일절
②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③여권사진및 시민권 사진즉석촬영 (5분이내)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SunLife OF CANADA
취급보험
ㅁ생명보험
ㅁ연금제도
ㅁ교육보험
ㅁ그룹보험
ㅁ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ㅁR.R.S.P

김 신 명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B)922-3111 R)439-8885

제1회
바시티배 쟁탈 야구대회
일 시 : 9월5일 오전 9시
장 소 : 센테니얼 팍 야구장
신청장소 : ⊙바시티 운동구점(967-7304)
⊙박재선씨(755-6434)
⊙조용덕씨(423-3251)
참 가 비 : $50 (팀당)
주장회의날자 : 8월28일(금)하오8시 (바시티 운동구점)
주최 : 바시티 운동구점(이건영)
후원 : 민중신문사·코리아 저널·대한체육회
쌍방울 메리야스·미도파 선물센터
SUN-LIFE (윤호영)

East AsianLibrary
Rm D03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기쁜 소리 444-4011

— 안 상 엽 —

"조국"의 뿌리

— 8·15해방 36주년 —

"말"이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서로의 의사를 통하는 방법과 수단이다. 그래서 말의뜻을 찾는 사전에는 말마다 많은뜻이 나열되어 있다. 아마 쉬우면서도 많이 사용되는 말일수록 그 뜻의 표현은 다양하리라 본다.

그런데 제아무리 훌륭한 사전이라도 말의 주관적인 의미까지 그려내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사랑"이라는 말이 사랑을 가진 자에게는 그렇게도 귀하고 아름다운 소리로되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라는것을 주고 받은 경험과 체험이 없는사람 에게는 무의미하고, 도리어 그 말은 외식이나 또한 쓰디쓴 독이든 것으로 증오를 일으키게도 할 것이다.

"감옥"이라는 말은 감옥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죄인을 가두어 두는곳이라 뜻하겠으나, 반면에 죄인이나, 혹은 죄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갇혀 [illegible] 세상에서 가장 부자유하고, [illegible] 과 같은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서 판단하고 사용해야 한다.

"조국"하면 왜 그런지 "해방"과 직결되어 생각하게 된다. 애급에서와 바벨론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울부짖던 자유와 축복이 곧 출애급과 해방에 직결되고, 그 결과가 예배하는 공동체 로 오늘까지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치가나 민족주의자의 연설이 있기전에 모든 사람의 깊이에 뿌리박고 있는 말이 곧 "조국"이다. 그 누구도 완전하고 정확하게 표현 못하는 냄새와 맛이 그 속에 담겨있고, 건너뛰고 달리던 개울과 논두렁이 있는 고향이 그 품속에 있고, 거기는 웃음과 눈물과 땀과피가 하나의 오랜 전통의 개울을따라 이리저리 휘감기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조국"이라면 우선내가 태어난 집과 뼈가 굵어진 동네와 애국과 충성을 약속해 보는 대상인 동포가 뿌리박고있는 곳이다.

아마 그것을 상징해 보려고 "무궁화"꽃을 피게하고 "태극기"를 날려 울타리를 만들고, 누가 한치의 땅 한줌의 흙이라도 가져갈세라, 눈을 크게뜨고 지키는곳이 "조국"이라 본다.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연설은 "조국"이라는 말 앞에서는 삼가했으면 좋겠다.

살이 섞이면 "나라"는 될지언정 피가 하나로 흐르는 "조국"은 아니다. 36년전의 8·15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한국땅을 삼키고, 왜족이 한민족을 36년간 억누른노예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조국을 다시 찾은 날이다. 왜족의 발에 짓밟혀 있을 때는 "조국"에 불이 꺼지고, 웃음이 없어지고, 생기가 시들어진 때다. 그들은 꽃도 꺾어가고, 나무도 베지고 잘라 갔으며, 결국은 열매와 곡식도 다 훔쳐 갔었다. 그래도 남은것은 "조국"의 뿌리였다.

그런 속에서는 희망도, 자유도, 환희도, 전진도 없었고, 심지어 우리의 말과 언어와 이름과 피까지도 흥크러놓았다. 다만 싸움 뿐이었다. 남과 싸우다가 결국은 동족과 동족이 [illegible]

"캐나디안"이면어떻고, "아메리칸"이면 또한 무슨 상관인가. 살이 연결되고, 피가 흐르고, 생명력이 있는 곳에 조국의 뿌리가 있고, 거기서 순이 솟고, 꽃이피고, 열매가 맺게된다. 우리 각자에게는 "접시"가 아니라면두개의 "조국"이 있다. 육신이 태어난 세상의 조국과, 내 영혼의 근원인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기뻐하고감사한다. 억압에서 해방되어 조국을 찾은 감격과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기쁨으로 나그네된 세상에서도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

(토론토한인선교교회 담임목사)

치과의사 윤중태씨 밴쿠버로 이전

수년간 토론토 로얄·욕에서 「윤중태 치과의원」을 경영해온 치과의사 윤중태씨가 12일 밴쿠버로 향발, 이주했다.

윤씨는 밴쿠버에서 치과의원을 개업할 예정이다

황용현회사 설립 부동산인 황용현씨

지난 5년간<센츄리21 로차 부동산주식회사>에서근무하던 황용현씨가 최근 <황용현(Tom Hwang)부동산회사>를 101 던칸·밀·로드(Ste·404)에 설립했다.

돈벨리·파크웨이와 Hwy·401사이, 프린스·호텔 근처의 이 회사 전화는 449-8644/5 [illegible] 사스 주립대학서 경영학사및 석사(MBA)학위를받은 황씨는 토론토교민을위해서도 많은 활약을 해왔다.

그는 76년도 한인회부회장, 77년도 한인회과도운영위원을 지냈고 이때 토론토 한인 신용조합의 산파역을 맡았으며 기타 경영상담에 응해왔다.

캐나디안 랩소디 (14)

— Canadian Rhapsody —

글·그림 신 동 헌

내가 청년시절부터 품어왔던 소원이랄까 항상머리를 떠나지않는 어떤 상념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영봉이라고 일컬어지는 백두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베에토벤의 제9교향곡 제3악장을 들으면서 백두산천지(天池)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의비원에 가까운이 소망도 지금형편 같아서는 나의생애에 쉽게 이루어질것 같지않는것이 내내 아쉬웠는데 이번에 어쩌면 그소원을능가하는 일대소망을 캐나다의 땅에서 속시원히 풀게된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세계에 으뜸간다고 장담하는 캐나다의 록키산맥을 6박7일의 여정으로 구경하고, 하루 평균 1천리길을달리는 강행군이 었으나 도합꼭 7천리의 여로중에하루나절을 뺀 나머지는 일기가 쾌청하여 시야가훤히 트였고, 곳곳에서 카셋트 테이프로 준비한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콘테·스켓치로, 혹은 수채화로록키의 장관을 화폭에 담을 수 있었으니 나에게는 일대 장거라고도 할만한 쾌사였다.

그 광활한 지역을 샅샅이 구경하자면 적어도 한달은 잡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일주간의 여정이었기에 「주마간산」격의 흠도있었겠으나 열심히 구경하고 그림도 그리고하여 독자여러분에게 어느정도의 리포오트는 할수 있을것 같고, 하도 장대한 경관이었기에 아마 이 시리즈에도 록키산맥 얘기는 몇회에 걸쳐서 써야만 할것 같다.

우선 이글의 첫머리에베에토벤의 교향악 운운의 글을 썼는데, 나는 이 자리는 기사를 쓰면서 그의 음악을 인용할 때가 많았 던 것 같으니 여기서 내나름대로의 약간의 주석을 덧붙여볼까 한다.

"내가 수십년동안 그림을 그려서 호구지책으로 삼아온건 사실인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제일 사랑하고심취하는 예술은 음악이다. 내가 작곡가 중에서 세사람을 꼽자면 J·S·밧흐, 모오차르트그리고 베에토벤이 되겠는데, 밧흐는 종교적인 심령의 세계에 바탕을 둔 음악, 모오차르트는 하늘의 음악, 또한 베에토벤은 대지에 뿌리박은 음악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보통 베에토벤의 제9교향악이라면 인생의 환희를구가하는 종악장에선 절정을 이루게 되니, 대중에게도널리 알려져 있지만 나는 그 앞의 악장 종악장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 제3악장"아다지오·칸타빌레"를 특히 좋아한다. 소년시에 처음 그 교향악을 들었을때부터 제3악장에 오면 장엄한 산맥과 깊고잔잔한 산중호수가 펼쳐지는 그런 광경을 항상 연상하였다. 아직도 그 생각엔 변함없고, 전문적인 음악평론가로부터 틀린 생각이라고 지적된다하더라도 나는 그 생각을 버릴 작정은 없다.

록키산맥 곳곳에 고여있는 호수들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표현 생각들을 떠올렸을까? 그림을 그리자면 물감의 이름을 서양식으로 외우고 분별하기도 쉽지 않다는것을 항상 느껴 왔는데, 가령 청색만해도 세루리안, 블루어, 코발트 블루우, 안트와프 블루우, 프러션 블루우, 울트라마린 블루우, 인디고, 또한 녹색계에도 비리디안, 에메랄드·그린, 카파·그린, 후유카즈·그린, 디이프·그린, 올리브·그린, 코발트·그린, 파아마넨트·그린타아코이즈, 테레·벨테 그밖에도 많은데, 조금씩 뉴앙스가다른물감의 이름을 외우자니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정도다.

그런데 록키산맥의 그많은 호수들이 제각기 조금씩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고, 또 그것들이 천후 조건이나 햇빛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조변하는 그런것들이다. 내가 이번에 수록한 수채화중엔 호수를 곁들인 산들이 많은데, 호수 색깔이 녹색계통것이 많다.

"바다라면 모르되 호수가 어째서 이렇게 노골적인 녹색이냐? 신 아무개는 혹시 색맹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도 되나, 그렇지만 나는 모험 생각이 없다. 왜? 록키산맥의 호수들은 빼개가 녹색을 띄고 있으니까.

하여튼 나는 그렇게 묘하고 아름다운 호수를 처음보았다.

캐나다땅에 왔다가 록키산맥을 안보고 돌아가는것은 우리나라의 좀 저속한 비유이지만 "개가 바위에 갔다온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될것 같아서 아직 안본 교민여러분 에게도소비를 절약해서라도 여비를 장만하여 꼭 한번 가보시라고 권유하고 싶은곳이다.

다음회 부터 록키의 풍정을 좀더 상술할 작정이다. (계속)

"LAKE O'HARA"

◇록키산맥속엔 이런 산중호수가 수없이 있다.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주간女性

1981년도 SUPER TEN 골프시합

장 소 : GLEN EAGLE GOLF CLUB BOLTON, ONTARIO.
시 일 : 1981년 9월6일. 7일 양일간
TEE OFF : 12시 정오
참가자격 : OPEN 시합에 GROSS 10등까지를 자격자(하기명단 참조)
참 가 비 : $55.00
시 상 : ●GROSS 3등까지 ANNUAL CUP
●NET 3등까지(HANDICAP 에 의한) ANNUAL CUP
●SUPER TEN 10명 시상
●LONGEST DRIVE CONTEST
●NEAREST HOLE,
●STRAIT BALL CONTEST.
접수방법 : 1981년 8월29일까지 하기준비위원에게 접수요망
준비위원 : 정 정 홍(678-2444) (현장에서 접수안함)
원 장 호(889-3544)
김 만 구(486-0397)

1981년 8월 3일

1981년 TOP TEN명단

1.	이 기 훈	15.	김 진 기	30.	정 창 헌	45.	강 태 영	60.	최 동 호
2.	박 영 철	16.	김 용 기	31.	박 종 연	46.	이 석 범	61.	김 형 도
3.	최 상 수	17.	윤 여 경	32.	차 자 윤	47.	김 태 수	62.	노 중 길
4.	이 광 민	18.	조 성 호	33.	오 석 원	48.	신 동 삼	63.	송 종 남
5.	함 태 호	19.	강 공 선	34.	정 길 수	49.	김 현 철	64.	최 충 식
6.	이 창 회	20.	김 만 구	35.	홍 진 표	50.	이 호 영	65.	강 경 하
7.	고 광 남	21.	심 재 환	36.	한 강 국	51.	박 상 선	66.	김 인 환
8.	곽 창 수	22.	이 영 헌	37.	김 홍 량	52.	이 창 복	67.	원 병 흡
9.	박 노 욱	23.	차 인 규	38.	김 창 갑	53.	오 재 원	68.	김 창 환
10.	배 용 문	24.	이 제 민	39.	김 영 욱	54.	김 경 철		
11.	최 호 영	25.	원 장 호	40.	장 인 수	55.	이 강 익		
12.	차 선 겸	26.	홍 기 표	41.	강 태 룡	56.	유 기 훈		
13.	정 용	27.	정 정 홍	42.	엄 주 익	57	이 병 문		
14.	백 운 산	28.	김 형 봉	43.	정 용 주	58	배 광 수		
		29.	최 병 인	44.	하 청 남	59	유 영 갑		

1981년 8월8일현재

MOLSON'S Brewery (Ontario) Limited

주최 : 토론토한인골프협회
후원 : MOLSON

MOLSON'S Brewery (Ontario) Limited

캐나다및 퀘벡주 경제전망 (2)

경제발전 여건 갖춰

정희수 박사 (퀘벡대학)

퀘벡의경제전망은전술한(※한국일보31일자8면)단점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달려있다.

다행스럽게 퀘벡경제는 10년전부터 온타리오주 경제를 추적해 왔다.

73~78년간 전국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1·5%였으나 퀘벡주는 이보다 빠른 2·6%였다.

퀘벡의 경제적 장점은다음과 같다.

(1)농업전망이 좋다.

우유생산량의 절반이 수출되며 돼지고기도 수출가능성이 많다. 곡류및 야채생산증가도 기대된다.

(2)펄프·제지산업 전망이좋다.

기타 철광, 석면, 금매장량이 많다.

(3)3차산업의 계속적 성장

73~78년중 3차산업 성장율은 190%였다. (1차산업 성장율은 7%)특히 몬트리얼지역은 금융, 보험, 마켓팅, 기술연구등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할 것이다.

(4)정부시책에 따라 제조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다.

(5)20년 전부터 퀘벡주내의 경제 불균형이 개선되는추세가 생겼다.

(6)장기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연, 인적자원, 기술, 교육등 모든 여건을 갖추었다. 정부가 독립을 추구하지않는한 정치적, 사회적 안전성을 유지할 것이다.

(7)값싼 수력전기가 충분하다. 온타리오주 가격은 1KW당 $1·79이나 퀘벡서는 $1·18이다.

2 단기전망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인 일본, 영국, 미국의 상태를보면,

일본은 80년도 성장율이 6·8%였으나 금년에는 2·0%로 감소할 것이다.

국민총 생산은 금년에도, 6·1%가 감 [illegible]의 경제는 작년에 0·1% 증가했으나 금년에는 2·2%로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미국행 수출은 증가할 것이지만 타국가로가는 수출은 전망이 어둡다.

이때문에 금년 수출은 13·3%가 증가할 것이다. 80년도 수출증가율은 16·9%였다. 대신 수입은 금년에 13·2%가 증가, 작년도 12·1%보다 높을 것이다.

국제수지상의 적자는 작년에 20억달러, 금년에는30억달러가 예상된다.

국내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플레의 가속화와 이자율의 상승이다. 석유가격 때문에 캐나다 이자율은 내릴수 없다.

금년 국민총 생산량은작년보다 나아 지겠지만 실제 성장율은 3·9%로 예측된다.

이밖에 금년도 전국의경제전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석유가격 상승및 인플레때문에 정부의 재정, 금융정책은 통제를 계속할 것이다.

(2)국민소비가격은 11%를 초과하고 실직율은 7·5%,

(3)개인소득이 기업체 소득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4)내구재 상품소비는 비내구재보다 둔하게 증가한다.

(계속)

世紀의 복싱對決 레너드-헌스

프로복싱 WBC웰터급 세계챔피언 슈가레이·레너드 선수와 WBA 동급챔피언 토마스·헌스선수가 최근 뉴욕에서 만나 입씨름을 벌였다.

오는 9월16일 라스베가스 시저스패리스 특설 링에서 통합챔피언전을 벌일 이들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세계 권투팬의 관심거리.

헌스는 기자들에게 『레너드는 권투팬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훌륭한 선수지만 나역시 그에 못지않은 우수한 선수』라며 자신만큼 스피드와 기량을 갖춘 선수와 대전한 경험이 없는 레너드는 상대가 안된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대전이 불꽃튀는 접전이 될 것을 예상하면서 레너드의 기량이 헌스보다 약간 우세할 것이라고 점치고 있으며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은 두선수의 대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승부의 향방이 신장과 리치에 열세인 레너드가 기량과 두뇌, 체력의 우세를 이용, 헌스와의 거리를 좁혀 접근전으로 임한다면 승리는 레너드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인회장에 3명 입후보설

등록원서 3매 발급

오는 24일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마감을 앞두고, 14일 현재 3명의 회장 후보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2일까지 한인회는 입후보자 등록원서 3매를 발급했다.

이번 회장선거 업무를맡고있는 한인회 과도운영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함, 김, 장씨등 3명이 입후보를 고려하고 있다는 설이 돌고있다.

회장선거는 9월26일에있을 예정이다.

한편 박인순 한인회과도운영위원위원장은 사무 인수인계의 한 단계로 현 한인회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강우석 전회장으로부터 한인회관 열쇠등을 전달받았다.

◇드니로와 미넬리—인기상승중인 두 스타 로버트 드니로(왼쪽)와 라이자 미넬리가 11일밤 영화「뉴욕, 뉴욕」의 전국개봉 축하파티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UPI〉

상점경영의 묘미…②

효과적인 판매방법

피터·테사(로스만소매경영연구소장)

우리가 언제 어느가게에 들려 물건을 샀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이다.

「웹스터사전」은 "판매(To Sell)"의 정의를 아래와같이 내렸다.

(1)어떤행동을 유발시키고,

(2)판매로 유도하며,

(3)팔려고 시도하며,

(4)구매를 유발하는 환경및 유도.

어떤 소비자는 상점에 들어섰을때 심지어 자기이름을 부르며 반가이 맞아 주는 주인을 기억할 것이다. 또 어떤때는 집안식구나직장동료를 통해서 이와같이 친절한 가게주인의 얘기를 들을 것이다.

상점을가진 독자들은 자기가게의 판매증진을 위해 어떤 방침이 있는지? 과연 판매의 기능은 무엇이냐?

우선 상품의 진열에서부터 첫번째의 판매행위가이루어 진다. 현 시대의 상품진열 공개방식은 대부분의 상품을 카운터 뒷전에 두고 제한된 품목만 진열하던 구시대와는 아주 다르다.

상품진열이 간편하고 깨끗하고, 편리해야 한다는것은 당연하다.

주의 깊은 상점주인은손님의 관심이 진열방식에따라 바뀐다는것을 알고있을것이다.

손님과의 대화도 중요하다. 상점에 들어온 손님에게 "May I help you?"하고 물으면 당신은 "No"라는 답을 쉽게얻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세일할 기회는 끝나는 것이다.

이런질문을 예상해 보자

문: (1)사진찍을때 후래쉬를 쓰십니까? 안쓰십니까

(2)선생께서 사진을 찍으십니까? 아니면 선물로 이것을 사십니까?

이런 질문에는 간단히 "No"라고 할수 없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첫번째 판매작전에 성공한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현명한 가게주인이라면 각종 앨범을 보여주고, 까만앨범을 위해 하얀연필을 준비할 것이다. 또 자기 가게의 필름현상 서비스도 설명할 것이다.

훌륭한 판매작전은 세일을 늘이는것만 아니라, 가게주인과 손님의 유대관계를 밀착시키고, 나아가 정보수집및 아이디어 교환등을 할수 있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직한 판매작전만이 당신을 번창하게 할 것이다.

아시아의 경제발전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국가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뿌리깊은 유교사상이 큰원인인것 같다고 최근 〈워싱톤·포스트〉지가 보도했다.

윌리암·채프맨 동경특파원은 한국, 일본, 대만등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상을 소개 하면서 많은 학자, 경제전문가, 외교관등의 견해를 인용, 유교사상에서 나온 국가 지상주의, 높은 교육열, 지도자 숭배사상등이 현대자본주의와 잘 혼합되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한국, 대만, 싱가폴의 경우 강력한 지도자 아래 계획된 경제정책을 수립, 이와같은 놀라운 발전상을 이룰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㊵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저쪽 어디엔가에 이누이트 쿠(강에서 사는 사람들)인디언들이 지나간 길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 많은 호수중에 어떤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없었다. 사방을 바라보고 있자니까 오호토가 다아와 내옆에 쭈그리고 앉더니 덩달아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내가 망원경을 내리자 그는 다시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그리고는 시골사람이 도시친구에게 하듯이 정중한 태도로 그는 이곳 저곳 재미 있는 곳을 손으로 가르켜 주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호토는 말없이 표현 할 수 있는 재능을 지녔다. 그의 몸짓은 글을 읽는 것처럼 명확했다. 그는 북쪽으로 몇마일 밖의 좀 큼지막한 호수를 가리키드라고 팔을 쭉 뻗히더니 "오-텍 쿠마닉"하고 입을 떼었다.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오-텍레이크 연변에 3개의 작은 점이 보였고 좀더 자세히 보니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그것이 이사람들의 천막이었다. 오호토는 재빠르게 그의 팔을 북쪽으로 돌려 다른 호수를 가르켰다. 할로 쿠마닉 카꾸미 쿠마닉 마지막으로 팅 메아 쿠툭 이누이트 쿠의 큰 강으로 연결되는 작은 구-스리버를 가리켰다.

이들은 셀 수 없는 여러개의 호수를 서로 붙들어매놓았지만 큰 강으로 계속되는 것같지 않았다. 후에 내가 여행을 해 보니까 이 호수들은 놀랄만큼 반듯반듯 했고 방향이 일정했지만 지금 먼 발치에서 보니 잘보이지도 않고 물로 범벅이 된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외부사람에게 바렌이 보여주는 변덕스러운 모습인 것이다.

우리는 언덕위에서 차를 마신후에 짐을 챙겨 이할미우트땅으로 내려갔다. 그 두 에스키모들이 길을 안내하는데 울퉁불퉁한 바위위를 걷는 그들의 가뿐한 발걸음은 카리브가 무색할 것같았다. 우리들은 뒤에서 힘들게 쫓아갔고 드디어 오-텍 레이크의 낮은 연변까지 도착하게 되었다.

물건너편으로 3개의 텐트가 보였고, 그 뒤쪽에서 있는 추화된 직갈등성이와 잘 어울렸다. 사람과 개들은 텐트주위를 맴돌고 불이 두개나 더 다시 피워지는 것이 보였다. 왜냐하면 먼발치에서 낯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도착하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이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사람들의 캠프는 몇개의 호수연변에 다만 두세개만짓도록 되어있었다. 땔 버드나무가 흔하지 않아서 한곳에 세가구이상 지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 오-텍 쿠만닉에는 헤콰우 오-텍 그리고 오호토의 가족이 살고 몇마일 동쪽에 위치한 할로 쿠만닉에는 할로 아하 미키의 텐트가 있었다. 카꾸미쿠만닉에는 캠프 3개가 따로따로 있는데 카텔로와알렉카하우는 한곳에 오울릭툭과 오낵콰우는 다른 곳에 그리고 늙은 카꾸미의 두 텐트는 한참 떨어진 다른 곳에 따로 있었다. 그래서 3마일의 반경 이내에 이 사람들은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동서로 3백마일 남북으로 5백 마일이나 뻗혀있다. 이들은 이할미우트의 가장 오래된 캠프였고 또 마지막 남은 것들이었다. 나는 리틀 레이크 주변에 몇세기를 두고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찾아온 처음의 외부인이었다. 내가 이런 생각으로 흥분하고 있을 즈음 아이들과 여인들이 처음으로 백인을 만나 보는 사실에 똑같이 흥분하고 있었다.

◇이글루앞의 어린이 — 한 이글루앞에 서있는 에스키모의 어린이들. 영원한 운명의 이방인 자손이다.

우리는 호수를 돌아서캠프쪽으로 걸어갔다.

호수쪽으로 경사진 연변에는 바위가 보이지 않고 거의 뼈로 차있었다.

해를 거듭해서 쌓인 카리브의 흰 뼈는 무너져 버릴것처럼 높이 솟아있었으며 바렌의 기후에는 나무나 뼈가 썩지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듯 했다. 개들과 기후 때문에 큰 뼈는 작게 부서져서 캠프주위에 포장을 해놓은 것처럼 널려 있었다. 그러나 뿔과 머리 뼈는 기후나 개들이 건드리지 못했는지 죽은 나무숲처럼 쌓인채로 있었다. 그뒤에 이할미우트 텐트주위에 있는 머리뼈를 세어 봤더니 대략 2백여개가 넘었다. 그러나 이 뼈들은 에스키모들이 잡은 카리브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나치, 북미에 기지 설치

캐나다에 무인측후소 비밀건설

2차대전때 한창이던 1943년10월 캐나다 동부 뉴·화운랜드 근해로 독일 U-보트(잠수함)1척이 소리없이 들어왔다. 몇시간 후 라브라도 북방 킬리넥 섬에는 일기관측소가 극비속에 건설됐다.

이 비밀은 38년이 지난 지난7월20일 해안경비대에 의해 모습을 드러 냈다.

이 발견은 독일이 2차대전중 북미대륙에도 전쟁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최초의 증거물이다.

뉴·화운랜드는 49년까지 캐나다 영토가 아니었다.

이번조사는 은퇴한 독일기업인 후랜츠·세링저의추적에의해 실현됐다.

시멘스 회사에서 전쟁구조물에 관해 연구했던 세링저씨는 U보트 함장의 아들을 찾아내어 그가가진항해일지에서 이 무인 일기관측소가 세워진 것을 알았다.

"이런 관측소를 적진에 몰래 세우고 작동시키는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 무인 관측소는 자동적으로 3시간마다 한번 씩 일기에 관한 데이타를 독일로 보냈다"고 세링저씨는 최근 캐나다방문에서밝혔다.

이 관측소를 설치했던 U-537잠수함은 9월30일 유럽을떠나 래브라도 해안에 10월22일 도착했다.

세링저씨의 정보는 캐나다 국방부 전사국장 더그라스 박사에게 연결됐다.

더그라스국장은 U-537일지와 당시 일기관측보고서등을 추적, 마침내 일기관측소의 위치를 파악하고 흔적을 찾을수 있었다.

"모두 흩어진 상태로발견됐다. 전기줄은 끊겼고, 변압기나 기록기도없었다"라고 더그라스 박사는 말했다.

이 관측소는 사냥꾼들에 의해 파괴된것 같으며, 주위에는 303구경탄창등이있었다.

관측소는 150와트의 바테리가 출력을 주며, 바람의 진동폭을 기록하는 장치등도 있었다.

관측소는 유럽지역의 일기를 장기예보하기 위해설치된 것으로 추측됐다.

◇무인관측소가 설치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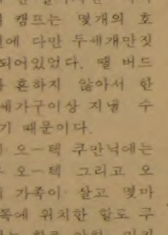
◇세링저씨등 수색반이 독일군이 세운 무인관측소 잔해를 보고 있다.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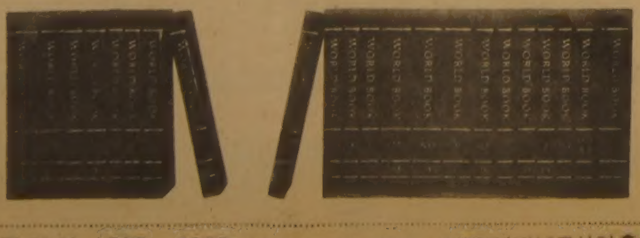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 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 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 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533-2363 (9시-4시) 769-4366(저녁7시이후)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재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전 북미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GM의 신형모델 J2000가 에디슨에 나와 있읍니다. 각종외국 수입품보다 Engineering. Technology. Gas Mileage에서 월등하며 GM역사상 가장 센세이숀널 J2000를 시운전 해보시고 북미의 이 새로운 Feeling을 체험해 보세요.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金洪信 作
皆然石 畵

㊱

제법 칼을 사용해 본 듯한 동작이었다。 그러나 칼을 내게 휘두르는 동작이 어쩐지 어색했다。 옆에 있던 사내가 완강하게 말리는 것이나 사내의 위협적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았다。

『이러지 말고 말로 합시다。』

나는 흥정에 응할 뜻을 비추어 주기 위해 겁 먹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말로? 너 콱 칼러 버릴테다!』

사내가 길길이 날뛰었다。 티 셔츠 차림의 사내가 나를 잡고 목욕탕으로 들어가자는 눈치를 보였다。

목욕탕 문을 안에서 잠근 사내가 나를 벽에 세워놓고 의미있게 웃었다。

『당신 이 근처 자주 들랑거려서 알겠지만 저 친구가 무서운 친구라구。 신사동 칼잡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 당신도 사년째…。 딱하지만 어쩔 재간이 없잖은가。』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지 여편네가 홀리는데 안따라갈 사내가 어디 있어요? 더구나 일본 여자 타고 텀서 안심하고 왔는데…。 이거 야 원。』

> **지난줄거리**
>
> 승찬이가 메칸홀로 나갔다。 일본여자는 다른 사내를 낚아채어 즐기고 있었다。 승찬이가 두여자를 낚아채어 호텔까지 따라나섰다。 두 여자는 옷을 벗고 승찬이를 유혹했다。 승찬이는 두여자를 메치우고 싶은 욕망을 간신히 참는다。 예상대로 떡치파가 뛰어 들어와서 길길이 날뛰며 간통죄로 고발한다고 겁을 주었다。 승찬이는 벌름거리며 웃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칼을 휘두른다。

『그러니까 딱하다는 거 아닌가。 저 친구 인사불성이라 자네 까닥하다간 황천 간다니까。』

『황천 가는 거야 무섭지 않지만 재미도 못보고 이 꼬라지가 되니까 환장할 일 아닙니까。』

『제수가 옴붙은 거야。 저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거 같아서 그동안 애들을 풀어 감시를 시켰는데 당신이 걸린 거지。 지금 저 칼잡이 부하들이 호텔 아래서 기다린단 말야。 개들은 이를 갈고 있어。 걸렸다가는 큰 일 나。 그러니 저 친구를 구슬려서 여길 빠져나가야 돼。』

『무슨 재주로 됩니까?』

『그러니까 타협하자는 거 아냐。 저 여자는 어차피 이제 신세 망친 여자고 당신은 살아야잖아。』

티 셔츠 차림의 사내가 나를 구슬리는 동안 방에서는 사내의 고함소리와 여자의 애원하는 소리가 귀에 거슬릴만큼 들려오고 있었다。 여자는 얻어맞는지 비명소리를 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오는 기색이 났다。 걸쭉한 목소리에 독기가 서려 있었다。

『형님、그 자식 어디 있어요? 우리가 끌고 나가 없애버릴께요。』

『그걸 그냥 뒀어요?』

『형수님、우리가 그냥 둘줄 아쇼?』

애들 목소리가 점점 험악해져 갔다。

『그 자식 저 안에 있어。 니들은 빠져。 내가 처치할테니까。』

사내가 애들을 달래고 있었다。 나는 바깥 동정을 살피면서 겁 먹은 표정을 보였다。

『이거、어쩌죠。 저 좀 어떻게 봐주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일부러 떠는 목소리를 내려니까 잘 되지 않았다。

『글쎄、나도 이걸 어째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참을리도 없고。 나 차암。 미치겠구만。』

『그러지 말고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 동안 밖에선 목욕탕문을 발길질로 걷어차는 소리가 요란했다。

『깜빵 가서 고생하지 말고 돈좀 푹 내놔。 그 수밖에 없잖아。 어차피 저 친구들은 갈라설 거고…。 이런 꼴로 더 살지도 못할 거구 말야。 괜히 시끄러워서 신세 망치지 말구。』

『얼마면 될까요?』

『얼마라기 보단…。 얼마 내놓을수 있겠어? 내가 한번 나서볼께。 저 여편네 바람기땜에 여럿 잡누만。』

『그걸 내가 어떻게 정해요。 이런 꼴은 첨이라서。』

『대충대충 맘 편히 먹고 내놔。 보아하니 궁하지도 않은 모양인데。 두어장 내놔봐。 그거 가지고 될지 모르지만。』

사내는 손가락 두개를 내밀어 보였다。 이런 꾼들이 두개를 얘기할 때는 이천만원이란 뜻이었다。

『이백만원요?』

나는 어리숙한 체하며 이렇게 반문했다。

『이게、내가 농담하는 줄알아?』

버럭 역정을 냈다。 나는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않은 채 사내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이천만원 내란 말요?』

『그럼 이백만원 가지고 공판 치려고 그랬나?』

『이백만원이면 동네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아요。』

″監視網에 걸려든 거야、살고 싶거든 2천만원 내라″

″순순히 입열어: 언제부터 저 여자애들과 장사 했어″

『어쭈。이게 간덩이가 컸어。』

『간덩이는 멀쩡하다구요。 바람난 여자 옷벗는 거 구경하고 이천만원 내라니 말이나 돼요?』

『너 지금 농담 따먹기 하는 거야?』

『농담을 어떻게 따 먹어요?』

『이 새끼를 콱!』

티 셔츠의 사내가 손을 치켜 들었다。 밖에서는 계속 사내들이 험악하게 떠들고 있었다。 나갔다가는 당장 황천길로 갈수밖에 없을 분위기였다。

웬만한 사내라면 이런 경우 기겁하고 싶을 일이었다。 꼼짝없는 함정속에 남자를 몰아넣고 다그치는데야 무슨 재주로 위기를 벗어날수 있단 말인가。

『형씨、이손 놓으슈。 나두 태권도장에 놀러다녀서 띠 사릴줄은 안다구요。』

『허허、이걸 그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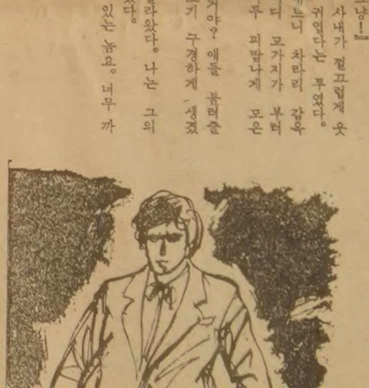
티 셔츠 차림의 사내가 겉고려게 웃었다。 내 말솜씨가 귀엽다는 투였다。

『이천만원을 내느니 차라리 감옥살이 하든지 어디 모가지가 부러지는게 낫지。 나두 피땀나게 모은 거라구요。』

『너 정말 버릴거야? 애들 불러줄까? 오늘 사람고기 구경하게 생겼구나。』

또한번 손이 올라왔다。 나는 그의 손목을 잡고 말았다。

『나두 처자식 있는 놈요。 너무 까불기지 마슈。』



『어허、이게。』

사내가 내 가슴을 쥐어 박았다。 나는 그 순간에 사내의 목줄을 눌러 잡았다。

『너 한번만 더 나한테 손 내밀면 손목을 못쓰게 할 거다。 알았지?』

사내는 목줄이 죄어져 바둥거렸다。 나는 샤워기를 작동시켜 물살을 녀석에게 흠썬 뿌려 목욕통 속에 거꾸로 쑤셔 박았다。

『말해。 너두 떡치 부하지?』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떡치가 시키더냐?』

사내는 고개를 드세게 흔들었다。

『저 녀석들도 떡치 부하지?』

『그、그렇다。』

『너 허바닥이 박쪽이구나。』

떡을 몇번 올러 붙였다。 사내가 앞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저 여자들하고 한 거지?』

『그럴 리가 있소。』

『칼잡이 마누라가 아니잖아。』

『마누라、맞소。』

『이게 사람 비위 상하게 놀고 있어。』

관절 두개를 나란히 꺾인 사내가 숨 막히는 소리로 대꾸했다。

『우리가 뭐 봐주는 여자요。』

『개자식들。』

나는 사내를 변기 속에 거꾸로 집어넣어 물을 쏟아 먹였다。

목욕탕 문을 열고 나오자 사내들이 일제히 칼을 꼬나 잡았다。 물먹은 티 셔츠의 사내가 비척거리며 나와서 바닥에 주저 앉았다。

『저 꼴 되기 싫으면 무릎 꿇어라。』

내가 이렇게 말하자 사내의 얼굴이 대번에 변색되었다。

『이 자식이 아직 뜨거운 맛을 못봐서 그렇구나。』

칼잡이는 무기를 믿고 큰소리 치고 있었다。

『떡치가 그 따위로 가르치더냐? 계집애 내세워서 벌어 처먹으라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칼잡이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 칼이 방바닥에 떨어졌다。 다른 사내들이 일제히 공격자세를 취했다。

『칼 버리지 않으면 손 모가지를 못쓰게 해놓겠다。 어서。』

『어쭈、저게 놀구 있네。』

세 사내가 나를 포위하듯이 덤볐다。 두 녀석의 다리를 걷어찼다。 나머지 한 녀석이 침대 위로 껑충 뛰어 올라섰다。 나는 시트를 힘껏 낚아챘다。 녀석이 비틀거리는 틈에 나는 턱을 걷어찼다。

『순순히 입을 열지 않으면 진짜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 내 말 명심해。 난 잔소리 하기 싫은 성미니까。』

다섯명의 사내를 침대위에 앉히고 두 여자를 바닥에 앉혔다。

『형씨、떡치 형님 잘 아슈?』

칼잡이가 체념한 듯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어 보였다。

『소문은 들어서 안다만 쌍판대기가 어떤지 아직 한번도 못봤다。』

『우리 신사적으로 끝냅시다。 없었던 걸로 칠테니까。』

티셔츠의 사내가 건들거리며 말했다。

『지금부터 묻는 말만 대답해라。 잔소리하는 놈은 별 구경을 시킬테니까。』

눈앞에 불꽃이 튀게 주먹세례를 하겠다는 암시였다。

『언제부터 저 제집애들과 장사했어?』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코웃음을 쳤다。 나는 여자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굴렸다。 여자가 나뒹굴었다。 하얀 속살과 팬티가 음탕한 여자 같지 않았다。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우리하고 척해져서 손해날게 없을 거요。 떡치 형님이 알아서 대접해 줄테니까 말요。』

칼잡이가 기죽기 싫어서인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말했다。

『또 지껄일 것 없나?』

『좋게좋게 합시다。 형씨 실력이면 우리 떡치 형님이 아끼실 거요。 우리 신사동 떡치파 소식 알거 아뇨。』

다른 사내가 칼잡이의 영향을 받은듯이 거들었다。

『또…。』

『우리도 형씨같은 사람을 찾던 중입니다。 같이 손잡아 봅시다。 나쁠것 없잖소。』

나는 침대 위로 뛰어 오르며 녀석들을 차례로 올려 붙였다。

으악、억、어크、윽、으으윽、이이익。

사내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졌다。 꿈틀거리는 여자애들도 한방씩 갈겼다。

『형씨、개들은 건들지 마쇼。 떡치 형님이 그냥 있지 않을 거요。』

칼잡이가 방바닥에 누운채 역성을 고 나섰다。

『넌 입이 성해서 아직도 지껄일 힘은 있구나。』

사정 볼 것 없이 칼잡이를 두들겨 줬다。 워낙 다부지게 다루니까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말하겠소。하면 될 거 아뇨。』

침대 밑에서 이런 소리가 튀어 나왔다。 나는 녀석의 머리통을 한번 더 걷어찼다。

『…하면 될 거 아뇨。』

침대 밑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애원하고 있었다。

『몇년 됐어?』

『한、삼년 됐읍니다。』

『그동안 얼마나 벌었어? 몇사람이나 잡았어?』

『우린 잘 몰라요。 일주일에 한두명씩 그랬으니까요。』

『그건 네가 대답해。 수틀리면 가랭이를 못쓰게 할 테니까。』

나는 여자에게 말했다。 여자가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눈을 내려 깔았다。 나는 여자의 핸드백을 뺏었다。 핸드백 속엔 화장품과 손수건、피임약과 수첩、이상스런 기구들이 들어 있었다。

『바른대로 말해。』

한번 더 방바닥에다 내동댕이 쳤다。

『나도 잘 몰라요。 그건 어떻게 다 기억해요。』

여자의 앙칼진 소리였다。

『그 돈 누구하고 나눠 먹느냐?』

『떡치 형님 드리니까 우린 잘 몰라요。』

칼잡이가 침대 밑으로 고개를 내밀고 대답했다。

하나님。 저렇게 벌어먹고 사는 걸 나무라는 내가 잘못입니까?

다 들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일주일이면 그렇게 걸려드는 사내가 보통 두명 정도이고 그들에게서 갈취하는 돈이 평균 이백만원은 된다고 합니다。 여자에 눈 뒤집힌 사내들은 그런 벌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 어떤 사내가 그런 유혹에도 꼬떡없이 살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미녀의 유혹、더구나 일본여자 행세를 기가 막히게 하거나 재미동포행세를 그 정도로 해내는 여자의 유혹을 뿌리칠 사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짓으로 벌어먹고 사는 부류들이 다 그렇다 칩시다。 뒤에서 그런 돈 앗겨먹는 깡패들과 그 뒤바라지를 해주는 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마 하늘나라에도 그런 조직이 있는 건 아니겠죠。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이 다섯명의 사내와 두명의 여자가 조잘조잘 털어놓은 것을 치부책에 써놓고 암기라도 하셔야 할 겁니다。 일주일에 평균 두명의 사내를 낚아챘다면。 일년에 백여명이 넘고 그들 말대로 삼년이면 삼백여명이 넘습니다。 많이는 기천만원에서 적게는 백만원까지 갈취해서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그 액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들 떡치파 조직을 없앨 재간이 저에겐 없읍니다。 두목을 잡아서 혼구멍이나 내가 낼테니 제가 칼이나 맞지 않게 해주십쇼。 워낙 떼거리가 많아서 저 혼자는 해치우기 벅찬 상대입니다。 그래서 떡치하고 몇몇 악마구리같은 녀석들만 육체적 고통을 주겠읍니다。

이 따위 사건을 설마 최후심판에 남이 기록하지는 않겠죠。

하나님。 좀 봐주소。 높은 자리 있을 때 말입니다。

″3년동안 몇이나 나꿨어″ ″그걸 다 제가 어떻게 기억해요 몇천에서 적게는 몇백까지 갈취、모두 유흥비로 썼대요″

나는 사내들을 족쳐서 떡치의 본거지를 쉽게 알아낼수있었다。 떡치는 H호텔 특실에서 오늘밤 풋나기 가수를 끼고 잠들기로 결정되어 있다고 했다。 칼잡이는 떡치의 보디가드이기 때문에 떡치의 행선지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어떤 가수야?』

『나비라고 있잖아요。 요즘「내마음을 아세요」란 히트곡 부른 여가수 말입니다。』

『그런 애가 왜 떡치하고 자?』

『이룩 밤무대 나오려면 떡치형님 승낙없인 안되잖아요。』

『빌어먹을 자식。』

나는 괜히 부아가 돋아났다。 밤무대 출연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여가수도 한심했지만 그렇게 몸 쓰고 나오는 여가수를 농락하는 떡치가 밉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 부러웠던 것이다。

H호텔은 번화가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미 통행금지 시간이 되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뒷골목으로만 빠져나가야 될것같았다。

나는 다섯명의 사내와 두명의 여자를 목욕탕에 몰아넣고 시트를 찢어서 재갈을 물렸다。 그리고 손목을 뒤로 묶어서 적어도 일、이십분 고생을 해야 풀려날수 있게 만들어놓고 나왔다。

H호텔로 들어서서 떡치를 찾아왔다고 하자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떡치 형님이 빨리 들어오라고해서 달려왔소? 몰래、급히 오라는걸 보면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오。』

나는 떡치의 심복부하처럼 거만하게 굴었다。 나비 넥타이 맨 사내가 삼층으로 나를 안내해 주고 내려갔다。 방문을 두드렸다。 인기척이 없었다。 나는 계속 두드렸다。

『누구냐?』

걸쭉한 소리가 들려왔다。

『형님、급한 보고가 있어서 왔읍니다。 칼잡이가 한남동 애들한테 끌려갔어요。』

나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두런거리는 소리가 나고 문이 벌컥 열렸다。 나는 한방 치고 들어갔다。 떡치는 팬티바람에 방바닥으로 뒹굴었다。

불을 켰다。 침대 위에는 눈만 빼꼼히 내민 낯 익은 얼굴이 보였다。 떡치를 걷어차며 시트를 잡아 내렸다。 성숙한 여체가 등을 보이며 일어났다。

나비、텔레비전에서나 보았던 미녀가 거기 등을 보이고 있었다。 떡치가 몸 시늉을 하며 일어서려고 했다。 나는 다시 한번 내려쳤다。 앞으로 고꾸라진 떡치가 발버둥치고 있었다。

『얼굴 좀 보자。』

나비를 돌려 앉혔다。 눈부신 육체였다。 나비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짝 세우고 따귀를 철썩이 갈겼다。 아마 두어 주일쯤 출연할 수 없을 것이다。

문이 열리고 사내들이 우르르 뛰어 들어왔다。 나비 넥타이가 연락해서 쫓아온 친위대들인 것 같았다。 나는 들어서는 놈부터 사정없이 주먹을 뻗었다。 그리고 뒤미처 따라붙는 녀석들의 무기 때문에 할수없이 표창을 날리기 시작했다。

열두명이나 되는 사내들이 H호텔 특실에 길게 누워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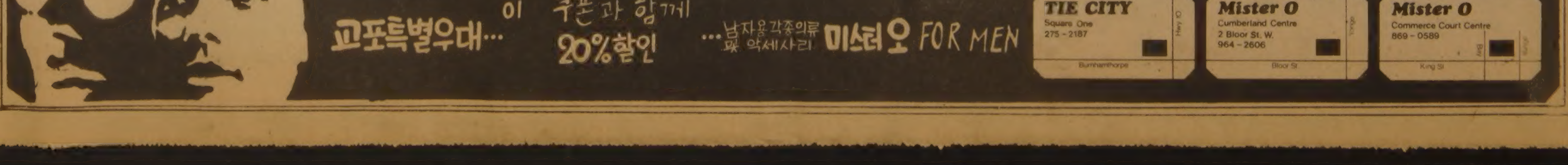
나는 엎드려 있는 떡치를 일으켜 세우고 코가 비뚤어질만큼 마구 때려주었다。 떡치는 숨을 헐떡거리며 침대 모서리에 코를 박았다。

사내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요란했다。 나는 긴장해서 표창을 꺼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내들은 칼잡이 일행이었다。

『똑똑히 봐둬。 그리고 떡치 일어나거든 이 따위짓 계속하다간 명대로 못살게 한다고 해。』

나는 돌아나오며 나비의 엉덩이를 힘껏 걷어찼다。 나비가 베그르르 굴렀다。

(다음호에 계속)



The Korea Times Toronto

週刊한국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1981년8월15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August 15. 1981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生活속의 작은 知慧

사내가 失敗하는 경우보다 抛棄할 때의 人生은 더 悲慘한것이다. 實行하지 않는 信念은 죽은것이나 같다

李在運
(辯護士·牧師)

① 오로지 子息의 將來에 期待를 걸어오신 나의 父母님

黃海水 감도는 半島의 西南端! 黃海道 延白이 나의 故鄕이다.

내가 태어날 때는 20代에 홀로 되신 할머니와 遺腹子로 태어나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위로 누님이 한분 계셨다. 어머니는 그후 딸만 계속 낳으셨기에 시어머니로부터 구박도 어지간히 받으셨지만 여하튼 6·25동란이 날 때까지 밑으로 다섯명의 누이동생이 태어났다.

나는 少年時節을 귀여움속에서 보냈다. 할머니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아버지, 어머니의 나에대한 愛情과 關心은 그야말로 極盡하였다.

아버지는 性品이 의지되시고 몹시 부지런하셨다. 잠시도 쉬시는 일이 없이 일만 하시는 어른이었다. 그리고 그 분의 유일한 희망과 기대는 오직 子息인 나에게만 쏠려 있었다.

나를 서울에 遊學을 보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서 家運을 바로 잡아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신 분이 나의 아버지셨다.

나는 鎭正中學校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기뻐 동네잔치를 벌였다. 廣州郡 [illegible]에서 방 한칸을 얻어 자취를 시작했다.

이부자리와 쌀과 副食을 장만해주고 아버지가 故鄕으로 떠나시면 나는 밤새워 울었다. 난생 처음 어린 나는 父母의 곁을 떠나서 客地에서 외로와 살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放學이 되면 歸鄕길의 列車를 타고 開城을 지나 土城驛에서 黃海線 小型列車로 갈아타고 延安驛에 도착하여 집으로 달려가던 그시절의 感激은 영영 잊을길없다. 마을 어귀까지 나와 기다리시던 어머니께서 『아이고, 내새끼!』하시며 덥석 안아주시던 따뜻한 품이, 母子間의 情을 갈라놓은 30년 세월동안 그리운 [illegible] 가게 했다.

② 6·25事變은 나를 天涯의 孤兒로 만들었다

1950年 6月25日!

同族相殘의 6·25事變이 勃發했다. 그리고 나의 人生은 그로부터 悲慘과 絶望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갔다.

당시 내 나이는 15살, 대부분 그 또래 학생들은 집에 가만히 있다가 收復을 맞이한 모양이나 나의 경우는 아주 달랐다. 6·28 아침 마침 [illegible] 같은 집에서 自炊를 하던 3년위의 학생을 따라 무심코 西江나루에서 漢江을 건넜기에 行方의 逆境을 自招한것인지도 모른다.

여름날 아침 러닝셔츠에 다음 바지만을 입고 手巾에는 [illegible] 맨발로 집을 나섰으니 그후의 [illegible] 生活이란 말 그대로 처량했다. 때로는 國民收容所에서, 때로는 求乞로, 때로는 구두닦이, 新聞팔이, 行商으로, 연명하면서 釜山까지 겪어서 南下를 하였다.

너무도 배가 고파서 密陽 三浪津 땅콩밭에서 엿센거리다가 主人에게 들켜 죽지않을 만큼 매를 맞은 일이며 山에 올라가 머루, 다래라도 따먹을까 하다가 五列로 誤認되어 [illegible]派出所으로 끌려가던 일이며, 정녕 나의 少年時節은 悲慘속에서 피와 눈물로 얼룩진것이다.

더구나 9·28收復의 喜報를 안고 어느 親戚家의 보살핌으로 서울로 올라와 [illegible]나루에서 똑딱선을 타고 내 故鄕 延白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失意와 悲嘆에 빠져서 食飮을 全廢하신 탓으로 死境에 이르렀고, 아버지는 子息을 찾아 서울로 떠나서 길이 어긋나는 狀況이었다. 나 하나로 인해서 온 집안이 쑥밭이 된 셈이다. 얼마후 아버지는 서울로부터 되돌아오셨으나 그로부터 20여일후 1·4後退를 다시 만난 것이다.

끝도 없이 밀려드는 平安道 黃海道民의 行列에 끼여 아버지와 누님과 나, 이렇게 세 식구만이 배를 타려고 海岸부두까지 나왔으나, 집에 두고온 病든 어머니와 다섯이나 되는 어린 누이동생들을 잊지 못하신 아버지는 누님을 데리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나의 머리를 꽉 껴안고 말씀하셨다.

『在運아! 너만 배를 타고 避難을 가거라. 넉넉잡고 두 달만 고생하면 다시 收復이 된다고하니 잘 참고 견디다가 다시 만나자』고.

나는 또다시 單身으로 洞里사람들을 쫓아 江華島 검디섬이라는 곳으로 피란을 했다.

이틀이 멀다하고 섬 뒷山에 올라 빤히 건너다 보이는 내고향을 향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16살의 어린나이에 등에 쌀 세 말을 지고, 배를 타려고 絶叫하는 수천 群衆 가운데서, 얼굴을 놓치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애끊는 모습을 마지막 影像으로 남긴채 甲板위에 오른것이 피를 나눈 父母와 子息間의 永遠한 生離別의 序曲이 될줄이야…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痛恨한 일이 아닐수 없다.

延白출신…動亂으로 孤兒돼 中2學歷으로 高試에 도전

③ 立身揚名의 뜻을 세우다

江華와 仁川을 오르내리며 행여나 故鄕에 들어갈까 때만 기다리던 生活에도 限界가 다가왔다.

이제는 더 이상 自身을 지탱할수가 없었다.

仁川에서 오징어 한 짐을 사서 金浦를 往來하며 팔다가도 불현듯 아버지·어머니 생각이 나면 다시 求乞을 하며 江華郡 喬洞島까지 가서 그리운 山川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다시 仁川으로 나오곤 하는 사이 아주 지치고 말았다.

그래서 17세되던 해 正月에 江華에 주둔하고있던 所謂 켈로部隊라고 命名하던 8240部隊에 入隊를 했다. 小隊連絡兵으로 모진苦生이 되었지만 한줄기 가냘픈 所望이 있다면 그것은 敵地鄕里의 꿈이었다.

그러나 나의運命에 決定的인 瞬間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1952년10월경이다.

서울을 經由하여 들어온 消息에 『아버지가 爆擊에 死亡하셨다』는 傳言이었다.

원통했다. 비탄이 북받쳐 自殺을 하려고했다. 용케도 그 고비를 넘겼다. 며칠 밤낮을 울다 지친 가냘픈 少年의 가슴에 새로운 決心이 솟구쳤다.

『오냐! 두고보자! 6·25가 우리집안을 모두 亡하게 하고 더구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안에서 나마저 單身 南下하여 어린나이에 돌멩이처럼 賤하게 굴러다니는것도 憤하고 怨痛한데, 이제 그토록 보고싶은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단 말인가!

좋다! 내 스스로 몸을 일으켜 나의 生의 價値를 昇華하고 그러기 위해서 후일을 위한 피나는 努力에 이몸을 바치자』고 맹세했다.

除隊를 하면 자기고향 仁川으로 데려가 親동생처럼 키워주겠다는 小隊長의 呼訴도 뿌리치고 나는 除隊證 한쥐 一路 서울을 향하여 希望의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에 들어왔을 때 내가 [illegible] 다니던 鎭正의 同門들은 高等學校2年에 모두 在學中이었다.

나는 元曉路江邊에 위치한 [illegible]工場, 鐵山驛근방의 鍊鐵工場, 厚生藥業場 등에서 기름을 묻히며 막일을 시작했다.

배고픈 설움도 있으려니와 배움의 渴望이 더욱 나를 괴롭혔다.

아버지께서 運搬배에 오르는 16세 아들의 손목을 잡으시고 『얘야, 武運不吉하여 退却하는 我軍이 失地회복을 못한다 하더라도 너만은 客地에서 죽을 먹을 망정 무슨 수를 써서라도 工夫는 해야 된다』고 애타게 당부하시던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날로 가슴에 파고 들어왔다. 나는 25세까지 國軍大領이나 警察署長이 되겠다는 目標를 세워 쪽지에 적으므로써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열번 이상씩 꺼내 보았다.

그리고 첫段階로 나이를 3살 [illegible] 幹部候補生 任命狀을 받았다. 一線小隊長으로서 故鄕에 쳐들어가 『아무개의 아들이 壯한 國軍의 將校가 되어 돌아왔노라』고 외치고 싶은 衝動과 感激에 사로잡혀 希望의 나날을 보낼수 있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았던 7월27일 休戰으로 말미암아 任官이 保留되었다.

할수 없이 仁川으로 내려가 美軍部隊에 就職을 하면서 夜間獨學의 設計를 하게 되었던바 『大學入學檢定考試』가 첫目標였다. 그 다음이 普通考試, 세번째가 高等考試司法科, 네번째가 高等高試行政科였다.

中學2年修了의 學歷으로 오로지 自身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國家最高의 公務員資格까지를 스스로 爭取해 보겠다는 엄청난 시련의 첫발을 디디게 된것이다.

④ 피와 땀과 눈물로 다듬은 나의 受驗生活

獨學이란 자체가 苦學의 苦學이거늘 더욱이 生計마저 스스로 打開해야 되는 二重三重苦에 시달렸다.

고아신세의 孤獨과 厭世感에 다져 들어 [illegible] 肉體的苦痛은 곧바로 나를 [illegible].

[illegible]으로 시작하여 [illegible]으로 들어갔다. 또 法律書에 나오는 條文을 몰라서 半年동안은 玉篇을 찾아가며 읽어갔다.

무척이나 장래가 不安하고 焦燥했다. 그러나 偉大한 結果는 平凡한데서만 이루어진다는 敎訓을 되새기면서 『忍苦師』의 信念을 키워갔다.

家庭敎師를 하면서 受驗生活은 계속됐다. 눈치밥이 어려워 눈 서글픈 마음속에서도 꽃같은 熱意와 執念을 불태웠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不退陣의 背水陣을 쳤다.

外出을 안하려고 눈썹은 계속 깎았다. 理髮所를 2년간 가지않고 수염과 머리를 길렀다.

피로우면 先輩合格者들의 受驗記를 소리내어 읽고, 외로우면 동산에 올라가 혼자 울기도 많이 했다.

册床앞 壁에는 사흘이 못가서 또 다른 左右銘이 씌고 册머리 册床위에는 출필 때마다 無數한 決意와 誓約의 낙서가 새겨졌다. 세월따라 넘겨지는 日記帳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참자」「견디자」라는 標語가 수천 마디나 적혀졌다. 그러나 受驗生活을 시작한지 3년되던 해, 그러니까 56년 12월경이다.

그때까지 大入檢定考試, 普通考試, [illegible]까지를 通過하고 高等考試司法科에 不合格하면서 完全히 몸은 쓰러졌다. 房바닥에 붉은 선지피를 쏟고 쓰러졌다. 여기서 좌절할것인가.

外出않으려 눈썹 계속깎고 苦鬪3년…結核으로 쓰러져

그러나 男兒가 한번 뜻을 세운후 그 뜻한 바를 失敗하는 경우보다는 이를 抛棄할 때에 人生은 더욱 悲慘한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鐵道病院 救護患者로서 無料로 肺病을 治療하는 注射藥과 服用藥을 1주일치씩 타다가 반은 服用하고 반은 팔아서 册을 사보면서 工夫를 持續했다.

앉지를 못해 天障에다 천사끈을 매달고 册을 걸어 맨 다음 누운채로 讀書를 强行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初志를 다지는 生命戰이었다.

病魔의 恐怖와 試鍊의 4년간을 견뎌 나간 1958년12월13일, 나의 나이 23세. 드디어 第10回 高等考試 司法科를 『征服』한 것이다.

아! 그 기쁨, 그 榮光이여!

모진 陣痛後에 分娩된 榮光의 기쁨이 이에 더할것인가!

나는 울었다. 천눈이 덮인 [illegible] 앞에 엎드려 소리치며 울었다. 신문 기자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리고 『피와 땀과 눈물과 決心의 所有者에게는 반드시 勝利의 太陽이 솟구쳐온다』고 그들은 나의 고시합격에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⑤ 祖國守護의 決意 [illegible] 모두 自願入隊했다

나는 高試合格 以後 軍法務官을 거칠 必要가 없었다. 그것은 어려서 8240部隊에 勤務한것이 兵役을 마친것으로 나라에서 認定해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곧바로 判·檢事에 登用될수가 있었지만 나는 空軍法務官을 自願했다. 將校로서 軍門에 봉직하고 싶어서였다.

그후 除隊를 하고 警察·檢察에 勤務하다가 1966年에 우리나라가 越南에 國軍을 派兵하게 되자 앉아서 犯法者들의 取調나 하는 檢察生活보다도 다시 한번 젊음이 가시기前에 軍門에 다시 들어가 自由守護의 役軍이 되고 싶어 이번에는 陸軍法務官에 自願入隊했다.

그리하여 軍籍과 除隊證을 3個나 가지고 지금도 每年 豫備軍으로서 4泊5日의 一線動員에 응해오고 있다.

비록 몸은 衰하고 年齡은 40을 훨씬 넘었지만 萬若 지금이라도 나라에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기꺼이 또 한번 銃을 잡고 戰線에 가고싶은 無限한 衝動을 느끼며 살아가고있다.

⑥ 나의 남은 人生을 오직 眞實되게 살고자 한다

或者는 權力을, 或者는 名譽를, 或者는 物質을, 或者는 肉身의 安逸과 快樂을 얻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들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듯이, 누리면 누릴수록 不足해 한다.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하고 마음은 항상 근심하고 食慾에 사로잡혀 『나만 잘 살자』는 極度의 利己와 排他는 世上을 어지럽게 만들뿐이다.

나라고 例外는 될수 없었다. [illegible] 나만의 名譽, 나만의 榮華, 나만의 [illegible]에 연연하며 虛構와 偽善에서 [illegible] 離脫하여 살아온것이 分明하다.

나는 官職에 있는 동안 『남을 眞心으로 意識해본 적이 없다』 『가난한 者와 불쌍한 사람에대한 眞正한 사랑을 가져본 적이 없다』 『傲慢과 放縱에 빠져서 致富와 榮達만을 渴望해왔다.』

돌이켜보면 정말로 부끄러운 生涯라 아니할수 없다.

배운 者가, 顯職에 앉은 者가 자기 배만 생각하고 불우한 이웃과 社會와 祖國과 그리고 나에게 삶의 根源을 주신 父母와 하나님에 대한 配慮와 敬畏도 없이 산다면 그것이 못 배운 者, 卑賤한 者, 沒知覺한 者와 다를것이 무엇인가!

만나는 사람마다 『令監은 그 어려운 공부를 해서 檢事까지 지냈으니 이제는 國會議員이 되어 金배지를 달아야 한다』는 俗된 사람들의 勸誘에 따라 나의 傲慢과 虛榮은 絶頂에 이르러 몇년전 官職을 나와 辯護士開業을 하면서 出馬를 꿈꾸던것을 契機로, 側近에 欺罔當하고 財物은 남은것 없이 蕩하여 그때야 비로소 「나의 나됨」에 대하여 돌이켜보는 一大轉換이 찾아온것이다.

나는 비로소 16세때 埠頭에서 내손을 잡고 祈禱하시던 아버지를 發見했다.

生命건 工夫 4년만에 所願成就

「主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讚頌하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想起되었다. 미친 사람 모양으로 敎會로 달려갔다. 회개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새로운 決意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걸어온 生의 方向을 完全히 轉換해 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겪어온 生活의 結果는 虛無로만 느껴진 名譽, 學問, 享樂, 이것들 모두가 一時 必要할지는 모르나 내가 가졌다고 하여 自負할 만한것이 못된다는것을 깨달은 이상 오히려 人生이란 現在든, 앞으로든 나의 生活에 어떠한 變革이 닥쳐 온다하더라도 「마음의 平和와 人格은 늘 變함이 없이 오직 靈魂의 바탕으로부터 더 發顯시킬수 있는 正潔하고도 動搖가 없는 能力을 갖추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굳은 決意를 가지고 神學大學에 入學을 하였다. 平凡한 辯護士生活을 하면서 4년간의 過程을 修了한다는것은 [illegible]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實行하지 않는 信念은 죽은것이나 같다』는 敎訓을 새기면서 용케도 이겨나갔다.

學校를 卒業하고 高等考試의 수준만큼은 어려운 講道師考試와 牧師考試를 거쳐 81년2월9일 드디어 하나님의 從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지난날의 放蕩者가 [illegible] 聖職에 오른 셈이니 오직 하나님의 恩寵과 讚美를 드릴뿐이다.

나의 生活은 이제 많이 變했다.

[illegible] 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防牌가 되심을 안다. 「남에게 져서 이기고, 밟혀서 일어서고, 죽어서 사신」 그리스도의 勝利의 生活이 나의 生活로 漸次 實現되어짐을 느끼며 산다.

이제 나에게 남은 課題가 있다면 좀더 眞理위에 굳건히 서서 一切의 虛僞와 醜惡을 벗어나 오로지 生產的인 믿음과 所望 가운데서 『내 祖國과 이 社會가 조금이라도 善하게 되도록 힘쓰고, 우리民族의 生活이 조금이라도 聖潔해질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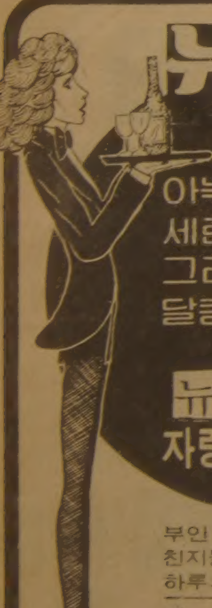
내自身이 謙卑하는 마음으로 行實을 깨끗이 닦고 天心과 믿음에 살면서 隣人間에 不幸한 사람들을 向하여 사랑과 眞理를 한껏 傳했으면 할뿐이다.

◇吳世元씨 作品「1981」

해외 걸작 만화

◇결혼상담소… "내 상담실력이 괜찮은 모양이야"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 · 가수 · 무용단 매일 공연함

상 소 :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주식회사 황용현 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TD)

101 DUNCAN MILL RD SUITE 404
DON MILLS, M3B 1Z3

전화 : (B)449-8644, 8645(H)286-1548

부동산 BROKER
모게지 BROKER

금주의 새 리스팅

드라이크리닝사업
주매상 $3000 맥도날드 햄버거 옆,
$100,000다운, 가격 $150,000

건물달린가게
(1)주매상 $6,500 3베드룸, 코너, 외국인 경영 50,000만 다운, 잔액 모게지 잡아줌. 가격 $220,000
(2)주매상 $4,000 3베드룸 코너 가격 $129,000

바라어티
(1)몬트리얼에 있는 주매상 $13,000 시간짧고 이윤좋은가게. $100,000다운 가격 $155,000
(2)주매상 $3,700 일요일 닫고 주중 시간도 짧음. 그로서리 없으며 NET월수입 $3,000 가격 $35,000
(3)바라어티와 픽업 드라이크리닝겸한 가게 월 순수익 $4,000 리스 월 $400 4년 · 5년 · 5년옵션.

꽃 과일가게
(1)주매상 $3,500~$4,000 월 $550 담배와 티켓 포함되지 않음. 일요일 닫고, 주중시간 짧음. 현 외국인 경영, 가격 $22,000

샵핑몰안에 있는 기프트 가게
년매상 [illegible] 170,000 [illegible] $80,000

이외 투자용 건물, 프라자및 GAS STATION 자리도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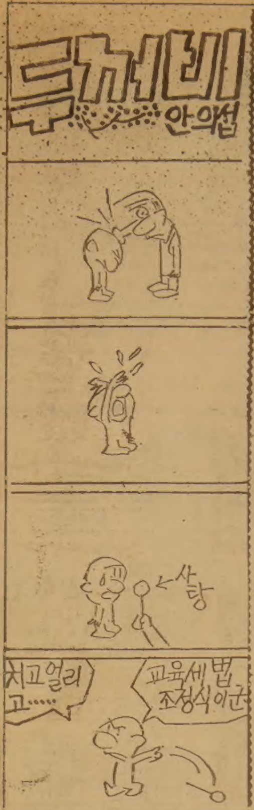
GM
NORTH YORK CHEVROLET OLDSMOBILE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 (B) 881-5000, (R) 496-0954



◇韓萬榮씨 작품「공간의 기원 79-3」(부분)

30代 주부作家가 創造해낸 開放時代의 女性像

최근 출판된 장편소설「誕野」는 타성의 부부 모럴에 묶인 잘 길들여진 습성을 가진 부부, 특히 여성들에게 초현대적 사고방식을 지닌 한 부부상을 제시, 잠재의식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점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주부로서의 여성 내면세계의 성장을 그려 보인 이 소설은 8년동안 美國생활을 하고 돌아온 한 30代 가정주부의 문단데뷔작이란 점에서도 특이하다. 비록 30代지만 파란만장의 인생역정을 겪는 誕野라는 주인공은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을수 있을것 같은 여인상이다.「誕野」의 스토리를 다이제스트해 소개해본다.

◆破婚의 心的外傷

小說「誕野」는 뉴욕행 팬암機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첫사랑에 실패, 암울한 생활로부터의 탈피를위해 재미동포인 뉴욕대학 역사학과 교수 崔赫과 목적있는 결혼을 하고 뒤따라 美國행 비행기에 오른 탄야는 1년2개월동안 헤어져 있었던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을 위해서 몇 시간째 꿈속 모든 흥분의 세포들을 일께우려고 초조하게 안간힘을 쓴다.

이는 마치 親喪을 당해 귀향하는 젊은이가 고향마을 어귀까지 왔을 때도 응당 느껴야할 슬픔을 느끼지 못한 때 당하는 초조와 불안, 그리고 낭패같은 것이었다.

이래서 誕野는 케네디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도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 다른 데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면―하는 엉뚱한 생각, 내가 갖고 싶었던것은 美國이란 나라였지, 남편이 아니었지 않느냐는등의 思念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하나 뉴욕의 남편 아파트에 安着한 그는 가정 주부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 좁아 비 아파트의 주위환경을 정리하고 취업을 해야 한다.

첫사랑 自殺후 스님에 男性느끼고 美國에의 동경으로 교환敎授 유혹

이런 어느날 고국의 한 新聞社 여기자인 대학동창 최라로부터 편지를 받고 첫 사랑의 남성 류성민씨에 대한 상념에 빠진다.

誕野가 Y大졸업반이던 해의 봄 어느날, 학교 뒷산 동나무 벤치에서 장발의 청년과 조우하는데 그가 바로 류성민. 哲學科 졸업반이고 스케치가 취미인 류성민은 國文科 졸업반인 誕野를 좋아했다.

아들 없는 집의 외딸인 誕野의 부모가 원하는 사윗감은 의과나 법과를 택한 청년이었고 또 아들 많은 집안의 막내아들 정도를 원했다.

하나 둘 사이는 점점 가까와지고 여름방학전에 약혼까지 했다.

誕野부모는 의아해, 哲學科 그림취미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성민의 아버지가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어머니가 전직 高校교사란점등 그리고 誕野의 조름에 승낙한 것이다.

그리고 여름방학중의 어느날 둘이는 仁川송도해수욕장에 수영하러 갔고 해수욕장에서 류성민이 간질병의발작으로 쓰러진다. 이에 류성민은 결국 자살해버렸고 誕野는 사이치 트라우마(心的外傷)를 입는다.

이 충격으로 정신이상증까지 생긴 그는 정신병치료를 받고 등산에 취미를 붙이다가 도봉산 한 절에서 만난 몇살 연하의 오효스님에게 새로운 男性을 느낀다.

오효스님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난뒤 무료함에 빠져 있던중 친구 최라의 소개로 교환교수 崔赫을 알게 되는데 그는 또 막연한 美國에 대한 동경으로 사랑하지않으면서도 崔赫을 유혹하고 그의 호텔방에 몸을 내던지기까지 해 결혼에 골인하고야 만다.

졸업식 하루 전날 그는 클라스 메이트들의 축하를 받으며 보란듯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誕野는 시종 미소를 짓는다.

◆마리화나族에 逢辱

이런 誕野인만큼 新婚생활을 그저 덤덤하게 보내고, 결혼 반년만에 남편을 먼저 미국으로 보내고 1년만에 남편을 뒤따라가 美國생활을 시작한다. 그는 남편의「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는 말대로 아파트를 정리하고 은행에 취직하는등 분주한 생활인이 되기 시작한다.

남편에게 별다른 애정을 실감하지 못하는 그로서는 언어장벽이 서서히 풀리면서 수하고 발랄한 美國 생활에 오히려 잘 맞았던지 대학동창이며 독신주의자인 화원, 그리고 그의 보이프렌드 미스터 노등 네사람이 파티를 벌이는등 그런대로 美國생활에 잘 적응되어 간다. 하나 어느날 차를 몰고 공항으로 남편을 마중가던중 마리화나族들에게 납치돼 3명의 치한으로부터 輪姦을 당하고는 3일만에 구조된다.

이 사건을 당한후 그는 歸巢本能을 느끼고 일단 혼자 귀국한다.

미국생활 2년만에 귀국한 그는 얼마동안의 조용한 수양생활을 위해서 절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절에서 대학졸업반때 男性을 느꼈던 오효스님을 만나게되고 오효스님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애절스런 사랑의 고백을 받고는 오효스님 방으로 찾아가 스스로 옷을 벗고 정열을 불태운다.

남편, 부처님, 윤리, 세간의 이목들을 모두 훨훨 털어버리고 알몸으로 스님의 커다란 승복자락에 싸여 몸에 밴 향내음을 맡으며 밤을 밝히면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존재를 느낀다.

이런 염문때문에 절에서 쫓겨나다시피해 산을 내려와 친정집에 돌아온 그는 남편으로부터『서둘러 와야겠소. 重病이오』라는 내용의 전보를 받고는 세

귀국하자 스님房 찾아가 스스로 옷을벗어 남편따라 渡美…2년간 분방한 생활즐기고

을 탈출할 적절한 계기를 마련해준 남편에 감사하며 美國행 비행기에 오른다.

남편은 스스로 위암으로 단정해 앓고 있었지만 진단결과 단순한 신경성의 도염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곧 건강을 되찾을 무렵 誕野에게 이상이 온다.

진단결과 임신. 그는 직감적으로 오효스님과의 정사를 생각해냈고 그렇게도 귀하고 또 거룩한 귀함이었던 만큼 당연한 귀결이거니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길수가 없었고 또 혹시 남편의 아이일지도 모르지 않느냐는 생각에 남편에게 애기를 꺼낸다.

이래서야 남편은 오히려 자신에게 아이 생산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면서『당신의 아이는 내 아이도 될수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로부터 음은 피곤 …자하다.

◆완전연소의 갈구

개복수술을 받고 와병하던 誕野는 원상먼지역에 새로 생긴 한 절에 다니기 시작한다.

이 사건으로 화면을 느껴 발길을 끊었고 그리고 얼마후 우연히 집에서 대학졸업반시절 고국에서 그의 정신병을 치료해준적이 있는 정신과의사 캐프탄을 만나게 된다. 誕野부부는 친구 화원을 불러 캐프탄과 넷이서 여름휴가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캐프탄의 농담식의 호의에 그는 다시 낙진 비틀거린다. 캐프탄과 誕野 두사람의 사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음인지 남편 崔赫은 한국으로 가자고 제안하고 마침내 두사람은 비행기에 오르지만 誕野는「캐프탄이 진요하게 그의 전부를 원한다면 혼자 미국에 머무를 수도 있을텐데」라는 생각을 한다.

귀국한 그들은 아파트생활을 하며 대학과 외국은행에 취직해 평범스런 생활을 누린다.

誕野는 다시 오효스님생각이 나 도봉산의 혜광사라는 절을 찾아 본다.

오효스님은 이미 자취를 감춘지 오래라는 소식을 듣고 내려온 다음날 신문기자 친구 최라를 만나 그가 인터뷰하려는 신인 작가 하지훈을 소개받는데 그는 바로 오효스님이었다.

이때서야 비로소 그는 오효스님이 河씨라는 姓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고는 그, 자신은 나사가 빠진 여자, 그러면서도 남처럼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남처럼 살아보려고 했던 어처구니 없는 여자임을 깨닫고 또 하지훈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음에 죄의식을 느낀다.

고 마음은, 어두운 한주일을 보내던 어느날 숨이 막히는 통증이 와 병원에 가본 결과 자궁외 임신.

모처럼의 갑작스런 대면. 탄야는 하지훈의 소설을 모두 구해 읽고 그를 찾고 있었다. 그 무렵의 어느날 퇴근길에 誕野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하지훈을 발견한다.

두 사람이 아늑한 곳을 찾아 밀린 얘기들을 나누는 동안 誕野는 상쾌한 통증을 느꼈고 운명이 다시 작동함을 느꼈다.

그는 다시 완전연소되고 싶은 심정을 느끼고 남편과의 형식적이고 판에 박힌듯한 일정한 생활을 할수록 마음속과 몸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언가 꿈틀거렸고 이런 꿈틀거림은 점점 더 커져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때 하지훈의 전화가 걸려오고 誕野는 엉겁결에 만날 약속을 한다.

◆남편의 끝없는 관대

하지훈을 두번까지 만났을 때는 그런대로 무사히 넘길 수 있었지만 항상 하지훈의 독마름을 감지할수있었던 誕野는 세번째로 만나 함께 도봉산을 올랐다가 비를 만나 옷이 젖는게 계기가 돼 여관에 들게되고 모처럼의 해후를 만끽한다.

◇鄭允吉씨 작품「소녀와 비둘기」

生産力없는 男便, 아내 姙娠에 오히려 寬大 완벽히 허물어진 그녀는 스스로 집을 나서

誕野는 젊은 하지훈과의 정사에서 이제 바로 존재의 적나라한 실체라고 생각했다. 山에서 山으로 돌아다닌 하지훈의 체질앞에 문약한 교수의 아내는 완벽하게 허물어진 셈이다.

그리고 이미 늦었음은 알린다. 병인진단결과 역시 임신이다.

이를 눈치챈 남편은 끝내 감정 표현없이 그저 좀 쉬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위로의 말만 해온다.

誕野는 그 자신이 정말 뻔뻔스런 여자이고 赫의 뻔뻔스런 길들임에 잘 훈련된 애완동물 같은 느낌의 환멸감을 갖는다.

얼마동안 仁川행을 포기하자 하지훈이 은행을 찾아오고 마침내 남편이 이를 목격하기도 한다.

誕野는 드디어 마음속으로 지훈에게 가기로 결심한 그는 저혼과 하룻밤을 보내고는 새롭게 돌아와 짐을 꾸린다.

그는 가져이 없고 나어도, 직업도, 가정도, 쉬신도 필요없는 태초에 그랬듯여 남자와 여자만 있는 곳으로 갈 생각뿐이다.

그리고 은행에 사표를 내고 집에 와 남편에게 작별을 선언하려던 날 저녁 남편은 주자지 꽌권을 들고 돌아와 보여준다.

어져 잔다.

이날 밤 늦게 귀가했지만 남편은『괴정했어』라는 정도뿐 오히려 10년에 한번쯤의 외도는 상관 없다는 말까지 해준다.

반야는 仁川에 있는 하지훈의 아파트를 찾아가 정열을 불태운다. 이후부터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훈의 15坪짜리 아파트를 찾아갔다.

마침내 눈치를 채고만 남편은 솔직이『여보, 돌아와요. 지금도 늦지 않아요』라고 했지만 그는『이제 내가 나를 찾은것 같아요』라는 대답을 한다.

「하지훈을」꽉 사랑한 어제 음독자살」남편은『소설가를 사랑하는것도 여사 각오로 안되겠어.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라는 말을 내뱉었다.

남편의 눈빛은 번뜩거리고 있었고 이미 포기한것 같았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며 방문을 꽝 닫아버린다.

誕野는 이제 자병을 고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해방의 소리 같았고 또 고마워 한다.

사랑은 所有하거나 完成하는 것 아님 깨달아

그는 입은 옷 그대로 핸드백만 들고 집을 나섰다. 밤거리를 걸으며 남편의 말을 곰곰 생각한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물리친 자신이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갑자기 지훈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만임을 깨닫게 된다. 사랑은 다지 통과하는 것이지 소유하거나 완성하는 것이 아님을 그는 비로소 깨닫는다.

그는 仁川으로 갈 생각을 버린다. 그렇다고 남편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더구나 없었다.

류성민이후의 그의 끝없는 편력이 그의 옷깃을 스치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만 남겼음을 깨닫는다.

그러고 그는 어디라고 정해진 방향도 없이 어둠속으로 발길을 옮긴다. <裵允矢기자>

프로필

8년간 美國生活 小說이름「誕野」는 자신의 佛名 친지들로부터 '自傳的 스토리아니냐' 질문받기도

「誕野」의 작가인 朴錦愛씨(37)는 '70~'78년사이 회사원인 남편을 따라 美國생활을 하며 대단히 개방된 夫婦觀, 남자를 압도하는 여성의 역할속에서 우리나라의 부부를 관조했고 귀국해 무서운 기세로 변하는 새로운 부부상·애정관을 느꼈다」고 했다.

그래서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産業社會·物質社會가 강요하는 생활의 지각속에서 많은 부부들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표류하는 것을 보고 작품을 쓰게 됐다고 했다.

제목「誕野」는 그 자신의 佛名에서 따온 것이고 주인공 역시 그 자신과 비슷한 世代인 30代후반의 여인으로 설정하고 있어선지 혹히 친지들로부터 자전적인 스토리가 아니냐는 농담식의 질문을 받는다며 구김살 없이 웃는다.

◇주부작가 朴錦愛씨

문학적인 분위기의 가정에서 남5녀중 막내딸로 자라 지난 65년 延大國文科를 졸업했지만 4해 1남1녀의 가정주부가 되고 또 분망한 외국생활까지 하느라고 창작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으나 새에 알뜰처럼 피는 회의는 막연한 불안으로 발전했고 더 늦기전에 써야한다는 충동에 1천2백장의 이 작품을 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그는『숨은 꽃밭이란의 생활은 안정을 보장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본질이다라는 내면 시선을 돌려서 되짚읍니까』다는 말을 덧붙인다.

그의 앞에 카메라가 다가가자『난 사진이 잘 안나와서…계발 이혼 아니 새로운 마하지 않게 잘 찍어 주세요』란다.

그의 말은 그의 감각적인 문장과 똑같이 톡톡 튀겨진다.

이번 작품은 첫데뷔작인만큼 3년에 걸친 구상과 준비끝에 6개월 걸려 끝낸 전작소설이지만 그동안 틈틈이 써놓은 글을 모아 한권의 단편을 펴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연말출간목표로 1천4백장의 새로운 장편을 쓰고 있다고 했다.

숨은 간첩 신고하여 애국하고 상금 타자
★간첩선 신고 최고 5천만원
★간첩신고 최고 3천만원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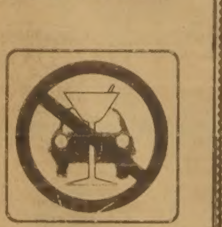
대낮 가정집 殺人강도
仁川 凶器로찌르고 50만원털어도주

【仁川=聯】12일낮12시40분께 仁川東區花水洞287 김현진씨(31) 집에 20대 강도가들어 건넌방에있던 김씨의 동생 성진씨(29)를 흉기로 찔러 그자리에서 숨지게한뒤 장롱을뒤져 현금50만원을갖고달아났다.

金씨집에 세들어사는 文씨의 딸文양(12)에 따르면 이날 상오9시께 빨래를하고있을때 20대 청년이 김씨를 찾아와 방에들어갔다는것.

경찰은 운수사업을 하고있는 김씨가 언제나 현금을 많이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1m75cm의키에 장발의 20대 범인을 수배했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處罰위주敎育 問題兒만든다
中大교수팀 青少年犯罪 유발동기 된다 밝혀

靑少年자녀들에 부모들의 그릇된 敎育태도는 이들의 공격충동만 격앙시켜 최근들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 非行이나 犯罪유발의 동기가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家父長的 가정환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엄하고 처벌위주의 양육방식은 청소년자녀들의 공격행동이나 공격충동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中央大醫大 閔秉根·李吉弘·金惠秀교수팀(神經精神科學교실)은 3일「父母의 養育방식이 高校生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社會精神醫學的연구」란 논문을 발표하고 ▲父母의 양육 방식이 청소년자녀의 공격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父母중엔 父親의 양육 방식이 모친보다 더 큰영향을 주며 ▲자녀중에선 딸들보다 아들이 이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부모들의 양육방식중 청소년공격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父母의 子女 신뢰도이며 이 신뢰도가 낮을수록 다시 말해 불신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공격성향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敎育方針이 專制的일수록, 아버지가 자녀를 구속할수록 또 어머니가 보수적일수록 子女의 공격성향이 증가되며 어머니가 처벌위주일 때는 딸의 공격성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또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 자녀들의 공격행동보다는 공격충동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자녀에 대한 불신감은 自殺性向이나 家出기도등의 요인인 內部指向的 撤退的 공격성향을 증대시키며 부친이 엄하고 처벌위주의 양육방식은 非行이나 犯罪요인인 外部指向的 직접적 공격행동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지난해 文敎部로부터 기초학문學術硏究費를 지원받아 서울K工高·E女高등 전국 9개 고등학교 학생 1천6백20명을 대상으로 면접및 설문지조사 방법으로 분석, 연구된 것이다.

이 논문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7개문항―훈육방침(민주적·전제적), 규율에 대한 태도(자유·구속), 태도(유순·엄격), 자녀신뢰도(신뢰·불신), 가정의 개방성(개방적·보수적), 자녀중심도(자녀중심·어른위주), 상벌태도(칭찬위주·처벌위주)―과 고교생들의 공격성향을 측정할수있는 韓國的 社會文化풍토를 반영한 본능주의적, 행동주의적, 신경생리적 要因등 20개문항을 선정, 이것을 설문지로 꾸며 응답하는 형식을 취해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高校生의 공격성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모의 양육방식은「자녀에 대한 신뢰도」인것으로 나타났다. (r=0·1403, r=는상관계수로 이것이 단순상관도를 나타내는 0·052를 넘으면 그 수치에 비례하여 상관도가 높음을 나타냄)

다음은 부친의 자녀중심도, 부친의 상벌태도, 부친의 훈육방식, 부친의 유연성, 모친의 규율에 대한 태도, 모친의 훈육방식, 모친의 개방성, 부친의 개방성, 모친의 유연성, 부친의 규율에 대한 태도, 모친의 자녀중심도, 모친의 상벌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공격유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친이 처벌위주일수록 자녀에게 외부지향적 직접적 공격행동이 증가하고 부친이 엄할수록 공격충동이 증가하며 부친이 자녀를 불신할수록 내부지향적 공격충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전제적일수록 ◆現代的 공격행동(사람대신 물건에 대해 화풀이하는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또 자녀를 불신할수록 고교생의 사물대치적 공격충동과 내부지향적 공격충동및 외부지향적 직접적 공격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결론은 문제청소년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더 적대시하고 있다거나 가출원인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등의 기존 조사결과와 일치되며 청소년 자녀들은 가정의 경우는 모친보다 부친이 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논문은 △부모의 양육방식이 여고생보다 남고생의 공격성에 더 큰 영향을 주며 △부모의 양육방식 자체보다는 공격충동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 공격충동이 행동화할때는 다른 주위의 변인이 더 많이 작용한다는 점도 밝혀냈다.

즉 부친의 양육방식은 특히 아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며 모친의 상벌태도가 특히 딸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부모들은 異性子女보다 同性子女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것으로 지적되었다.

또 양육방식이 공격충동과 공격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분석한결과 공격충동에는 r=0·188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공격행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子女에 대한 不信感이 攻擊性向 높여 異性보다 同性 子女에 더 關心가져야

마닐라서 南北赤代表만나자

11월國赤會議 「離散家族」논의 再開촉구

金溶植 韓赤總裁「8·12」10돌맞아 提議

대한적십자사 金溶植총재는 12일 『南北離散가족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수만있다면 본인이 언제 어떠한 장소에서든 北韓赤十字會위원장과 만날용의가 있다』고 北赤측에 제의했다.

金총재는 이날상오 1천만 南北離散가족 찾기운동을 위한 南北赤회담제의 10주년에 즈음한 성명을통해 『雙方적십자간의 合意에따라 설치돼있는 板門店회담연락사무소의 운영과 서울·平壤의 쌍방적십자사간의 직통전화운용등은 응당 정상으로 다시회복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본인의 기대에 北韓赤十字會측의 긍정적인 조치가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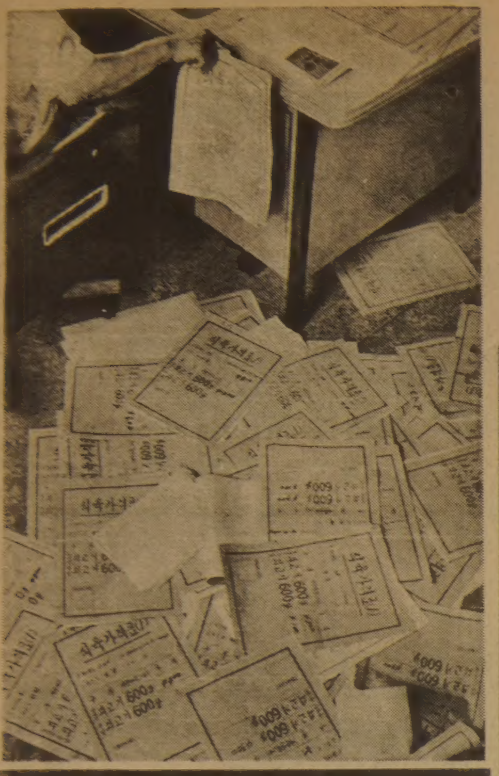
◇金溶植대한적십자사 총재가 1천만 이산가족찾기 南北赤十字會談 제의 10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고있다.

金총재는 『만약 北韓赤十字會측에서 호응만한다면 오는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열리는 赤十字국제회의때 南北赤十字대표사이에 호의적인 南北적십자 대화를가져 南北赤十字회담을 재개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총재는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는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모든나라들에게 적극적으로 門戶를개방,그들과의 교류에 나서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산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포들과 가까운 이웃처럼 자유로운 통신연락을할 수있게 되었으나 유독 南北韓간에만 한 강토안에서 父母子息간에 안부편지 한장 주고받지 못하는 실로 가슴아픈 현실이 지속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南北赤十字人들이 새로운 다짐으로 더 늦기전에 이산가족들의 인간적 고통을 해소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金총재는 『80년대의 새로운 역사의章을 열기 위해 대한민국정부는 南北韓당국 최고책임자회담과 상호방문을 北韓당국에 제의하고 南北간의 무조건 대화재개와 남북한간의 사회개방을 제창하고있다』고 상기시키고 『본인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赤十字 인도주의사업에 성의와 노력을 다할것이며,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北韓측이 회담장에 나오도록 인내와 성의를 다할것』이라고 다짐했다.

71년8월12일 대한적십자사의 제의로 시작된 南北赤十字회담은 한때 서울과平壤을 왕래하는 본회담으로까지 발전했으나 73년8월 北韓당국의일방적인南北대화중단선언으로 교착상태에빠져있다.



4,200원으로 고쳐지는 쇠고기값自由化

○精肉店에서 4천3백원으로 신고한 쇠고기값을 組合측에서 4천2백원으로 고쳐써주고있는 것이 쇠고기값 自由化의 實相이다。서울축산기업남세조합(서울永登浦區大方洞407의29·조합장崔漢哲)에서 공용하는 신고가격인 6백g당 4천2백원이하 (한우쇠고기)보다 1백원 높게 4천3백원으로 신고한 식육가격표 1백여장이 조합사무실바닥에 버려지고 여직원들에 의해 4천2백원으로 고쳐 써지고있다。쇠고기 표시가격제실시로 12일까지 신고마감된 쇠고기판매가격은 거의 대부분이 한우 쇠고기는 6백g당 4천2백원,수입쇠고기는 3천1백원으로 신고돼 쇠고기가격의 자유화에도 불구,판매가격이 획일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관련기사 5·11면

韓日 議員·政府人士 잇단접촉

外相-閣僚회담앞두고 見解差조정

兩國,성공적妥結에 큰기대

議員·次官團이어 外務省 亞洲局長도 來韓

일본 政務次官團과 韓日의원연맹 일본측의원단의 訪韓등 제5공화국출범이후 한국측의 분위기탐색과 外相회담의 사전접촉을위한 일본의회및 정부인사들의 來韓에이어 기우찌·아끼다네(木内昭胤) 일본외무성아시아국장이 13일 來韓하는등 韓日양국은 外相회담을 앞두고 활발한 외교접촉을벌이고있다。

韓日두나라는 특히 外相회담의 成敗여부가 오는9월10일 再開되는 韓日定期각료회담및 年末또는 내년초로예정된 韓日양국간의 첫 공식頂上회담과 直結되는것으로 주목하고 있어 外相회담이개최되는 오는 20일까지의 남은 1週間은 韓日외교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중대한국면을맞게 될것으로 보인다。

韓日양국의 외교소식통들은 12일 韓日양국정부가 이번外相회담의 성공적인妥結에 큰기대를 걸고있다고 밝히고 특히 11일 가스가·잇꼬(春日一幸) 韓日의원연맹 일본측회장代行을 비롯한 7명의 일본의원團과 가와다·쓰도무(五力) 내각관방副장관,아이찌·가즈오(愛知和男) 외무성차관등 스즈끼內閣의 政務次官團5명의 訪韓도 이번회담의 성공적 妥結을 위한 日의회및 행정부가 벌이는 사전외교적노력의 하나로 풀이했다。

이와함께 13일로예정된 기우찌·아끼다네(木内昭胤)日외무성아시아局長의訪韓역시 外相회담을 앞두고 한국외교실무당국자들과의 사전조정을 위한것으로 알려졌다。

기우찌局長은 訪韓즉시 11일 내한한 아이찌 外務省정무차관등과 서울에서 합류,駐韓일본대사관 당국자들과 함께 이번 회담의 議題및 일본측입장에 관해 협의하는 한편 한국정부의 해당실무자와 만나 일련의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日次官團 일행과 기우찌아시아局長의 訪韓은 시기면에서 이번 外相회담을 통해 한국측이 한반도및 東北亞安保의 連繫와 공동참여를 강조,일본측에 60억~1백억달러의 對韓공공차관을 요청했다는 東京發 외신보도와 관련된것으로 풀이되고있다。더구나 기우찌局長의 訪韓은 次官團과는 달리 예정에 없던 것으로,현재 한국측의 『借款요청』說을 놓고 엇갈려있는 일본내의 여론과 관련,이문제를 양국 외교당국자線에서 실무적으로 거론·조정하는데 일차적인 의미가 있는것으로 풀이되고있다。

12일 駐韓일본대사관의고위소식통은 기우찌局長의 訪韓에 대해 『駐韓일본대사관과의 政務協議 이외에 한국의 외교실무자와 만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혀 기우찌局長의 訪韓이 外相회담을앞둔 사실상의 사전접촉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아이찌日외무차관을 비롯한 日행정부 次官團일행은 訪韓당일인 11일하오 盧信永외무장관과 요담한데이어 12일에는 丁來赫국회의장,周永福국방장관등 정부·의회지도자들과 차례로만나 韓日외교관계의 재정립과 특히 經濟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것으로 알려졌다。

次官團일행은 이날낮 丁來赫국회의장을 예방,『한국의 제5차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달성을위해 일본은 가능한 한국에 협조해야할것』과 『이를위해 韓日두나라 행정부간에 긴밀한 대화를 나눠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무부는 『借款說』에 대해 일체의 공식논평을 보류하고 있는가운데 한고위소식통은 『지금까지 韓日양국간의 공식채널을통해 거론된 議題는 단한번에 劇的으로 해결되지도 않았으며 또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지는않는다』고 전제,이번 外相회담에서는 기존의 議題와는 다른議題가 토의대상이 될것이라고 밝힘으로써 安保經濟협력문제가 議題로 오를수 있다는 소지를 남겼다。

정부는 이번外相회담을앞두고 南悳祐총리주재로 申秉鉉부총리,盧信永외무,李承潤재무장관과 孔魯明외무부정무차관보,崔東鎭亞洲局長이 참석한가운데 대책회의를 거듭해왔으며 駐日한국대사관을통해 이번 外相회담의성공적 妥結을위한 외교지침과 훈령을 시달해 왔다。

"次元높은 韓·美協調기대"

全대통령, 워커美大使신임장받아

全斗煥 대통령은 12일상오 청와대에서 리처드·워커신임 駐韓美國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사진】

全대통령은 이날 워커대사의 신임장제정사에대한 답사에서 『워커대사의 한국민과의 오랜관계와 경험및 東北亞현실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은 양국간의 전통적우호관계를 강화하는데 크게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韓美修交1백주년을 맞아 양국민의상호이해와 친선을심화하고 양국의협조체제를 더욱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킬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워커대사는 이에앞서 신임장제정사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더없이 중요한 우방이자 동맹국』이라고 강조하고 『지금은 韓半島를포함한 東北亞지역의 평화유지를 위해 韓美양국이 합심노력하는것이 긴요하며 韓美관계에 있어서는 지난2월 韓美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약이 지침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자리에는 盧信永외무,駐韓美대사관공사가 배석했다。

在日동포銀行 곧設立

빠르면 내달에 資本金 2~3百億원규모

韓一銀行의 민영화에 이어 在日同胞실업인들이 주동하는 市中은행이 연내 새로 설립된다。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민간주도형 경제시책운용과 국내에서사업하는 在日同胞들의 사업자금조달을 원활히하기위한것으로 아메리카은행(BOA)과의 韓美합작은행,中東系은행과의合作은행설립추진등에 이어 금리단계에 있어 빠르면 9월중에라도 발족할수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일 재계에따르면 在日同胞실업가인 大阪신용조합이사장 李熙健씨와 국내에 들어와 사업을 하고있는 30~40명의 在日同胞실업인들의 출자로 설립될 이은행은 자본금2백~3백억원규모의 전국은행으로서 자본금규모는 현재시중은행(자본금7백50억원)보다는 적지만 예금 대출 외환등 시중은행업무를 모두 취급하게 된다。

점포는 우선 서울에만두며 점차 지방점포를 늘려나갈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민간은행 신규설립문제는 한때 全經聯을 중심으로 추진되기도했으나 정부는 신규설립대신 韓一銀行을 민영화했고 또한 금융기관의 國際化를위해 외국은행과의 합작은행설립을 권장했었는데 韓一銀行민영화가 매듭지어짐에따라 현재는 大宇그룹을 중심으로 三星,럭키,國際商事,韓進,大韓電線그룹이 한국측 파트너로 선정되어 BOA와 가칭「韓美銀行」설립을 추진중이며 다른한편에선 現代,東亞建設등 해외건설업체가 중심이되어 中東系銀行과의합작을추진중이다。

社會漫評

철없는 炭…

"美守勢시대 끝났다"

헤이그國務 레이건對蘇強硬策 천명

【워싱턴11日=曺洋鎬특파원】 헤이그 美국무장관은 『극동·서남아시아및 중동에서 미국이 守勢에 놓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11일 뉴올리언즈의 美변호사협회에서 행한 「미국외교의戰略적추구」라는 연설에서 선언했다。헤이그국무장관은 『소련이 군사력의 팽창으로 지역분쟁에 개입하여 그들의 影響을 증가하려는것이 오늘날 세계혼란의원천이되고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전략적추구방식은 첫째 소련침략에 장벽을 형성하며,둘째 미국힘의 증강으로 소련이자제하도록 자극을조성한것이라고강조했다。

헤이그장관은 레이건 행정부출범 7개월만에 미국의 중요외교정책방향을 밝힌 이연설에서 70년대의동맹과 이념(이데올로기)의 유형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전략적변화가 일어나 미국외교의 새접근방식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의 전략적변화로 ①中·蘇분쟁으로 공산진영이 동요되어 왕년의 이념뿐 아니라 소련위성국가들의 심각한 내부문제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의 호소가 퇴색되었고 ②제3세계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그들의 내부 안정이 급격한 정치·사회·경제변화로 위협받고 있으며 서방은 제3세계의 천연자원에 점차 더 의존하게되고있고 ③소련은 세계적군사력으로,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불안정을 이용하여 국제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④미국이 한때 지녔던 絶對우위를 점차 상실했으며 미국의 서구및 일본과의 동반자적 협력은 정치및 경제문제로 약화되고 있는 점을 열거했다。

헤이그는 이러한 세계의전략변화가 향후 10년의 서방안보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①美경제및 군사력의 증강 ②美동맹국과의 관계재강화 ③평화적변화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증선 ④自制와 상호호혜성을 통한 소련과의 관계정립이 미국 전략적 접근의 4기둥이 된다고강조했다。

◇헤이그美국무장관

헤이그장관은 이밖에도 중성자탄생산결정에 언급,이결정에 관한 백악관회의에서 자신은 생산자체에 관한것보다 이같은 조치의 시기에 우려를 갖고있었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헤이그장관은 이결정이 反核단체의 반대를 불러일으켜 결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중거리미사일 배치문제에 관한 서구의 지지를 얻으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해할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취한것으로알려졌다。

鳳凰大旗 고교野球

오늘의 대진 (13일)

▲2회전 ▲培文高—釜山商(10시) ▲天安北—江陵高(12시반) ▲群山商—大邱高(3시)

어제의 전적 (12일)

▲2회전

팀	1	2	3	4	5	6	7	8	9	계
城南高	0	0	0	0	0	0	0	0	0	0
淸州高	0	0	0	0	0	2	0	0	X	2
培明高	0	3	1	0	0	1	0	0	0	5
木浦商	1	0	0	0	0	0	0	0	1	2
光州一	0	1	0	1	0	0	0	0	0	2
信一高	0	0	0	0	0	2	0	4	X	6

한독양팔 협찬

地平線

호기심이 많은 어떤 외국곤충학자가 계산한데 따르면 집파리 한쌍이 아무런 번식장해를 안받을경우,일년후엔 양으로칠때 전세계를 1백만마일의 두께로 덮어 놓을만큼 엄청나게 늘어날수있다고 한다。물론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생긴다면 지구상의 인류는 파리에 갇려 멸망하게 된다。그러면 이러한 무제한번식을 막고있는것은 뭣일까。

▼온도,습도처럼 비생물적인 요소도있지만 그생물자체의번식능력,환경적응력,딴생물과의관계등 생물적인 제한이있기때문에 자연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파리만 하더라도 알,구더기,成虫일때 그때마다 딴생물의 공격을 받는다。원생동물 7종,거미류 26종,곤충류 29종,박테리아 12종,균류 9종등이 파리의 寄生天敵이고 거미류9종,곤충류 33종,새,파충류,양서류,포유동물따위 捕食天敵도 수없이있다。약1백종의 天敵한테 잡혀 먹히는것이 파리의 팔자로 알려져 있다。게다가 사람손의 살충제공격마저 받아 기를 못펴고 있는것이다。

▼한데 요즘농촌서는 무더위를 틈타 벼멸구가 점차극성을부리고있다。농약으로 방제하느라고 농민들이 수고하는 덕택으로 큰피해는 아직없으나 방심하면 집파리처럼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고 나락농사는 볏단농사로 변하게 되기쉽다。그뿐아니라 농약방제후엔 벼멸구는 다시번성하는 경우가 있다。천적인 거미류가 농약으로 전멸되기때문이다。벼멸구의 알은 농약의 영향을 안받고 농약피해가 없어진 다음에 유충이 되는 관계로 번성해지기 쉬운것이다。

▼이화명충의 경우도 봄에 산란한 알의 50~99%가 천적인 기생벌에 죽는다。1%만이 孵化해서 생장하는데 그 1%의 24%가 또 곤충,벼의양분부족,천적으로 다시죽고 거기서살아남은것만이 월동하게되지만 그나마 대부분 천적에 거듭잡혀먹히거나 농약으로 또죽게된다。봄에 벼포기 1천개에 따라붙는 이화명충은 40마리밖에 안된다。그런데 이것을 없애기위해 농약을 마구쓰고있으니 오히려 그바람에 천적마저죽이게되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다。

▼벼멸구를 농약으로 구제안할수는 없으나 천적연구를 이루더라도 본격적으로 해야 10년후,백년후에도 벼농사를 지을수 있지않을까 생각해볼 문제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11
은: 온스당 US9.3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새 예루살렘
신앙특별집회

강사: 안 이 숙 선생
「죽으면 죽으리라」및 「죽으면 살리라」의 저자

일시: 9월 10일(목) 오후 7시30분
11일(금) 〃 〃
12일(토) 〃 〃
13일(일) 오후 2시

장소: 새 예루살렘교회
5 GRENOBLE DR., DON MILLS
담임목회자 김 승 환

※뻐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정거장에서 내려 「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뻐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블럭 전에 있는 푸레밍돈·팍 샵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Korean New Jerusalem Pentecostal Church
5 GRENOBLE DRIVE, DON MILLS, ONTARIO M3C 1C3 TEL: 429-1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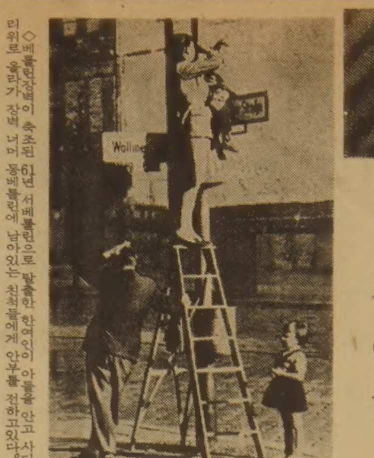
오늘「베를린障壁」20年

삼엄한 警備속 自由찾아
4천여명 脫走

【西베를린12日=南灯鎬특파원】 東西분단의 비극적 상징인 베를린장벽이 13일로 축조20주년을 맞았다。東西베를린시민들의 자유왕래를 차단한 이 비극의 날을기념해 兩獨에서는 요란한 기념행사가 벌어진다。

자유의도시 베를린을 차단한 이장벽은 동서베를린의 상징인 브란덴베르크門을 기점으로 1백65·7km에 걸쳐 뻗어있다。콘크리트벽으로 된 장벽이 중 1백6km가 시멘트창살、철조망 55km가 쇠철망 5km로 이어져있다。또 1백23km에 달하는 경보차단선이 처져있으며 2백60개의 경비초소가있다。

1961년 8월13일 베를린장벽이 축조된이래 장벽을 뛰어넘다가 동독경비원의 총에맞아죽은 탈주자는 1백6명에 달하며 1백9명이 총상을 입었다。5천여명의 동독사람들은 장벽을넘으려다 체포되었다。



◇베를린장벽이 축조된 61년 서베를린으로 탈출한 한여인이 아들을 안고 사다리위로 올라가 장벽 너머 동베를린에 남아있는 친척들에게 안부를 전하고있다。

◇축조 20년을 맞은 베를린 장벽 오른쪽으로 보이는 동베를린 쪽에는 지뢰대、철조망으로 2중3중의 탈주방지 장치가 되어있다。

그러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4천7백명이 목숨을 건 탈주에 성공했다。80년에도 93명이 장벽을 넘어 자유를 찾았다。

東西獨국경1천3백80km에 비해 베를린장벽은 1백65·7km에 불과하지만 장벽은 높이3·5m의 시멘트벽과 철조망외에 30m넓이의 지뢰지대가 東베를린쪽에 설치돼있다。그뒤로 제2의 지뢰지대와철조망、고압전류가 흐르는 제3의 철조망을 東獨은쳐놓고 그중간에 감시초소를세워 3중4중의 저지선을펴 南北韓을 가로지르는 휴전선과 더불어 지상에서 가장 넘기어려운 경계선이 되고있다。

지뢰지대 후방의 제2차 철조망에는 이동물질이 포착되기만하면 자동으로 한번에 40발이상의 총알이 튀어나가는 자동발사소총이 약4백m간격으로 설치돼있다。3백m간격으로 설치된 감시초소에는 한번 발사에 40발、계속발사에 1분여발이 튀어나가는 카라쉬니코브 소총으로 무장한 감시초병들이 24시간 순찰하고있다。

베를린장벽은 60년과 61년에 걸쳐 매년 20여만명에 달하는 동독인들이 동베를린을 통해 서베를린으로 탈주하자 당황한 동독정권이 급조한것이다。61년 8월13일새벽 호네커 공산당수의 지휘아래 미리 대기시켰던 수천명의 공장노동자와 위대원및 군인을 동원해 전격적으로 장벽을 쌓았다。

동독측은 이장벽을 「제국주의를 방어하는 장벽」「국가주권의 수호장벽」「공화국주권의 보장」등 구호를 내세워 합리화하려했다。

이장벽은 지난20년간 서베를린시민들의 낙서장으로 변모해 「싫은 죽었노라」「1백m전방에 사회주의 낙원이 존재하노라」「경고—동독의 高走훈련장」등의 낙서가 수없이 쓰여있다。

韓日관계 새轉換期

光復36년에 보는 「逆調」의 實相 <7>

『對韓원조 대폭증액、한국60억달러 거액원조요청』 지난달 일본신문들에는 아직 양국정부간에 공식화조차 되지않은 중요한 外交절충이 이같은 제목으로 공개、大書特筆되었다。

이른바 安保차원의 새로운 韓·日경제협력강화라는 최근 논의는 全斗煥대통령과 스즈끼일본수상의 訪美에 따른 韓·美、美·日의 三角외교관계의 産物。軍事협력대신 최소한의 對美방위분담을 위한 경제협력관계를 원조라고 표현하는 日紙태도도 못마땅하지만 더우기 일본정부가 앞으로 8、9월의 外相회담과 각료회담、그후의 頂上회담등을 통해 절충될 외교사안을 사전누설한것은 환기된 국내여론을 핑계로 최소한의 협력조차 발뺌하려는 속셈의 상투적수법으로 인식되고있다。

해방36년、65년 국교정상화이래 17년간의 韓·日경제협력관계 역시 이같은 일본정부나 언론의 태도에서 단적으로 엿보이는 것처럼 「경제동물」속성그대로의 얄팍한 商魂과 잘못된 그들의 對韓인식아래 시종해왔다。

해방직후야 말할것도없지만 양국국교정상화만해도 일본이 잔혹한 식민통치의 前過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善隣의 관계로 對韓觀을 바꾸어 자유진영의 연대의식을 통감해서 이루어진것이 아니었다。

한창 고도성장의 가도에있던 당시 일본경제는 성장출구를 한국에서 찾으려했고 사양산업이나 공해산업을원조나 經協의 이름으로 한국에 넘겨주어 선진일본과 후진한국의 수직적인 分業관계를 설정、일본경제의 뒷마당으로 삼으려했던것이 오히려 本心이었다。

물론 한국도 일본에대한 舊怨을 말끔히 씻은것도 아니었고 그보다는오히려 공업화를 위해 그들의 자본과기술을 아쉬워했던게 사실이었다。

經濟

技術·資本등의 예속화 脫皮
安保차원의 실질 經協 시급
아시아의 對共보루認識…日은 장사속버려야

이같이 출발한 韓·日經協은 결국 양국경제관계의 歪曲 구조심화와 한국에대한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차관、기술제공、투자、무역—모든면에서 일본의주자간原資材를 비롯한 시장점령、임금착취、경제구조예속화의 의도가 짙게 나타났다。

국교가 정상화된 지난65년부터 금년6월말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차관(확정기준)은 公共차관13억3천8백만달러、商業차관23억8천5백만달러등 모두 37억2천3백만달러。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각국에서 조달해온 차관액의고작15%정도다。

그러나 일본은 경쟁상대국으로의식때문인지 최근한국을 中進國으로간주、정부베이스의 經協을 줄인다는입장이고 79년하반기부터는 민간商業차관마저 줄고있다。

그동안의 對韓투자는 모두 6백11건에 6억4천1백만달러。 건수에 있어서는전체외국인투자의74·3%、투자금액에있어서는52·5%를차지했다。

그러나 일본의對韓투자는 한결같이 규모가 영세하고 低賃金을노린 노동집약적산업 특히 단순部品조립이나 加工분야가 대부분이다。

업종도 섬유·의류、電子部品、관광호텔등이 많고 우리나라 외국인투자평균규모가 1백25만달러정도인데 일본은 평균25만달러남짓으로 대개가 보따리장사다。

특히 일본이 차관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한경우는 철저하게 시설、중간原資材、補修자재및기술을그들에게의존할수박에없도록예속화시키려고했다。

지금도 기계류와 化學·金屬제품을 비롯한 中間財가 전체對日수입의82·7%(78년통계)나 차지하고있고 기계류는 무려 51%에 이른다。

예컨대 특수鋼코일은 1백%、合成고무、纖維類、철강코일은 80%이상등으로 대부분의 주요機資材수입이 對日의존적이다。

植民賠償을 받은 동남아각국이 일본경제에 극히 의존적이 되어버렸다는 뻬아픈 先例의 경험을 우리의 정부나기업이되새기지못했던탓도있다。

한국의 일방적인 對日무역적자누적도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금년들어 지난6월말까지의 對日무역적자가 이미 15억3천4백만달러。금년말까지는 3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작년 역시 不況에도 불구、28억1천8백만달러의 무역적자를기록했고 78년、79년은30억달러를각각넘었었다。

국교정상화직후인 지난66년부터 작년말까지 15년동안 누적된 무역적자규모는 자그마치 1백90억3천9백만달러。그동안 우리나라 전체무역적자의70·3%가 對日入超때문으로 나타나고있다。미국이나 유럽등지에서 힘겹게 벌어들인 달러를 일본 한입에 거의 몽땅 털어넣고있다。

그럼 우리가 바랐던 일본산업의 고도技術傳授는 어떠했는가。작년까지의 외국 기술도입 총 1천7백26건중 58·7%인 1천14건이 일본에서 도입되었고 로열티지급은 총4억5천8백만달러중 36·7%인 1억6천8백만달러가 일본에 지급되었다。

기술도입인가건수가 많고 로열티지급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한마디로 신통한 기술도입은 거의 없었다는 셈이된다。

브랜드나 外形기술은 주었지만 실질적인 기술傳授는 기피했고 그나마 변변찮은 기술공여에도 부품이나 원자재구매를 조건으로 붙이든지 판매지역을 제한하는등 까다로왔다。

즉 일본에는 못판다、일본의 해외主市場진출도안된다、제3국수출에는 일본과 사전협의를 해야한다는등 조건을 달아 결국 국내시장에만 묶어두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노출했다。

투자진출의 政情不安등에대응하는 눈앞의 장사속根性은 철저한편。10·26사태가 있었던 지난79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취소액은 4천4백만달러였는데 이중 일본기업이 88%의 비율이었고 이의대부분이 10·26사태이후에 집중되었다는것은 그들의 短期根性과 얄은 장사속을 드러낸 한 斷面이다。

국제간의 경제去來란 물론 냉혹하고 非情하다。그러나 일본은 과거의 식민통치나 지리적인 이웃관계는 말할것도없지만 우리가 6·25로 戰禍에 휘말려 그들이 치러야할 방위까지 드맡는 희생을 치르는동안 그들은 앉아서 特需를 누리고 오늘의 경제대국의 기틀을 쌓았다。

그렇다고 얄팍한 일본의 지금까지 經協자세를感情的으로 비난하자는것은 아니다。日帝교육을 받은 우리의 旣成기업세대에도 지리조건、언어장벽등이 이유로 對日편향과 對日에속을 自招한점이 없지않기때문이다。

앞으로 전개될 또하나의 새로운 韓·日관계과제는 그들의 표현대로 「安保經協」이다。

東北亞지역안보에 공동대처한다는 방위역할分擔원칙에 따라 스즈끼수상 訪美이후 旣定化된것으로알려진 軍事협력대신의 소위 對韓특별經協에 일본이 과연 얼마만큼 성의를 보일것인가이다。매년 GNP의6%、예산의 30%이상이란 엄청난부담을 우리는國防에 쏟아가며 외국이 자유세계의 一線을 지켜왔다。

향후5년간、매년12억달러의 低利차관요청에도 일본정부가 그렇게 기절을 하는절보면 이역시 순조롭지만은 않을듯하다。

【經濟部 金曙雄기자】

◇韓日經協 현황 (단위 백만불)

▲차관도입 (확정)

구 분		공 공	상 업	합 계
일본	'65~'80	1,255(10·6%)	2,385(20·4%)	3,640(15·5%)
	'81·1~6	83(4·6%)	—	83(3·9%)
	계	1,338(9·9%)	2,385(19·8%)	3,723(14·5%)
전세계	'65~'80	11,784	11,719	20,503
	'81·1~6	1,799	318	2,117
	계	13,583	12,037	25,620

▲투자인가 ('81·6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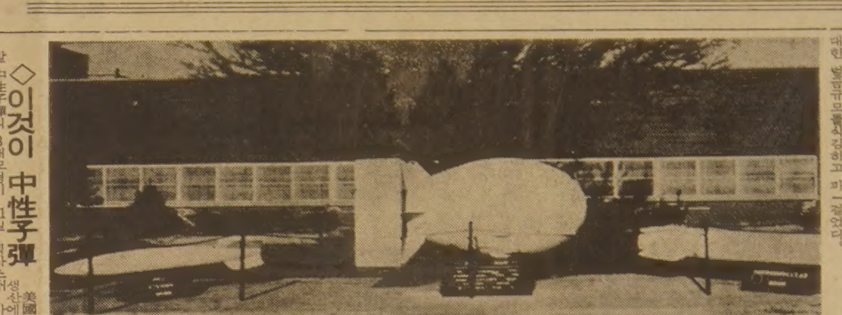
구 분	건 수	인가금액
일 본	611(74·3%)	641(52·5%)
전 세 계	822	1,222

▲기술도입 ('80·12말)

구 분	인가건수	대가지불
일 본	1,014(58·7)	168(36·7)
전 세 계	1,726	458

▲무역현황

구 분		수 출	수 입	수 지
일본	1975	1,293 (25·8)	2,434 (36·4)	△1,147
	1976	1,802 (27·1)	3,099 (36·9)	△1,297
	1977	2,148 (21·4)	3,927 (37·3)	△1,779
	1978	2,627 (20·7)	5,981 (39·9)	△3,354
	1979	3,353 (22·3)	6,657 (32·7)	△3,304
	1980	3,039 (17·4)	5,857 (26·3)	△2,818
	66~80	18,172(22·6)	37,211(34·6)	△19,039 70·3
	81·1~6	1,585 (15·7)	3,119 (24·4)	△1,534
전세계	1978	12,711	14,972	△2,261
	1979	15,055	20,339	△5,284
	1980	17,505	22,292	△4,787
	66~80	80,372	107,452	△27,080
	81·1~6	10,116	12,772	△2,656



◇이것이 中性子彈 美國이 생산에 착수곧 배치할 中性子彈의 3개모형이 11일 텍사스州 아마릴로 근처에있는 판텍스핵무기 조립공장에서 전시되었다。【아마릴로(텍사스州)11일AP=聯合】

美法院 레이건에制動
관제사罷業금지·復歸令요구거부

【워싱턴11日UPI=聯合】 미연방법원은 11일 정부로부터 해고당한 파업항공관제사들에 대한 벌금규모를 삭감하고 파업금지령을 내려달라는 정부요청을 거부함으로써 레이건정부의 강경일변도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연방법원의 해럴드·그린판사는 이날 직업항공관제사기구(PATCO)노조원들이 이미 해고를 당했기때문에 법원은 이들에게 업무복귀를 촉구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고 밝히고 또한 해고당한 파업관제사들에게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하면서 PATCO와 로버트·폴리 PATCO회장에 대한 벌금액을 정부요청수준인 4백75만달러로 부터 75만달러로 삭감했다。

油價34弗 고정
OPEC 회담서

【런던11日ANSA=聯合】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오는19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OPEC 특별각료회의에서 油價를 배럴당34달러로 고정시킬것으로 보인다고 런던석유업계 소식통들이 11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원유의 공급과잉상태에 직면해있는 OPEC회원국들이 최대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의를 원칙적으로 수락、현재 배럴당 36달러선인 유가를 34달러로 고정시킨다는데 타협했다고 말했다。

이번 OPEC각료회의는 産油國들이 세계적인 수요감소、생산과잉에 직면、새로운 원유정책수립이 요청되고 있는가운데 개최되는 것으로서 회의결과가 주목된다。

메아리
節約型 767

현대의 민간항공은 정보시대를 날고 있다。승객 3백85~5백명을 한꺼번에 실어 나를수있는 보잉747 점보형제트여객기는 1969년 첫 시험비행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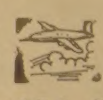
70년초 이 대형여객기가 정식으로 취항했을때 온세계가 감탄을 터뜨렸다。그렇지만 취항하고 몇년안가 오일쇼크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항공료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 각국의 민간항공사는 악전고투의 경영을 했다。

한편 비행기의 스피드혁명은 제트엔진의 개발로 시작되었다。19[illegible] 프랑스의 [illegible] 뢰대위등이 제트추진엔진을 처음 생각해냈다。시험비행은 1937년에 이뤄졌고 그10년뒤엔 항공사에 마하시대가 펼쳐졌다。미공군의 찰즈·E·예거대위가 조종한 벨XS-1 로키트기인 글라모러스 글레니스호가 마하 1·015(시속 1천78km)를 기록한것이다。

마하시대의 민간항공 선두비행은 영불합작의 콩코드가 맡았다。수송능력 1백28명의 이여객기는 최고속도가 마하 2·2(시속2천3백34km)에 달한다。

인자이 하늘을 날은 불과 80여 [illegible] 계의 항공은 비행기로 뒤덮인 [illegible] 運을 능가할 정도다。지금 관제[illegible] 항공의 절반이 묶여 진통을 겪고 있는 미[illegible]우를 실례로 보자。

오헤어 필드의 시카고국[illegible] 비행장으로 [illegible] 1977[illegible] 가장 [illegible] 착륙수 [illegible] 천만명이 훨씬넘었다。[illegible] 착륙한 셈이다。관제사 파업이 미친 미국인들의 고통을 짐작케한다。



정보시대를 연 미국의 항공산업은 에너지 절약형에 눈을 돌렸다。747점보여객기 이후 보잉사는 처음으로 새로운 여객기 시리즈 보잉767을 선보였다。

이 항공기는 기름을 크게 절약하여 승객 1인의 항공료를 3분의1 이상 줄일수 있다고 한다。수송능력 2백11명으로 벌써 세계 17개 항공사에서 1백73대의 주문을 받았다。

우리 항공산업도 이제 기틀을 잡아 雄飛의 날개를 펴려고 한다。우수한 두뇌들이 「자원절약」을 머리에 두고 「미래의 항공산업」을 설계해야 할것이다。

蘇、발트海에 최대艦隊집결
대규모 上陸훈련

【워싱턴·폴렌츠부르크(西獨)11日UPI=聯合】 소련은 서방진영에 대한 힘의 과시를 목적으로 발트해에 62척으로 이루어진 사상최대규모의 함대를 집결시켜 대대적인 상륙훈련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폴란드접경의 자국군사작전지구인 白러시아에서 코멘드·앤드·스태프(지휘참모)급 군사훈련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미국방성소식통들이 11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소련이 37개사단을 배치해놓고있는 소련의 서부군사작전지구의 하나인 폴란드동부의 白러시아에서 대규모군사훈련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이 군사훈련준비는 발트해에서의 사상최대규모의 해군상륙훈련과 연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에 中性子彈파문 확산
벨기에선 이틀째 反核시위

【런던11日AP=聯合】 레이건미 대통령의 중성자탄생산결정이후 헤이그에서는 연2일째 反核시위가 벌어졌으며 영국과 이탈리아는 서로중성자탄대책에 관해 정부간협의를했고 스페인은 중성자탄의 배치가능성을 배제하는등 착잡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영국과 이탈리아정부는 미국의 중성자탄생산결정이 발표된후 전화회담을 갖고 이문제를 협의했다고 11일 영국외무성의 한대변인이 말했다。

금년말까지 나토에 가입할 계획인 스페인은 현재 국내에 핵무기를 갖고있지않으며 앞으로도 이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발표、중성자탄배치를 허용하지않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東獨·波軍합동훈련
波국경부근서 大砲·空軍機등動員

【東베를린11日AFP=聯合】 동독과 폴란드는 바르샤바조약에 의한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폴란드국경부근에서 합동모의공격훈련을 실시하고있다고 동독의 관영ADN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통신은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합동군사훈련에서 양국군은 대포와 공군기들을 동원해 [illegible] 능력을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한 고위 폴란드 장교의 말을 인용、동독과 폴란드는 이번 양국합동군사훈련을 오래전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왔다고 밝히고 미국이 중성자탄을 생산、사회주의의 발전을 저지하려는 제국주의적 야심을 드러낸 현시점에서 볼때 이번훈련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波의 부두勞動者들 수출食品 선적거부

【바르샤바12日AFP=聯合】 발트해연안의 폴란드부두 노동자들은 폴란드가 식량부족사태에 직면해있다는것을 이유로 11일 대외수출용식료품 선적을 거부했다。

폴란드관영PAP통신은 이날 그다니스크와 그디니아항의 부두노동자들이 자유노조지부의 지시에따라 식료품선적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波共黨 긴급회의
카니아 거리平和회복촉구

【바르샤바11日UPI=聯合】 폴란드공산당중앙위는 11일 긴급회의를 열고 악화일로에있는 이나라 경제·사회사태를 논의했으며 공산당제1서기 카니아는 이자리에서 폴란드가 안정을 회복하기위해 개혁을 단행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니아는 그다니스크 자유노조전국조정위회의가 이틀째로 접어든가운데 이날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중앙위긴급회의 개막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폴란드가 거리의 평화를 회복하기위한 대책을 강구하지않을 경우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蘇 쿠바海軍力강화
카리브海 봉쇄가능

【비에케스島(푸에르토리코)11日AP=聯合】 소련은 쿠바해군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무기원조를 계속한결과 종래「방어적」인 성격을 띠었던 쿠바해군함대가 공격능력을 갖추고 카리브해역에서 美민간선박및 기타선박의 해상교통을 봉쇄할수있는 강력한 함대로 발전하고 있다고 美카리브海지구 합동기동부대사령관 로버트·매킨지해군소장이 경고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오늘의 역사 <13일>

- ▲美軍, 마닐라 점령 (1898)
- ▲蘇軍, 청진에 상륙 (1946)
- ▲근로기준법 국회통과 (1952)
- ▲李대통령, 휴전협정 즉시 폐기담화 (1955)
- ▲日·北傀북송협정 조인 (1959)
- ▲尹潽善, 대통령에 취임 (1960)
- ▲東獨, 東·西베를린 장벽 을설치 (1961)
- ▲국회, 국군파월안 통과 (1965)

世界의 社說

새試鍊 자초한 레이건

워싱턴·포스트 (美·11日字)

레이건미국 대통령은 중성자탄에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을 새로운 시련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그는 이로써 지난20년간 대서양동맹체내의 분쟁의 무대가돼온 위험스러운 감정적갈등의 숲으로 들어간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한 소련은 말할것도없고 팽창세에 오른 유럽의 좌익세력에게도 강력한 선전무기를 선사함으로써 퍼싱Ⅱ미사일과 지상배치 크루즈미사일의 유럽배치기회를 감퇴시켰다。

중성자탄은 통상적인 핵무기가 아니다。그것은 소련의 침공시 유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히 고안된 전투지역 전술무기의 하나이다。많은 유럽인들은 바로 이점에 당황하고있는 것이다。요컨대 이 무기는 상대적으로 작고 통제가능하기때문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측에 신뢰할수있는 핵저지력을 제공할수있으며 실제 사용된다하더라도 전면전을 유발하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성자탄을 둘러싼 특수하고도 오랜 감정적과거로 미루어볼때 이문제가 전략적 바탕위에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소련의 SS20미사일배치를 견제하기위해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동맹측의막중한 노력은 언덕을 거슬러 올라가야하는 어려운 싸움이다。

레이건대통령이 좀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그는 이언덕을 올라가고난 다음에 중성자탄에 관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그러나 그는 이번에 오히려 이 언덕의 경사를 더 급격하게 만들고 말았다。

그는 나토를 치명적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다。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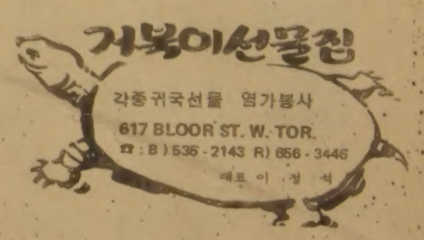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 : 30AM~6 : 00PM
●월~토 11AM~7PM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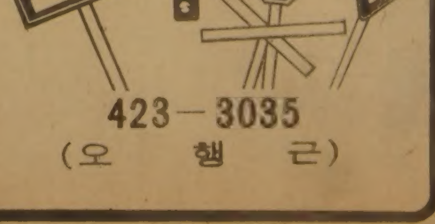
정통적 중국음식. 맹킷. 카드에 담아서 원하는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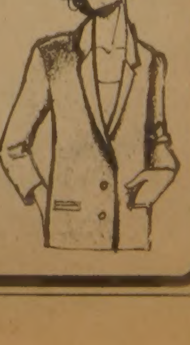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368-4215. 368-0114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 Eglinton / Keele / Bathurst / Bayview / Bloor / CHINA HOUSE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피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11A. M.~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운 전 교 습

423-3035
(오 행 근)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블론디 딘·영 作

"사장님, 마음의 반은 회사 그만둘 생각입니다…" "허, 이사람 또 허풍이야。"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요" "또 허풍이야"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아세안에 한국觀光붐 造成

使節團 파견…誘致확대 본격화

星港·印尼·馬聯에 쇼핑觀光
比·泰國등엔 産業시찰등

아세안 5개국의 잠재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위해 동남아에 관광사절단이 파견되는등 관광객 유치확대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관광공사는 12일 全斗煥 대통령의 아세안5개국 순방성과에따른 정치·경제적 상호교류의 확대전망에따라 이지역 지도층및 부유층 인사의 대한(對韓) 관심도가 높아진것을 대한관광으로 흡수시키기 위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등 3개국에 대해서는▲가을과 겨울의 계절관광▲조선소 제철소 제7肥등지의 산업시찰 ▲화교층유치및 ▲면세점운영확대를 통한 쇼핑관광을 적극 권장하며 국민의 출국을 억제하고있는 태국과 필리핀2개국에 대해서는 상호방문을 전제로 한▲안보연수 ▲새마을연수▲산업시찰여행등을 유도할 계획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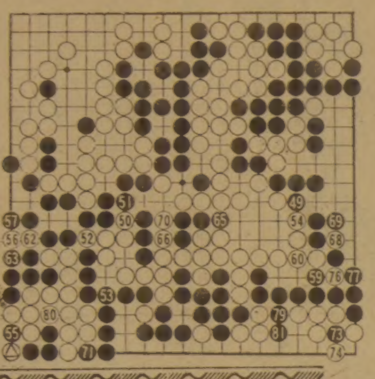
관광공사는 아세안지역의 부유층을 유치하기위한 특별대책으로 영향력있는인사들에 대해 초청사업을 벌이고 유력인사의 선전대행소장 임명등으로 부유층유치활동을 강화키로하는한편 교민회및 공관원의 관광요원화를 위해 공관 관광담당직원의 활동강화를 촉구, 현지상사 주재원및 교민들의 관광홍보요원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키로했다。

이밖에 아세안지역 관광객의 유치를위한 방안의 하나로 오는16일 파견되는 동남아 관광사절단은 현지의유력여행업계와 접촉, 한국이 주요관광객송출시장으로서 잠재력이 있다는것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河大敦 국제관광공사 사장을 단장으로하는 이사절단은 오는 9월5일까지 태국,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아세안5개국과 홍콩및臺灣을방문, 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각종 유치활동도 펴게된다。 이사절단은 아세안 국가의 영향력있는 여행업계, 주요언론계인사, 관광관계정부기관, 관광유관기관의 유력인사등 약1천5백명을 대상으로 한국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게되며 참가하는 국내업체별로 하여금 극동패키지, 투어에 한국이 포함되도록판촉상담도 적극 벌이게 할 계획이다。 이사절단에는 관광공사 2명, 교통부1명등 3명의 관계자와 여행업계7명, 호텔업계 6명및 무용단8명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된다。

제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4局 第13譜 249~281 (각5시간 덤5집반)

白(名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曺名人의 「1分바둑」

오늘 이국면이야말로 극적인 역전의 클라이맥스。 좌하귀의 늘어진패가 黑에게는 화를 자초케하고 白에게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illegible]

[illegible] 우선 黑49。도전자도 국후에 즉시 이수를 뼈저리게 뉘우쳤지만 49는 54 [illegible] 白68의 패감이 [illegible]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⑲

再婚

동창소개로안 江原伊川의 新式여성
東京서 교제하다 함께歸國…22년華燭

東京유학시절 친구들이 툭하면 여자유학생과의 艶聞을만들어내 날 놀려먹었다。 某여자대학의 누구하고 어떻고 某女醫專의 누구하고 어떻고…친구들은 장난삼아 그랬겠지만 자꾸 그러다보니 날 난처하게만든게 한두번이 아니었다。

내노라하던 여자유학생들이 많기도 했지만 난 이성교제에 별다르게 관심을 기울이진 않았다。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마음이 있어도 한눈팔 틈이 거의 없었다는게 옳은 표현이겠다。

그러던중 졸업을두해앞둔 어느날 韓人교회에서 한여학생을 만났다。

早稻田大동창인 김낙영씨가 東京여자고등사범에 다니는 異恩惠라는 여학생을 나에게 소개해줬다。 청순한듯 하면서도 개성이 강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신앙심이 대단하다고 했다。

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뒤로도 가끔씩 교회에서나 유학생모임이 있을때 마주쳤다。 한번은 동료와함께 그 여학생의 하숙방에 찾아간 적도 있었다。

異恩惠, 그 여학생은 강원도 伊川출신으로 일찌기 신교육을 받은 강원도 최초의 新式여성으로 알려졌다。 백부가 남감리교회의 장로이며 勝洞교회 金一善장로가 養女처럼 생각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가 淑明高女시절 학교에서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한 여학생이었고 東京유학전 梨花女專에서 교편을 잡았었다는 걸 다른 동료들한테 들어서 알았다。

그가 死別한 아내(李丙暎)를 梨花女專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 선생이었다는 사실을 안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난 그녀에대한 탐색을 한동안 계속했다。 그러나 날 대하는 품이 냉랭했다。

그러다 그 여학생이 내가 하숙하는 구역으로 하숙을 옮겼다。 같은 區에서 살게돼 만날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졌다。

훗날 나의 아내가 된 그에게 하숙을 옮긴 연유를 물었을 때 내가 찾아올까봐 하숙을 옮겼다고 했으나 정작 날 기피해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깊은 속을 알리 없었다。

그러나 아내가 당시 나의 첫인상이 준수하게 생긴총명스런 청년같았으나 남성혐오증에 걸려있던 때라고 말한 것을 보면 스스로를 나로부터 격리시키려 했었던 것 같다。

어쨌든 우리는 등하교길에 전차안에서 종종 마주칠 수 있었다。 여전히 그녀가 냉담한 것 같은 반응을 보이자 나도 반사적 反感으로 내스스로를 한동안 격리시켰다。

초기엔 「陽動作戰」을 썼으나 결국 나의 정성이 주효해 우리는 결합을 하기에 이르렀다。

아내(결혼전이지만 그렇게 부르자)가 학교를 졸업한 1921년 봄, 우리는 함께 귀국했다。 양가부모의 내약을 얻은뒤 우리는 安國洞에서 약혼식을 올렸다。

지금은 38線에 막힌 元山부근의 북녘땅, 강원도 伊川의처가를 가 본것도 그때다。

나와 동갑나기인 아내는 아버지 異瑞麟씨와 어머니 白씨사이의 5남매중 네째로 태어났다。 당시 대지주였던 장인은 일찌기 기독교신자가 돼 신학문을 배운 개혁파선비였다。 장인은 남자들도 보통학교에 보내길 꺼리던 완고한 풍토에서 딸에게 신교육을 시켰다。 아내의 얘기는 이러하다。

아내는 백부댁에서 한문을 공부한뒤 伊川보통학교를 마치고 開城好壽敦女塾엘 들어갔다。 호수돈에 다닐 때 방학중 집엘 가니 28세의 청년과 약혼이 돼있었다。 그만 기겁을 한 나머지 울고불고하다가 서울로 줄달음을 쳐 淑明女高에 입학했다。 그때가 18세였다。

그해 2학기 어느날 담임선생이 아내를 부르더니 강원도도지사가 淑明에서 규수감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했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래서 또도지사아들과 강제약혼이 돼버렸다。 아내는 졸업뒤 보자면서 위기를 피했다고 한다。 아내가 말했던 남성혐오감이란 바로 이것이었다。

아내는 淑明을 졸업하던 해 3·1독립만세를 주동한 뒤 학교에서 숨어지내다 梨花女專에서 아펜젤러를 만나 그의 권유로 梨專에서 교편생활을했다。 그러다 학교측의 배려로 東京유학을 가게됐던 것이다。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해인 1922년11월 우리는 貞洞교회에서 신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약혼한지 1년만이다。 신혼의 보금자리는 安國洞의海葦자택이었다。 아내는 신식과 舊式의 가풍속에 조화를 찾느라 애를 많이 썼다고 당시를 술회한다。

아내는 약혼시절 梨專에서 다시 교편을 잡았는데 당시 졸업반학생중에는 金活蘭, 徐恩淑씨등이 있었다。

◇淑明학교를 졸업한해 부인(異恩惠)의 모습。 당시 최신유행의 헤어스타일을 하고있다。

물난리·暴炎

다뉴브江 범람… 널빤지다리 건느는 西獨시민들

○다뉴브강의 범람으로 도로가 물에잠긴 서독 파사우시가지풍경。 우산을받쳐든 시민들이 강위의 잔교를건너듯 임시 가설된 널빤지다리를 통행한다。 【UPI】

貝類양식장 50%이상 被害

颱風오그던 通過후 惡性赤潮로

【鎭海=聯合】태풍오그던이 지나간이후 경남 鎭海만일대에 악성적조현상이 발생, 홍합·피조개등 각종 패류양식장이 50%이상 큰피해를입고있다。

12일 수산당국과 업계에따르면 이일대는 오그던 태풍이후 최근들어 적조농도 ㎖당 5천6백90~4만7천2백40개체에 달하는 짙은 적조현상이 발생한데다 야광충·프로로센트룸 등 복합적조현상까지겹쳐 鎭海시熊川등 앞바다등은 피조개사육의 50%이상에 달하고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늘어날 전망이라는것。

일하던 쌀가게 告發위협 돈(令)狀

그主人에 그從業員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10일 하오5시께 자신이 일하던 서울東大門구 [illegible] 쌀가게 주인 [illegible](37)에게 전화를 걸어 [illegible] 요구, [illegible]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illegible]

키는크고 視力은 떨어져

大學 신입생 「건강白書」

高大보건소조사

대학신입생들의 신장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시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

高麗大보건소(소장 [illegible]교수)가 12일 발표한 금년도 신입생 4천6백(남3천4백91·여학생 5백15명)을 대상으로 한 「신입생체격 [illegible]」 조사에 의하면 평균신장은 남학생 1백69·21㎝, 여학생 1백58·13㎝로 지난53년의 조사치와 비교해 남녀 각각 3·30㎝, 3·0㎝씩 늘어났으며 도시출신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집안 출신일수록 더 컸다。

반면 시력은 극히 떨어져 평균시력이 남녀각각 좌측이 0·37, 0·40이고 우측이 0·35, 0·39이며 전체 신입생의 65%가 시력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2명중 1명이상이 안경을 쓰고있다는사실로 학생들이 아직도 입시준비로 눈의 건강관리를 소홀히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밖에 치아검사결과 충치 질환자가 남학생 75·1%, 여학생 74·1%, [illegible]

流星의 賊

<15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山空花自紅 ⑥

허통(許通)에 관해선 이이와 약간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던 터라 홍성민이 잠자코 있었다。 이이의 말이 계속되었다。

『허통을 주장한 내 마음을 시가는 알고 있겠지』

『숙헌의 뜻을 왜 내가 모르겠나。 시기의 조만(早晩)에 관해선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네만』

『그런데 시가』 하고 기침을 참더니 이이가 말했다。

『내 진정을 모르고 내가 허통을 주장한 것은 경림과 경정 때문일것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았다지 않는가』

경림과 경정은 이이의 서자이다。

『말을 꾸미기 좋아하는 동인놈들의 조작이겠지。 놈들은 없는 사실도 지어 내려는 탓인데 오죽 하겠나。』

『아니야, 시가。 그 말이 굴러다니다가 눈사람처럼 커버릴 경우도 있는거여。 경림은 지금 열살이고, 경정은 다섯살이 아닌가。 그 어린 놈들을 두고 내가 그런 마음을 썼겠나。 창피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그 일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긴가』

홍성민은 이이가 그처럼 심약해졌는가 싶으니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아닐세。 그런 일이야 불쾌하다 뿐이지 자네에게 의논할 건더기나 되는가。 내가 시가에게 부탁하고 싶은것은 홍계남이다。 한번 자넬 찾게 하겠다만 시가는 일목에 그의 사람됨을 알수있을걸세。 참으로 아까와。 다행히 자네의 일문이기도 하니 각별히 마음을 써주게。 장차 장재(將材)가 될 사람이다。 그러나 내버려 두면 심산의 고목(枯木)처럼 되고 말걸세』

『말을 듣고 있으니 자네가 곧 어디로 갈것같구나』

『인명은 재천(在天) 아닌가。 어쩌면 난 이대로 일어날수 없을지 모르네』

하고 이이는 기침을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기침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저 기침이 좋지 못하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홍성민은 이이의 기침이 멎기를 기다려

『그런 불길한 소린 하지도 말게。 한창 연부 역강할 나이에 그게 무슨 소린고。 편안히 잠이나 자게』

『낸들 왜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겠나。 그러나 만의 하나라는 것도 있는 거여。 이 기회에 홍계남을 자네에게 부탁해 놓고 싶어』

『그 부탁이야 쉬운 일 아닌가。 파는 다를지 모르나 내 일문인걸。 내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지。 자네가 있던 없던간 내 성의를 다하리다。』

『고마우이』

그리고 한참을 있더니 이이는

『웬만하면 홍계남의 외조부가 되는 장회일의 신원(伸寃)도 해주고 싶었는데 그 일을 시작했다간 벌집을 쑤셔놓는 꼴이 될것 같아서 잠자코 있었지。 때가 오면 시가가 그일도 거들어 주어야 하겠어』

『그 일은 그럴 형편이 되었을때 다시 의논합세。 모든것 걱정말고 눈을 붙이도록 하게』

홍성민이 타이르듯 말했다。

『잠이 오질 않네, 시가。 자넨 잠이 오는가?』

『아아니』

『그렇다면 얘기를 조금 더 하자꾸나』

주간女性

愛玩동물 죽음에 주인自殺 늘어나

美서 임상심리학 연구대상으로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 함에따라 애완동물의 죽음에 대해 인간이 갖는 강한 상실감이 하나의유행병처럼 임상심리학과 현학의 연구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양이와 단둘이 살던 외로운 노인이 고양이가 죽자 애통한 나머지 그뒤를 따라 자살한 예는 이제 결코 보도에나 오를 얘기가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삶을 사는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있는것。

최근뉴욕에서는 콜럼비아大學과 뉴욕 동물의학연구소의 공동주최로 애완동물의 상실과 인간감정을 주제로한 세미나가 열렸는데 한 연구보고서는 애완동물의 죽음에 대한 [illegible] 한 인간관계의 손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 [illegible]

[illegible] 수의사 2백9명에의해 작성된 것으로 이들 수의사중 75%가 애완동물의 죽음은 반드시 그주인의 건강을 해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가족관계나 인간관계가 소원한 오늘날의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특히 노인세대들의 경우 애완동물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에 상응하는 것이기때문에 애완동물이 죽었을때 그주인은 동일한 상실감에 빠지게되고 이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된다는 것。

이보고서에의하면 애완동물을 잃은 주인들가운데는 죽은 대상이 인간이 아닌 동물인데도 그슬픔을 이상적으로 [illegible] 못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며 때로는 죽음에 대해 깊은 상실감에 빠져 심하면 자살로까지 내닫는다。

[illegible]

開門發車 버스 어린이를 轢殺

【大邱=聯合】11일 하오8시45분께 大邱市西區[illegible]洞 [illegible] 앞에서 남도운수소속 대구5자3616호 시내버스(운전자 羅容培·28)가 문을 닫지않은채 출발하는바람에 계단에있던 金永洙씨(29)의 딸 美京양(6)이 길바닥에 떨어지면서 버스뒷바퀴에 치여 그자리에서 숨졌다。

이날 사고는 버스가 사고지점에서 美京양이 동생을안고 먼저 승차한 아버지를따라 차에 오르는순간 문을 닫 [illegible]

기관고장일으켜 제2무양호漂流

【麗水=聯合】11일하오9시께 濟州道 남서쪽 7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麗水선적 안강망어선 제2무양호(99·6톤·선장 朴成淑·43)가 기관고장을일으켜 표류중이다。

신고를 받은 濟州해경은 경비정을 보내 표류중인 무양호를 찾고있는데 12일상오현재 표류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있다。

지난10일 麗水항을 출항한 이배에는 선장朴씨등 선원13명이 타고있다。

農村에도 離婚率늘어

尙州등 7월末 204件…例年비해 急增

【尙州=聯合】농촌지방에도 이혼이 늘어나고있다。

12일 大邱지법尙州지원에 따르면 이지원 관내인尙州·聞慶·醴泉지방주민의 협의이혼은 올들어 7월말까지모두 2백4건에 이르러 79년 1년동기의 1백44건, 80년의 1백82건에 비해 매년 증가했을뿐 아니라 폭 늘어나고있는 추세이다。

내용별로는▲남편의 외도로인한 불화가 70%로 가장 많고▲경제적 빈곤이 20%▲여자의 혼외정사및 가출등이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30대가 40%로 으뜸이었고▲20대 30%▲40대 20%▲기타10%로 20~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이혼이 증가하고있고 학력은 중·고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자가 전체의 90%였다。

水沒지역 補償하자 銀行 예금유치경쟁

【忠州=聯合】忠州댐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보상금이 지난 3일부터 지급되자 忠州시내 은행들이 수몰지역농가에 직원들까지 몰리면서 치열한예금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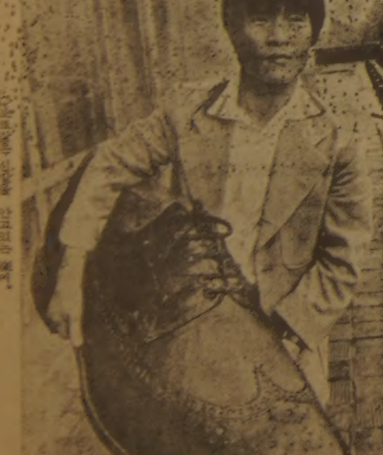
시중은행들은 요즘 수몰보상금을 유치하기위해 농가별로 지연·혈연·동창관계까지 동원하고 있으며 직원을 상주시켜 보상금 지급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등 파잉서비스를 하고있다는것。

미우기 일부은행에서는 보상금을 많이 받는 농가에는 3㎏짜리 설탕을 돌리는등선심을쓰고있어 수몰민들에게 위화감마저 주고있는 실정이다。

超大型 구두

길이 1m10·무게 15kg

崔浩範씨 3년걸려 제작



"재료비 35만원… 16켤레分가죽 쓴셈"

사람이 타고 漢江을 건널까 하고 시도해본 것이라기 보다 배다。

길이 1m10㎝, 무게 15㎏의 대형 구두。

서울城北區普門洞2가 [illegible]의 崔浩範씨(33)가 3년 걸려 만든 수제화。

미루나무와 통나무를 깎아 구두 목형을 제작, 그위에 가죽을 입혀 만든것。

구두방 일이 없는 때에 틈틈이 작업을 했기때문에 3년의 세월이 흘렀단다。

구두제작에 사용된 쇠가죽은 보통구두 16켤레를 만들수있는 크기다。 황소 한마리의 가죽이 다 들어간 셈이란다。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바이어들에게 선전 모델용으로 판매할수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시도해본 것입니다』

崔씨는 국내서는 물론이고 지만 세계의어디에 내놓아도 가장 큰구두일것이라고 했다。

이구두의 모양은 영국귀족들이 많이 애용했고 요즘은 유럽의 비즈니스맨들이 즐겨신는다는 오피지널 윙 앞부분디자인은 제비가 날아가는 모양을 한것으로 유행을 타지않고 수세기동안 형을 유지해왔다는것。

목형을 포함한 구두의무게는 45㎏이고 순수재료비는 35만원 상당。 공예품이라면서는 2백만원 짜리는 될것이라며 상품화할수 있는 [illegible]

崔씨의 수제화 기능경력은 13년。 그의꿈은 해외시장에 한국수제화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싶은것이라고 했다。

창날기로 만든것 같았으나 그의 집념은 진지했다。

City of Toronto

Firefighters

Equal Opportunity Employer

Applications are invited for the Toronto Fire Department Training Program for the position of Probationary Firefighter.

Preference will be given to residents of the Metropolitan Toronto Region.

The program of recruitment is geared for career employment in the fire service. The successful applicants on completion of their six weeks of training at the Toronto Fire Academy, will work under the supervision of senior officers to combat fire; perform rescue work; administer first aid; operate and maintain fire fighting apparatus and equipment, including the maintenance of fire stations; and inspect properties and equipment for fire hazards, etc.

Qualifications:
Applicants must:
- Be legally entitled to work permanently in Canada;
- Possess a valid Ontario Driver's Licence. Possess or be able to qualify for a Class 'D' Licence within the Training Period, and be able to prove safe driving ability;
- Have a minimum of Grade 10 education, however, preference will be given to those with Grade 12 or better, with evidence of training or experience in related trades, first aid, rescue work, etc. Must be able to communicate clearly and precisely in English in an emergency;
- Be able to work under arduous physical conditions to carry out firefighting and rescue duties. Applicants will generally be between 5'7" (170 cm) and 6'3" (190 cm) in height, and weigh between 140 lbs. (63kg) and 220 lbs. (100 kg). Vision should not be less than 20/30 in each eye, without corrective lens, and no significant abnormalities in colour vision.

Applicants with the above qualifications will be required to pass a preliminary written examination consisting of understanding instructions, mechanical aptitude, judgement, reasoning and reading and subsequently be required to pass a thorough medical examination, a physical agility test and a physical risk factor evaluation and vital capacity test.

Some knowledge of firefighting practices and terminology would be an asset.

Shift work is involved.

1981 Salary range: $18,672 - $26,677 per annum with excellent fringe benefits.

Further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ms may be picked up from the Toronto Fire Academy, 895 Eastern Avenue, Toronto or from the enquiry desk, Main Floor, City Hall between the hours of 8:00 a.m. and 8:00 p.m. and must be returned to the Fire Academy or to City Hall by September 11, 1981.

1981 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信一、8회말 大量득점 역전승

車東哲 4安打 내줘 光州一 무릎꿇어

6대2

8회말 1사 2、3루 타석에는 信一高의 1번 閔庚三이 들어섰다。『보낼것인가、말것인가』 망설이듯 光州一高의 車東哲은 연속 3포볼을 던졌다。 閔이 포볼을 예측하며 전성스퀴즈 모션을 취했으나 뜻밖에도 車는 연속 투·스트라이크를 잡았다。 공격진도 수비진도 순간 동요하기 시작。 계단을 내리듯 인·코스로 파고드는 車東哲의 6구를맞아 閔庚三은 좌익수 옆으로빠지는 통쾌한2타점 역전 결승타를 날렸다。

鳳凰大旗 고교野球

제11회 봉황대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7일째인 12일 서울운동장 스탠드를 빈틈없이 메운 3만 관중들은 강팀이 펼친 명승부에 열광했다 信一高는 8회말의 신중4안타로 光州一高에 6-2의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라섰다。

培明高는 3회초 1사후 8번 金龍德의 역전 결승2점 호머에 힘입어 木浦商高를 5-2로 완파했으며 清州高는 城南高와의 팽팽한 투수전에서 6회말 2사후 7번 李揆晃의 좌전2타점 결승타로 2-0으로 완봉승、역시 16강에 도약했다。

培明、木浦商 追擊 뿌리쳐 5-2

培明高-木浦商

찬스 다음에는 위기가 오게 마련。 1회초 연속 안타의 찬스를 병살로 놓친 培明은 1회말 뜻밖의 고비를 맞았다。 木商 선두 1번 [illegible]이 기세좋게 초구를 강타、날카로운 타구를 3루수 朴善炫이 라이너로 선방했으나 2번 李虎聲의 타구를 2루수가 이를어 놓쳐 1루를 빼앗겼다。 木商은 찬스를 놓치지 않고 3번 崔忠日이 우전적시타를 날렸고 4번 陳誠이 라이트 회생 폭라이를 날려 먼저 1점을 뽑았다。

그러나 2회말 반격에 나선 培明은 하위타선의 연속 폭발로 간단히 전세를 뒤엎고 승리를 굳혔다。 선두5번 朴善炫이 좌전안타로나가 6번 朴興德의 내야플라이를잡아 병살을 노리던 木商루수 丁權의 1루 악송구로 2루까지 진출했으며 7번 洪成男의 좌진 적시타로 간단 동점을 만들었다。 주자를 1루에 두고 타석에들어선 8번 金龍德은 대회7호 결승 2점 좌월 홈런을 날렸다。

培明은 3회초 4번 俞英濟의 2루타로 1점、6회초 金龍德의 중전 적시타와 木浦 유격수의 실책으로 1점을 추가、안전권에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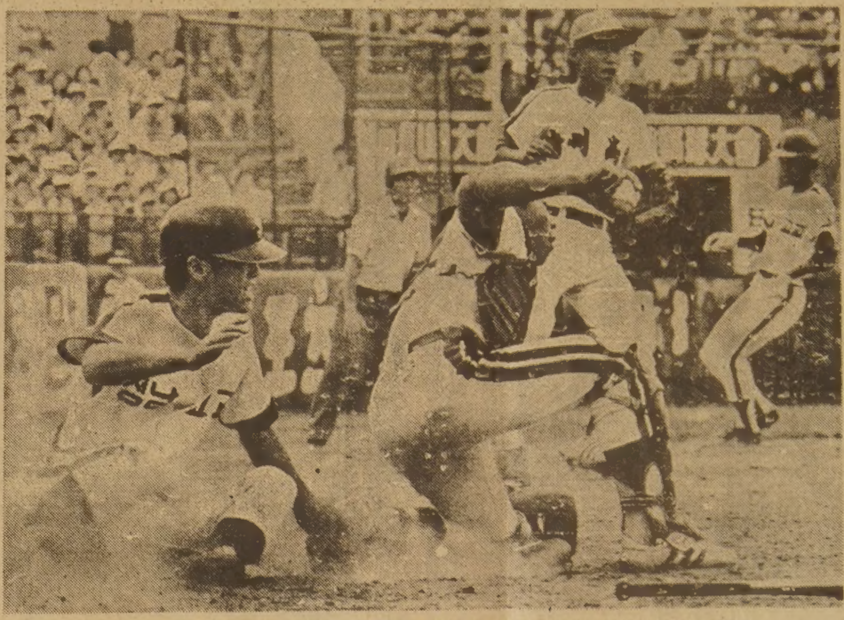
木商 역시 9회말 마지막 공격에서 선두 4번 陳誠이 적실로 나가 5번 趙明安의 우월2루타와 후속 땅볼로 홈인、5-2로 추격하며 역전을 노렸으나 후속범타로 주저앉았다。

光州一-信一高

信一1루수 吉洪圭의 키는 1m80。 아마 그가 1㎝만 적었더라면 信一수비는 초반에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화랑기를 제패한 信一 우완에이스 李載弘은 2회초 光州一 선두 4번李瀨守 5번車吉于에게 연속안타를맞고 6번尹漢奎의 번트를 파울이되도록 기다리다가 내야 안타를 만들어 배아픈 선제 1점을 허용。 3회초에는 1루주자를 두고 때린 光州一 2번徐昌基의 땅볼을 유격수 閔庚三이 1루에 악송구、주자 1、3루의 위기를자초했다。 3번 車東哲의 타구는 안타성 타구였으나 信一2루수 郭昇勳이 잘 잡아 1루에 송구、1루수 吉洪圭는 발끝으로 베이스에 올라서서 잘 잡았다。 승리의 신은 光州一편을 맨처 제3 아웃을 잡았다。

[illegible] 선두 4번 李瀨守가 대회 8호 좌월 솔로 호머를날리고 2회말 1안타、1포볼、4회말 1안타、2실책 [illegible]졌다。 信一의 9번 金倫中은 4회말 1사1、3루의 결정적 찬스에서 유격수앞 병살타를쳤다。

信一은 6회말 선두 5번 張光一이 좌월2루타、6번 郭昇勳의 우전적시타와 光州一 우익수의 실책으로 1점、7번 吉洪圭의 우전안타와 8번 李載弘의 땅볼로 1점을 얻어 자신감 2-2의 동점을 만들었다。



◇스퀴즈도 失敗 9회말 위기를 모면하는 清州高。 清州와 城南의 2대전서 城南은 9회말 무사 만루서 2번 李鍾賢이 스퀴즈를 시도했으나 실패、3루주자 李國成이 홈에서 아웃되고 있다。

◇제7일 2회전

성남고 000 000 000 0
청주고 000 002 00× 2

▲성남투수=李國成 포수=裵德鎬 ▲청주투수=張定淳 金鍼圭(9회) ▲포수=李錫泰 南敎祐(9회)

배명고 031 001 000 5
목포상 100 000 001 2

▲배명투수=康賢國 포수=俞英濟 ▲목포상투수=丁權 朱二泰(2회) 포수=陳誠 ▲홈런=金龍德(2회초·2점·배명)

광주일고 010 100 000 2
신일고 000 002 04× 6

▲광주일투수=車東哲 文熙秀(8회) 포수=李瀨守 ▲신일투수=李載弘 포수=徐孝仁 ▲홈런=李瀨守(4회초·광주일)

清州高 6회말에 勝機

만루찬스 잘살려 城南 꺾어 2-0

清州高-城南高

5회까지 城南 李國成의 낙차 큰 인슈커브에 꼼짝못하고 무안타로 눌리던 清州가 6회말 3안타를 집중、승기를 잡았다。 선두 2번 李錫泰가 좌전안타、1사후 4번 李相明이 중전안타로、2사후 許光憲이 포볼을 골라 만루의 찬스를 만들자 기다렸다는듯 7번 李揆晃이 통쾌한 결승 2타점 중전 적시타를 때렸다。 清州의 안타는 6회 3개외에 8회말 1안타로 모두 4개였다。

城南 역시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清州 선발 張定淳과 구원투수 金鍼圭의 계투에 눌려 3안타에 그쳤다。 城南은 8회초 1사후 6번 裵德鎬이 清州 3루수 악송구로 살아나갔으나 후속병살타로 물러났고 9회초에는 선두 8번 李國成이 清州 2루수 실책으로、9번 [illegible]이 우전안타로、1번 [illegible]가 또다시 유격수 [illegible] 무사 만루의 황금 찬스를 맞았으나 2번 李鍾賢의 스퀴즈번트가 포수 바로 앞에 떨어져 3루주자는 홈에서 아웃、타자는 1루에서 [illegible] 이 병살 당했다。 2사후 주자를 2、3루에 두고 3번 李哲柱가 배트를 휘둘렀으나 신경계 투수 플라이트 아웃당해 城南의 총반격전극은 이루어지지않았다。

永工·安養工 쟁패

鶴城·漢榮高를 힘겹게 꺾고

추계中高축구

永登浦工은 12일 孝政府공설운동장서 벌어진 추계전국중고 축구연맹전 고등부준결승전서 강호 鶴城高(울산)을 1-0으로 제압、결승전에 올랐다。

지난해 이대회 우승팀인 永工은 후반 26분FW崔海吉이 鶴城 페널티 에리어안 중앙지점에서 숏、결승점을 올렸다。

중학부 준결승전서는 富平東中과 群山第一中이 결승전에 진출、13일하오 2시 覇權을 다투게 되었다。

지난해 우승팀인 富平東中은 徽新中과맞서 전후반2-2로 비겼으나 연장전에접어들어 고백진 방진문 김봉길이 골을 넣어 5-2로 대승했으며 群山第一은 오명열과 박윤종의 수훈골로 昭陽中(춘천)에 2-1로이겼다。

安養工은 漢榮高를 2-1으로 물리치고 결승전에올랐다。

◇준결승전적

▲중등부

부평동중 5(2-1 0-1 3연0)2 경신중학

군산제일 2(1-1 1-0)1 소양중

▲고등부

영등포공고 1(0-0 1-0)0 학성고교

안양공고 2(1-1 1-0)1 한영고교

한국、中共과 4년만에 對決

世界핸드볼豫選

오는 9월15일부터 日本서 열리는 제10회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 아시아B조지역 예선전에서 한국남자핸드볼팀은 中共과 4년만에 경기를 갖게되었다。

당초 이대회에는 한국 日本 대만만이 참가신청을했는데 中共이 신청마감후 대회참가를 희망해와 아시아핸드볼연맹이 이를 받아들여 참가국이 4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實業 테니스戰 鏡浦臺 코트서

81년도 제3차실업테니스연맹전이 14일부터 3일간 江陵鏡浦臺코트에서 열린다。

이번 연맹전엔 大宇를비롯 陸軍 産銀 商銀 現代精工 등남자5개팀과 農協 慶北道廳 國民銀 朝興銀 水協 日新紡織등 6개팀이 출전、열전을 벌인다。

홍콩에 僑民 태권도教室

2世어린이 無料

홍콩한인 태권도회가 오는 9월4일부터 교민2세들을위한 태권도교실을 설치、운영한다。

張龍武씨(35·6단)를 지도사범으로、張盛鋒씨를 총무이사로 선임、모두 19명의 임원으로 설치운영되는 이 태권도교실에는 홍콩에 거주하고있는 교민 자녀로 총 5세이상이면 누구나 입학할수있으며 교습비는 무료。

태권도회는 당분간 매주 토요일하오에 2시간씩 코리아센터5층강당에서 교습、점차로 시간을 늘려나가며 연령별 교습반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홍콩에는 모두 80개소의 태권도장이있고 한국인사범만 7명이 활약하고 있다。【홍콩支社】

忠北 낭성優勝

국민교軟式정구

제7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국민학교 시도대항연식정구대회가 11일 奬忠코트에서열려 忠北 낭성국교가 忠南 백운국교를 3-0으로 꺾고 여자부 단체우승을 차지했다。

選手 15명장도에

亞洲力道 선수권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日本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아시아역도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한국선수단 15명(임원5·선수10)이 14일상오11시50분 KAL편으로 떠났다。

◇한국선수단 ▲단장=金瑩植 ▲감독=宋大鉉 ▲코치=李春植 ▲주무=朴光輝 ▲선수=李鎭榮 李相善 姜信鎬(이상 조폐공사) 朴春宗 車東澈 安孝龍(이상 한체대) 李康錫 黃[illegible] 李光鉉(고려대) 安智榮(현대)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張吉山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89)

黃晳暎 作 崔然石 畵

방안에는 촛불만이 일렁거려 길산과 진 장에는 안무당의 그림자를 벽에다 붙여서 술추도록 하였다。 길산은 한참만에 고개를 들었다。 그는 눈가에 번진 물기를 소매끝으로 두어번 훔치고는 조용히 방을나왔다。 보살들의 방에는 불이 꺼져있었다。 길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이모 보살님…』

『응、석님이…』

아직 깊은 잠에 들지는 않았는지 계화가 얼른 대답하며 방문을 열었고、김송운이도 깨어일어났다。 길산은 뒷마루 앞에서 [illegible]

『조금 전에 운명하셨읍니다』

『아이구…그러게 우리들…내뭐러라니깐』

계화는 울먹이며 나서서 염방과 백련이와 원향이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生 <173>

灰色노우트⑤

趙善作 作 禹慶熙 畵

전날 나는 교바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그럼 점심이나 함께 할까 하시며 나오라고 하셨다。 전화를 걸 때부터 아버지의 음색(音色)을 살피는 것은 그즈음의 내 버릇이었다。 밤새 그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을 공상했기 때문에 나는 아침부터 여간 피곤하지가 않았다。 아무 일 없는 듯 아버지께서는 태평한 음색이셨다。 그러나 그런 태평한 음색 속에도 창연 남자의 경륜(經綸)은 으레 비밀 한 가지씩을 숨기곤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고、발을 또와 귀채연 조바심은 쉽게 풀려가 주지 않았다。

『맛있는 거 사주시겠어요? 먼저처럼 또 비빔밥이나 한 그릇씩 먹을까、그러시면 나 안 나갈래요。』

느리터분하면서도 잰체하시는 아버지 특유의 말씀을 흉내내면서 내가 말했더니、아버지께서는 허허웃으셨다。

『비빔밥은 맛없는 음식이니? 그래、뭐든 천하는 음식이 절로 사주마。 열두 시에 능금에서 기다리렴』

『아니、현관 앞에서 기다릴래요』

피곤을 무릅쓰고 나는 열두시에 은행 현관으로 갔다。 시간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열두 시가 조금 넘어 그곳에 도착했는데、아버지께서는 내려와 계시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혹시 딸과의 약속을 잊으신 게 아닐까 싶어 나는 좀 당황했다。 능금으로 가셨나、아니면 숫제 나를 잊으시고 동료들과 어울리신게 아닌가 싶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J씨가 다른 몇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것이다。 베레모를 쓰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그를 잊었을리는 없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너무도 놀랐고、그렇게 놀라는 나를 J씨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잠시 누구시더라 하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의 눈앞에서 도망치고 싶을만큼 망설였다。 그가 왜 아버지가 계신 은행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가 하는 의문도 잠깐일 뿐이었다。 그러는동안에 그가 나를 알아본 것이다。

『미스 안이시죠? 웬일이십니까?』

나는 그의 기억력에 매우 놀랐다。 그러나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웬 일로?』 하고 채차 묻기까지 나는 공포로운 장소에서 공포로운 인물과 마주친 충격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가까스로 나는 그에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셨어요。 아빠를 뵈러 왔어요』

내가 말하자 그는 좀 어리둥절한 눈치더니 물었다。

『아버지께서 저희 은행에 근무하시니까?』

나는 머리를 까딱해 보이고 나서 아버지의 성함을 말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버지를 둔 일이 그때만큼 떳떳하게 느껴졌던 일이 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J씨는 『아이구、그래요?』 하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러나 나는 이런 뜻밖의 즐거움보다 J씨같이 널리 알려진 젊은 시인이 은행원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어색한 느낌때문에 좀 멍청해져 있었다。 시인과 은행원、어쩐지 이해되지않는 결합이었다。

『점심을 하러가는 참입니다。 한군은 요즘도 만나십니까?』

그는 앞서 나간 동료들을 눈으로 좇으며 말했다。 내가 처음에 J씨를 피할까 말까 망설였던것은 J씨의 입에서 그에관한 말이 나올까 두려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기어이 그에 관해서 입에 올렸고、나는 금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느낌이었다。

부동산 매매

1. 도나스 스토어에 온 힘을 기울여 왔읍니다.
본사직영의 스토어 에서 여러분이 기술연마 하는데 퍽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주매상 : $12,000짜리
2. 〃 $10,000짜리
3. 〃 $7,000짜리
$5,000짜리
$4,000짜리

2. 건물매매 5스토어+5아파트, 20년됨
ASKING : $450,000 다운 : $150,000
NORTH YORK소재

3. 바라이어터 스토어 : 주매상 10,000
스카보로에 있음.

신용을 본위로하는 이훈모 부동산을 찾아주세요.

이훈모 부동산회사 ☎ : 221-2084
633-6813

(4975 YONGE ST·AT SHEPPARD ST)

Ontario

법무부 상임위원회

법안68조-1981년도 메트로경찰에 대한 불만소청조례

○ 법무부 상임위원회는 1981년 9월22일(화)·온타리오주 퀸스·팍의 제1회의실에서 메트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평을 처리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메트로 토론토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법안 68조로 하기위한 공청회가 있읍니다.

○ 동 위원회는 상기 법원에 대해 발표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서면제출을 요청하며, 발표 요지문을 1981년 9월11일(금)까지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직접 발표를 위하는 분은 위원회 서기에게 개요를 요청해야 합니다.

○ 이 법률의 영문사본은 880BAY ST. TORONTO M5S 1Y8에 있는 온타리오 정부 서점에서, 또는 같은주소의 출판센터를 통해서 구할수 있읍니다.

RICHARD TRELEAVEN, Q.C., M.P.P.
Chairman

A. SMIRLE FORSYTH
Clerk of the Committee

Room 1502, Whitney Block
Queen's Park
Toronto, Ontario M7A 1A2
416 965-6834

구 혼

한국의 모대학 불어강사로 근무하고있는 실력있고, 건강하고, 얌전한 28세의 미혼 여성임.

불어사용 지역에 살고있는 분이면 더욱 좋겠으나, 캐나다 어느 지역이건 상관없음.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연락처 : 토론토 (416)533-2364
Mrs. 김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國稅滯納 해마다 累增

國稅廳집계 6月末 3,153億원 75년의10倍

決定額의7·8% 附價稅최고
작년整理실적은 52%에 불과

올들어 3百여億원 缺損처리
작년 滯納額은 2千5百88億
계속되어온 景氣침체를 반영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최근 수년간 세금체납이 해마다 늘고있다. 체납세금중에는 받아낼길이없어 결손처리해야할것이많아 체납세금 정리율도 자꾸만 떨어지고있다. 작년의 체납세액만도 2천5백88억원에 이르고있는데 이는 지난해 內國稅 징수결정액 3조3천1백86억원의 7·8%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리실적은 52·1%로 체납세금중 절반가량을 못받고 있는 것이다. 올해들어서도 6월말현재 받아내야할 체납세금은 모두 3천1백53억원이며 이중 1천1백43억원이 올해들어 발생한것이다. 국세청은 이가운데 1천1백30억원을 정리했으나 소송및 이의신청및 심판청구로 정리유예중인 1천8백68억원등 2천23억원을 못받고있는것이다.

11일 국세청에따르면 정리대상 체납규모는 해마다 늘어 지난75년말현재 3백50억원이던것이 76년에는 8백69억8천3백만원으로 약1·5배가 증가한것을비롯 77년에 1천3백60억2천4백만원, 78년 1천4백23억7천5백만원, 79년 1천6백47억1천6백만원, 80년 2천5백88억5천1백만원으로 계속 늘고있다.

올들어 6월말현재 정리대상체납액 3천1백53억원은 작년말대비 21·8%가, 지난75년보다는 약10배가까이 각각 늘어난것이다. 이같은 체납세액누증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정리비율은 계속 떨어지고있다.

75년말현재의 정리대상 3백50억원가운데 2백46억5천1백만원이 정리돼 70·4%로 최고를기록했던 정리비율이 76년에 67·8%, 77년 60·4%, 78년 67·1%, 79년 60·2%, 80년 52·1%로 크게 떨어져 79, 80년의 극심했던 경제불황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의 체납정리실적에서도 그대로반영돼 정리대상 3천1백53억원중 올들어 발생한 체납액이 1천1백43억원이나되고, 정리비율에있어서도 정리가능분(정리대상에서 유예분을뺀것)에대한정리비율은 87·9%이지만 총정리대상에대한 비율은 40%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말현재 정리가능체납액 1천2백85억원은 전년같은기간의 7백3억원보다 4백82억원이 늘어난것이다.

올들어 정리된 1천1백30억원의 체납중 현금정리된부분은 4백79억원에 불과하고 3백3억원이나되는세금이 받아낼길이 없어 결손처리됐다.

올들어 내국세부문에서 발생한 체납세액을 세목별로보면 부가가치세 4백13억원, 종합소득세 2백92억원, 법인세 2백7억원, 양도소득세 1백70억원, 특별소비세 12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올들어 내국세징수실적은 6월말현재 2조1천68억원으로 예산상징수목표 4조5천8백35억원에대해45·2%의 진도율을 보이고있다.

◇연도별 체납발생및 정리금액 (단위:억원)

구분＼연도	75	76	77	78	79	80	81 6월말현재
정리할 체납액	350	869	1,360	1,423	1,647	2,588	3,153
정리된 체납액	246	589	862	955	990	1,348	1,130

財産稅 50%附加 재조정

30%로 引下·다른稅目도 고려

黨政協 教育稅 월내 調整案

정부와 民正黨은 10일밤 서울三淸洞 총리공관에서 黨政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정부가 教育稅신설試案을 발표할때 財産稅의 50%일률부과는 부담의 누진율을 더욱 加重시키기때문에 문제가있다고 판단, 이를 재조정하기로했다.

鄭宗澤政務제1장관은 이날회의가 끝난뒤 이같이발표하고 『정부의 教育稅 試案은 재산세의 50%부과율을 30%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도있고 재산세 이외의 다른 稅目에 부가할수도있다』고 전제하면서 『구체적인 代案은 정부와 黨이 협의하여 8월말까지 조정안을마련, 이번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고 밝혔다.

鄭장관은 代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財務委등의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도 참작하여 반영키로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民正黨측은 『재산세에 대한 일률부과는 일부국민의 저항을 사고있기 때문에 앞으로신중히 검토하여 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是正을촉구했고 이에대해 정부측에서는 『정부도 공통된 의견을 갖고있다』고 同調하면서 『국민의 의사가 그렇다면 民正黨과 협의조정하여 代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만찬을겸해 열린 이날 黨政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측은 예산안을 비롯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각종法案등 안건이 1백15건이라고밝히고 이들案件은 民正黨측과 사전협의조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회의에서는 또 정부가 決算시 不用額을 많이 남기는것을 권장하고 포상해야한다는 民正黨의 주장에 대해 정부측도 不要不急한 경비를 절약하여 不用額을많이 내는것을 권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회의에는 정부측에서 南悳祐국무총리 申秉鉉부총리 徐廷和내무 李承潤재무 李鐘元법무 鄭宗澤정무제1장관 [illegible] 총리비서실장등이, 民正黨측에서 李載灐대표위원 王相殷 중앙위의장 權正達사무총장 李珍雨 정책위의장 李鍾贊 원내총무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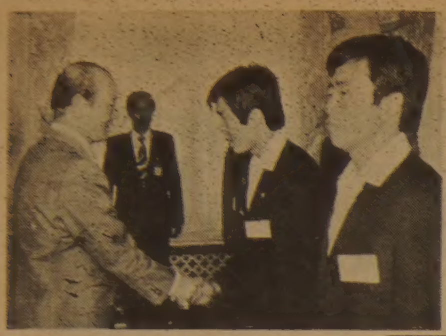
美蘇 核對決場우려
유럽, 美中性子彈생산에

【브뤼셀10日AP=聯合】로널드·레이건 미대통령의 중성자탄생산결정은 유럽에 미제핵미사일을 배치하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나토외교관들이 10일 말했다.

이들은미소미사일감축협상개시 예정시한을 4개월앞두고 발표된 레이건행정부의중성자탄생산결정으로 인해 서유럽지도자들이 미사일 배치에대한 보다 강력한 일반민중의반발을 받게되었으며 미국이 대소군축협상보다는 군비확장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있다는 인상을 주게될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우려했다.

이들은 유럽지도자들이 미국의 결정으로 서유럽이 미소대결의 핵전장이될 가능성에도 크게 우려하고있다고전했다.

尹甲富살해 高某자백
"財産상속탐나 犯行했다"



서울龍山區元曉路1街 尹[illegible]씨집 집단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1일 숨진 尹씨의 측근중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받아온 高모씨(46·여)로부터 『재산상속을탐내 범행했다』는 자백을받아내고 이자백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데 수사를 집중하고있다.

경찰은 高씨의 자백에따라 범인수사는 11일밤이 고비가 될것으로보고 증거가 1점이라도 회보되면 구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高씨와 경찰사이에 증거물을 놓고신경전을 벌이고있다.

경찰에 의하면 高씨는 11일새벽 조사경찰에게 『남편과함께 범행을 했다』거나 『친정 남동생과함께 남편을 때려 많은 재산을 탐내 일을저질렀다』는등 횡설수설 하며 자백을 했으나 尹씨집에서없어진 저금통장 열쇠 그리고 범행당시 입었을 피묻은옷의 소재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경찰에의하면 高씨는 11일 새벽까지 그동안 6차례나지난달 22일 尹씨와 헤어진뒤의 행적을 『할의옷을 사기위해 쇼핑나갔다』거나 『친척집에 갔다가 계모임에나갔다』는 등 6가지의 알리바이를 주장했으나 경찰확인결과 모두 허위임이 밝혀지자 이같은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高씨는 피살된 尹씨의친정쪽 혈족으로 어릴때 尹씨집에서 양아들처럼 자라와 남편과 결혼한후 尹씨측근에서 비서처럼 일해오면서 최근尹씨가 자신의 사후 많은재산을 자기들에게 상속하지않고 불교재단을 설립, 희사하려는 구상을 하고있는데 안달이나 있었음이 밝혀져 처음부터경찰의 용의선상에올라있었다.

善行市民 2명표창 全대통령

全斗煥 대통령은 11일상오 청와대에서 善行시민 2명에게 대통령표창을 주었다.〈사진〉

이자리에는 金容烋총무처장관 朴英秀서울시장 朴在權서울시경국장이 배석했다.

善行시민들의 공적은 다음과 같다.

▲朴有玎씨(27·서울江南區方背洞316의33·상업)=지난달31일 5백만원이든핸드백을주워관할파출소에신고.

▲金幸珍씨(31·서울冠岳區舍堂2洞山12·상업)=지난달31일 5백9만원이든 핸드백을 날치기해 도주하던 범인2명을 추격 검거.

李滋씨등에 훈장
싱글러브將軍 敍勳

全斗煥 대통령은 11일상오 청와대에서 李滋 전 헌법위원회위원장과 文鴻柱 전헌법위원에게 국민훈장 無窮花章을, 全聖在 전 헌법위원에게 靑條勤政훈장을 각각주었다.

全대통령은 11일하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싱글러브 前駐韓美8軍참모장을 접견하고 修交훈장 興仁章을 수여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세인트·빈센트國의 케이트수상내외로부터 고별예방을받았다.

外相會談 難航예상
요미우리 신문

【東京11日=聯合】한·일양국은 오는20일 도오꾜(東京)에서 열리는 외상회담에서 양국간의 최대의 초점인 북괴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경제협력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차이를 보여 난항을 벌이게 될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2면톱기사로 보도했다.

이신문은 한국측이 북괴위협에 대한 한·일간의 인식일치를 중시, 외상회담에서도 한국이 미국과 일본방위의 요새라는 점에서 한·미·일간의 협력강화를 요구했다.

民韓도 後援會구성
定期國會이전 募金적으면 配分받아

民正黨이 오는20일 결성을 목표로 이미 5백명의 法人과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후원회 人選작업에 착수한 데이어 民韓黨이 11일 독자적인 후원회 결성계획을 발표하고 뒤이어 국민당과 타정당에서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論難의 대상이 되어온 각당의 후원회구성은 本格化되고 있다.

각정당은 우선 독자적인후원회를 추진하되 모금실적이 각정당에 현격한 차이가 날경우 [illegible] 民正黨이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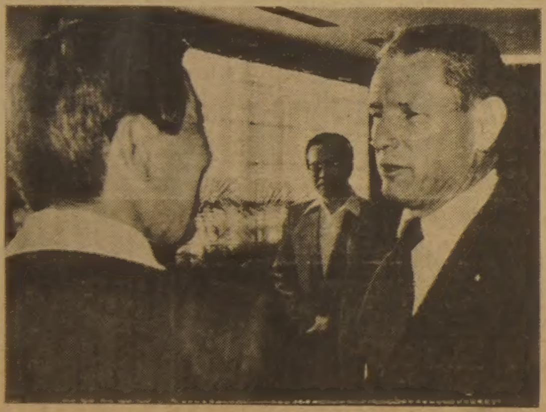
[illegible]

辛총장은 이어 정당후원회 구성문제와 관련, 『10일밤 權正達 民正黨사무총장과 만난자리에서 정당별 후원회구성에 [illegible]』

韓民統 접촉不認
日외무성 참사관

【東京11日=聯合】일본외무성은 일본내 반한단체인 한민통과의 회견및 공적접촉을 앞으로 무조건 인정하지 않을것이라고 10일 와따나베(渡邊) 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이 밝혔다.

와따나베 참사관은 이날 金大中구출운동과 관련, 성을 방문한 사회당의 가와까미(河上民雄)국제국장이 한민통 간부들과 만날것을 요청한데 대해 한민통이 한국정부로부터 反국가단체로 규정된 단체임을 들어 이같은외무성의 방침을 밝혔다.



◇周국방-싱글러브 安保의견 교환

방한중인 前유엔군참모장 존·K·싱글러브 예비역소장이 11일상오 周永福국방부장관을예방,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안보정세에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鳳凰大旗 고교野球

오늘의 對陣 (12일)

▲2회전
▲清州高—城南高 (10시)
▲木浦商—培明高 (12시반)
▲信一高—光州一 (3시)

어제의 戰績 (11일)

▲1회전

팀	1	2	3	4	5	6	7	8	9	계
서울高	1	0	0	0	0	2	0	0	0	3
聖光高	0	0	0	0	0	0	0	6	X	6
仁川體	0	0	0	0	0	0	0	2		2
沖岩高	1	2	3	1	0	0	0	2		9

〈8회 콜드게임〉

▲2회전

팀	1	2	3	4	5	6	7	8	9	계
大光高	0	0	0	0	0	0	1	0	1	2
光州商	0	0	0	3	0	0	0	0	X	3

한독약품 협찬

社會漫評

"後援會員 모집이요…모집!"

地平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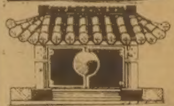
영국 BBC방송에 시팩스(CEEFAX)시제도라는것이있다. 시팩스는 텔레비전에 붙인 특별한 부속장치로 날씨예보나 교통정보를 정해진 뉴스시간이 아닌 아무시간에라도 버튼만 누르면 TV화면으로 볼수있는 것이다.▼런던과 뉴욕의 주식동향, 야구경기, 영화안내등 필요로하는 모든정보를 알고싶으면 그때마다 불러볼수있는것이 시팩스다. BBC의 통상 TV프로그램의 전파로 흘러나온 뉴스를 시팩스디코더(전환기)가 기억하고 화면에 문자로 보여주는것이다.시청자가 버튼을 누르고 자기가 필요로하는 뉴스를 고르면 그것이 곧 TV화면에 나온다. 아침에 출근할때 그날의 증권시세를 알려면 그시간과 뉴스종류의 번호만 눌러두면 된다. 집에돌아와서 TV 컴퓨터에 기억된 정보를 딴 화면을 즐기면서 볼수 있는것이다. 말하자면 비디오에 多重방송기술을 보탰다고 얘기할수있다.귀가 번 사람도 자막만으로 정보를 알수있고 집에 사람이 없어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있다.▼일본의 캡틴즈는 시팩스와 달라 계약을 하고 전화로 호출하면 유선회로로 필요한정보를 와변에 비쳐준다. 여러 종류의 데이터통신을 텔리텍스트시스팀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엔 클로즈드·캡셔닝·서비스, 터치톤·텔리텍스트시스팀, 인텔텍스트가 있고 서독엔 비데오텍스트, 프랑스엔 안티오프디돈, 영국엔 시팩스와 오라클, 스웨덴엔 텍스트텔리비전, 일본엔 캡틴즈등이 알려져있다.▼한데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데이터통신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체신부는 미국, 프랑스, 일본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데이터통신망을 구성할 계획으로 내년안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니 듣기만해도 찢인가 새로운 시대가오는것 같다. 일기예보나 농산물가격동향은 벌써 서울에서도 정해진 전화번호를 돌리기만하면 녹음으로 그내용을 들을수있지만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TV화면으로 볼수있고 학습도 TV화면으로 할수있는것이 데이터통신이다.▼막대한비용이필요한 관계로 일반가정에까지 보급되려면 80년대후반기에 가서나 가능하겠지만 은행의 온라인, 항공좌석예약서비스같은 초보적인 데이터통신은 국내에서도 이미 일부기업체에서 실용화되어있다. 살기편한세상, 재미나는 사회가 데이터뱅크로 더빨리 온다는 소식이니 기쁠수밖에 없다.

구독신청은
(416)
533 - 2361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10
은 : 온스당 US 9.3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일
669－5784
MR. 심

KIM'S미용실

●정확한 헤어·컬
●우아한 퍼머먼트
●감각적인 컽팅
8월15일부터 1주일간은 내부를 수리합니다.
그리고, 수리기간중 손님들에게 보다나은
써비스를 위해, 미국 헐리우드에서
열리는 퍼머먼트및 헤어·컬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오니 앞으로 더욱 저희
미용실을 애용해 주십시요.
영업시간 : 오전9시～오후8시
(화, 일요일은 문 닫음)
☎ 532-7094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창헌

◇韓·日外相의 對坐 지난3월초 全대통령취임식에 경축사절로 來韓한 이또(伊東)外相이盧信永외무와 만났다. 이 회담에 前例없는 通譯이 등장한것은 韓·日간의 氣流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인것이었다.

韓日관계 새轉換期

分野別로 살펴본 두나라의 오늘 <6>

外交

職制비슷…經濟외교에 力點

숙명같은「磁性의 論理」지녀

올해엔 처음으로 공식적인 頂上會談계획

외무부職制를 보면 日本외무성과 흡사한 구석이 많다. 세계전역을 5개 地域局으로 나눈것부터, 局長밑에 副이사관級의 審議官제도를 둔것은 …

물론 각地域課를 총괄하는 總括課를 설치한것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대목이 너무도 많다. 기능면에서도 마찬가지다. 對美외교를 외교의 軸으로 삼고 通商·資源확대를 보완으로 하는 經濟외교에 韓日두나라 모두가 역점을 두고있다. 對아세안외교도 마찬가지다. 지난6월 全斗煥대통령이 순방한 아세안코스는 4년마다 바뀌는 일본수상이 就…

…「磁性의 論理」에 비유하는 외교관도 더러있다. 두개의 磁石은 서로 다른 極끼리 부닥칠때 끌어당긴다. 같은 직제, 같은 기능끼리 부닥치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磁性의 논리—韓日관계의 일각을 보는 …

【政治部·金勝雄기자】

美의中性子彈, 韓半島서도 효과적 沮止力시사

이미·彈頭生產착수

유럽配置계획 없어

蘇등, 對美비난격렬

核擴散위험 警告

◇會見하는 와인버거 美國防

美, 케네디등 東部지역 6개空港

유럽行비행 잠정中止

◇발묶인 加의 美國行여객들 캐나다의 항공관제사들이 파업중인 美國관제사들을 지지, 10일美國行여객기에대한 업무를 보이코트함에 따라 공항에서 발이묶인 美國行여객들이 대합실에서 무료히 기다리고있다. 【몬트리올10日UPI電送=聯合】

加의 航空管制거부로

一部는 復歸…5개空港 운항再開

【워싱턴10日AP=聯】미항공관제사기구(PATCO)소속 관제사들의 파업이 10일째 계속되고있는가운데 10일 2천2백명의 캐나다 관제사들은 미국·유럽간 대서양노선의 항공관제를 거부키로결정했으며 미연방항공국(FAA)은 뉴욕의 케네디공항등 동부의 6개공항으로부터의 모든 유럽行비행을 잠정적으로 중지키로 결정했다고 FAA대변인이 밝혔다.

이대변인은 캐나다의 …관제사들이 미국으로 오가는항공기의 관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

이에따라 FAA는 미동부연안에있는 뉴욕의 케네디, 워싱턴의 덜레스, 시카고의 오헤어, 보스턴의 로갠및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등 6개 주요공항에서의 모든 유럽行비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며 취소한것은 아니라고 이대변인은 밝혔다.

새大西洋항로 開設

美聯邦航空局, 비행 12時間지연

【워싱턴11日聯=聯】미연방항공국(FAA)은 캐나다 관제사들의 미국항공기 관제거부로 북대서양 항로가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캐나다 뉴펀들랜드주 갠더항공관 …

蘇, 中性子彈 이미實驗

에르뉘佛國防相 "東西무기경쟁 加速化"

【파리10日AP·聯=聯】소련은 대량살상용 핵무기인 중성자탄의 실험을 이미 실시했으며 이같은 무기로 앞으로 동서간의 무기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샤를·에르뉘 프랑스국방상이 10일 말했다.

에르뉘국방상은 이날 레이건 대통령의 중성자탄생산결정에 관해 논평하면서 소련은 현재 중성자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련이 이 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

메아리

河回 別神굿

波, 街頭시위 不容

야루젤스키首相

美對埃 대규모軍援

5년간 F16機 150대供給 합의

海外토픽

外4寸16명에 절반

이란政府 赦免제의 사드르등

나토, 合同機動훈련 來5일부터 北海서

"蘇聯과의 核戰爭발생하면 美國民 1억5천만명死亡"

잭·앤더슨主張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전30권)

교민에게 특별판매

● 교회, 학교, 단체등엔 특별할인
●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 모국의 동생, 스승, 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 745-5485 미세스 황

직원모집

지난 5월 확장 이전하고 6월1일부터 캐나다 교민사상 최초로 일간을 발행하고 있는 본 <한국일보>사는 업무량의 격증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 자 : 기자 경험자 또는 기자로 훈련받고 싶은 분. 외부취재 사진촬영 번역. 편집등을 원하시는 분.
업무사원 : 전화응답, 자료정리등 총무부 근무
발송사원 : 신문에 주소찍기, 우편국 발송, 식품점 배달등
광 고 부 : 광고접수, 광고문 번역, 광고장부 정리, 디자인등

①성별, 연령에 대한 차별은 없읍니다.
②무자격자라도 근무를 희망하시면 일차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③희망자는 이력서 1통 지참,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④신문사 일은 항상 새롭고 도전적입니다. 쉴새 없이 머리를 써야하고, 시간을 다투는 일들입니다. 교포사회는 물론 캐나다사회를 최단시간내에 알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사귀게 되는 첩경입니다.

신문사의일의 특징은 활동적이며 진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발전을 원하는 진취적이며 건설적인 인재만이 적임자라 하겠읍니다.

1981년 8월 일

한국일보사

1025 DUPONT ST. (W. OF DOVERCOURT) (416) 533-23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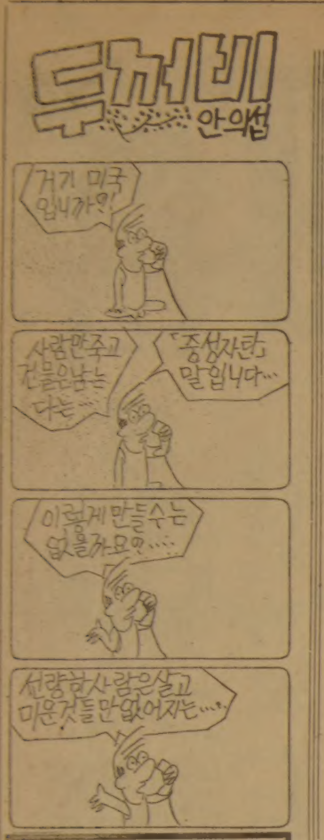
경북향우회(야유회)

본 향우회 에서는 아래와 같이 야유회를 갖고자 하오니 향우들은 가족동반 하시어 꼭 참석하여 하루를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때 : 1981년 8월22일(토) 오전 11시
곳 : ROWNTREE MILLS PARK (이스링톤×핀치), 핀치에서 1km북쪽좌회전
준비 : 본회에서 당일 점심및 음료일체를 준비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푸짐한 상품과 어른을 위한 TOUCH BALL, 말발굽던지기, 혼성배구게임이 있아오니 몸만 오십시요.

연락처 : 회장 745-1322
총무 742-8443

경북향우회 회장
— 안 수 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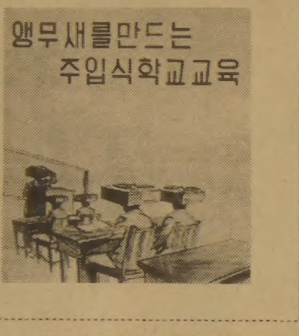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道德교육 注入式 벗어나야

慶熙大、道德수업·평가方法 심포지움

民主的태도·自律性 키우게 對話와 討議로 전환바람직

教育



전통적 가치체제의 급격한 약화로 가치혼란을 느끼고있는 요즘 도덕교육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으나 대학입시와 관련, 주입식교육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慶熙大교육대학원은 11일상오9시 중앙도서관에서 「우리나라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道德科 수업방법과 평가방법의개선점」이란 심포지엄을 갖고 지금까지의 주입식위주의 도덕교육을 분석하는한편 앞으로의 도덕교육의 방향을 모색했다.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 「도덕과 수업방법에 대한 예비적조사 연구」란 발표를한 鄭桂文교사(충남 燕岐郡 聖南中)는 도덕교육은 대화식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주장했다. 鄭교사는 聖南中·高학생 3백21명을 대상으로대화식과 주입식교육방법에 대한 반응도를 조사한결과 97.2%인 3백12명이 대화식방법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鄭교사는 대화식교육이 효과적이라는 한 방증으로 열차속의 좌석시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를 예로 들었다.

鄭교사의 조사에 의하면 대화식수업전에는 3백21명의 학생중 「좌석표란것이 있는 이상 자기자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가 46.7%, 「좌석표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연장자에게 양보해야 한다」가 34.3%, 「서로 교대하며 앉아야 한다」가 19%였다.

그러나 대화식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의견발표및 토론의 기회를 준 후의 반응은 「권리주장」이 9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장자에게 양보」는 3·7%, 「교대해 앉아가야 한다」는 2.2%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어느 대학생의 입장에서 본 도덕과 교육」이란 발표를한 朴思寶양(慶熙大師大2년)도 대화식교육방법을 지지했다.

기성사회는 「철이 들면 다 안다」는 식으로 자라나는 세대와의 대화의 문을 차단해 왔다고 주장한 朴양은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주장에도 뚜렷한 근거가 있을 경우 교사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를 평가해주는 사회가 되어야 성장해서 자기의견을 제대로 표현할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도덕과수업에 있어서의 대화식 수업방법의 장점」이란 발표를 통해 교사의 입장을 밝힌 鄭東和교사도 대화식수업이 민주적 생활태도와 자율성을 길러주고 문제의 분석및 해결력등을 키워주나 현재 거의 외면당하고있다고 안타까워했다. 鄭교사는 大田시내 중학교교사 5백20명을 대상으로 수업시 토의법의 적용여부를 조사해보니 단 8명만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慶熙大俞道鎭교수는 독일의 교육방법은 ①설명과정 ②자극과정 ③사실파악과정 ④핵심과정 ⑤인식과정 ⑥종합과정등 다섯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진다고 덧붙였다.

대화식수업방법의 우월성에 대해 교육심리학적 견지에서 접근을 시도한 黃應淵교수(梨大師大학장)는 도덕과도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계획→진단→지도→발전→평가의 다섯단계를거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黃교수는 특히 도덕의경우 교사의 지도단계가 어느교과보다도 중요하다고 들고 「교사와 학생, 학생상호간의 대화와 토의방법을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화방식이 자칫하면 감정이 개입, 입씨름에 그치는등 교과의 진도를 지나치게 늦추는등의 약점을지니고있으나 미국에서도 이방법을 채택, 효과를 얻고 있으므로 시도해 볼직하다고 권했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도덕과교육의 개선점」이란 종합발표를한 金鍾善교수(慶熙大교육대학원장)는 黃교수와 똑같이 대화방식이 주입식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화식수업을받은 학생이 주입식공부를한 학생보다 성적이 뒤진다고 하고 교과과정의 진도를 지나치게 지연시킨다는등의 비판론이 있지만 미국(1932~1940)과 延大의 金蘭洙교수의조사(61~62)에 의해서도 대화식방법이 주입식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金교수는 주장했다.

그러나 金교수는 대화식이 우월하다고해서 지금까지 적용해온 주입식을 급격히 추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한단계 한단계 변화를 주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炳日기자〉

나의 이력서 윤치영 ⑱

〈題字·尹致暎〉

東京「朝鮮YMCA」

2·8獨立선언 産室·유학생의 求心點

社交部長 일보며 英語聖經班 이끌어

東京유학시절 유학생학우회와 함께 유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조선기독청년회였다.

조선기독청년회는 福音의 장소에 그치지않고 많은 유학생들에게 제2의 學術場으로, 민족관을 심어준 연대의식의 交流處로, 동서문화의 交流 求心點로 기여했다. 또 기독청년회 회관은 2·8독립선언의 産室이기도 했다.

조선기독청년회(편의상 YMCA라고 부르자) 회관은 東京 神田區 小石川町에 있었다. 비록 자그마한 건물이긴 했으나 YMCA회관은 巨人의 구실을 했다.

우리는 수시로 회관에 가서 성경공부도 하고 목사들을 초청, 설교를 들었다. 연말연시에는 특별히 기독교전도설교가 있었으며 그때면 한해를 돌아보고 앞날을 위한 설계를 하곤 했다. 당시 東京의 조선인 교회엔 吳基善목사가 있었는데 그의 설교는 우리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다. 오기선목사는 문교 장관을 지낸 오천석박사의 부친이다.

YMCA는 사상강연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우리는 일본 각대학의 유력한 교수들을 초청, 그들의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이곤 했다. 사상강연은 우리에게 民族觀, 國家觀을 많이 자극시켜주었다.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준 인물로는 東京帝大와 早稲田大 정치학교수인 요시노(吉野)박사가 있었다. 그는 일본에서 최초로 民本主義를 제창한 학자였다. 軍國主義下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그의 매서운 강연은 퍽 인상적이었다.

진보적 사상가였던 早稲田大정치학교수 아베(安部)교수의 강연도 우리에게 큰 힘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 학자들은 일본의 한국植民통치에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고 우리를 동정했다.

반면 日帝의 식민통치를 옹호한 나가이(永井柳太)교수같은 인물도 있었다. 早稲田大정치학 교수인 그는 당대의 웅변가였으나 식민정책옹호론을 펴 우리에겐 증오의 대상이었다. 한번은 그의 강연이 끝난뒤 나는 정면에서 대들었다.

『문화의 전통을 보아라. 인종적으로도 우리가 우월하다. 너의나라에 있는 사이다마겐의 高麗村을 보아라. 마을, 다리, 시내이름등이 우리식 이름이며 우리민족의 正氣가 살아있다…』로 시작, 세찬 반박을 했다.

대학재학중 나는 YMCA에서 사교부장을 맡아 일했다. 그때 총무는 早稲田정치학과에 다니던 白南薰이, 간사는 역시 같은 과의 金낙영이 맡아 일했다.

같은 학교의 벗들로서 우리는 YMCA에서 주체적인 활약을 했다. 나는 또 YMCA의 영어성경반을 이끌었다. 당시 영어잡지로 아우트·루크(Out Look)란 잡지가 있었는데 난 영어성경공부시간에 그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 잡지는 지금의 타임이나 뉴스위크誌같은 거였다.

YMCA에서 열심히 활동을 한 인물중에는 2·8독립선언때 일선에서 활약한 金度演, 徐椿, 崔謹愚, 李琮根과 崔承萬, 朴承浩등이 있었다. 李琮根은 사학자인 李瑄根박사의 伯氏다. 崔承萬은 뒤에 YMCA총무를 지냈는데 YMCA에서일한 것이 인연이돼 나중에 朴承浩와 결혼했다.

◇東京의 조선기독청년회는 유학생들에게 학술, 사상, 문화의 交流場으로 기여했고 그 회관(사진)은 2·8독립선언의 産室이 되기도 했다.

YMCA시절 나는 영어를 배우러 미국인교회에도 다녔고 東京의 中國YMCA와도 연락, 친교를 맺고 있었다.

早稲田大3학년때쯤 일이다. 中國YMCA의 謝총무가 만나자고해 우리 YMCA와 같은 神田區에 있는 中國YMCA회관엘 갔다.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위에서 조카인 海華(尹滄善)와 꼭 닮은 청년이 내려오고 있었다. 눈을 의심했다. 中國 上海에서 독립운동을 하고있는 海華가 여기 나타날 리가 있는가.

그러나 그는 海華였다. 우리는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다. 海華는 變裝한 中國人이었다. 그는 독립운동자금을 東京을 통해 받아가기 위해서 왔던 것이다.

알고본즉 당시 中國 南京정부의 사법부장인 徐謙이 『이 사람이 내 조카인데 잘봐달라』는 내용의 中國대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海華에게 주어보냈다. 海華는 표면상 일본을 시찰하는 형식으로 왔다고했다.

海華는 숙소인 中國YMCA에서 묵고 나오던 길이었다.

海華는 그때 京都帝大에 다니던 그의 동생 滄善이를 통해 서울에서 보내준 자금을 가지고 갔다.

海華는 이때 東京에와 2月會를 조직해놓고 갔다. 2月會는 上海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한 비밀 結社였다. 2月會는 내가 주관을 했고 회원으로는 俞億兼, 金俊淵, 金度演, 白寬洙, 朴勝喆, 崔元淳등이 활약했다.

얼마전 海華가 찾아왔길래 그 시절의 일을 회고하고 한바탕 웃었다.

NHK 한국어放送 名稱안바꾼다 確約

訪韓 日의원밝혀

가스가·잇코(春日一幸)韓日의원연맹회장 代行과 함께 11일 내한한 나카무라·고까이(中村弘海)의원은 이날 방한 자리에서 『日韓 의원연맹이 NHK와 체신청에 NHK한국어강좌의 명칭을 「조선어」로 바꾸지 말도록 요청한 결과 NHK측으로부터 「조선어」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까무라의원은 지난 7월 야스이겐(安井謙)韓日의원연맹회장과 함께 訪韓했을때 『日韓의원연맹사무국이 체신청 NHK등 관계기관에 NHK의 한국어강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줄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밝혔었다.

한국은 重工業국가 發展본보기로 例示

세계은행報告書

【워싱턴10日=吉澤燦특파원】 한국은 80년도에 산업구조의 재조정을 통해 외자균형을개선하는 일련의조치를 취했다고 10일 세계은행(IBRD)이 발표한「세계발전보고서 81년」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는 80년에 환율을 조정하고 일련의 수출진흥책을 통해 수출작업을 유지하게 조절하여 수출증대를 위한 신용증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준공업국가간에서 한국을 발전의 중요한 본보기로 들어 지적했다.

1백92페이지에 이르는 이보고서는 아시아에서 한국을 싱가포르, 필리핀, 대만, 홍콩과 함께 수출지향공업국가로 구분했다.

앉은뱅이 女人 殺害犯은 아들

【大邱=聯】 大邱市南區大谷洞 앉은뱅이여인 金任順씨(50)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大邱남부경찰서는 11일 숨진 金씨의 아들 崔成童씨(21)가 사소한 시비끝에 우발적으로 자기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뒤 경찰에 강도 살인사건으로 위장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崔씨를 존속 살인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崔씨는 지난6일 새벽0시30분께 모기향문 관계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집을 나가라』는 얘기에 화가나 겁을 주기위해 부엌에있던 식칼을 들고 방으로들어가 金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다 식칼로 가슴등을 마구 찔러 살해한뒤 강도살인으로 위장했다는 것.

경찰은 崔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는한편 범행에 사용한 식칼을 증거품으로압수했다.

在日同胞 야구팀 文敎長官 예방

제11회 鳳凰大旗 고교야구대회에 출전중인 재일동포야구팀 15명이 11일상오 李奎浩문교부장관을 예방했다.(사진) 李문교는 이날 선수들에게 다과를 베풀고 1회전의 쾌승을 축하하는 한편 앞으로의 선전과 이기회에 조국을 잘 배우고 가라고 격려했다.

亞洲개발銀 부총재 南총리 禮訪, 환담

南悳祐국무총리는 11일상오 중앙청에서 訪韓중인 A·T·반바와테 아시아개발은행(ADB)부총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張吉山 (1628)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88)

『우리 수북 어미는 신실은 깊으나 영험이 깊지 않아 여염 아낙이 되었고, 내 이를 물려줄 신딸이 생기지 못하여 만신의 대가 끊겨 가는가 하였더니, 우리 몸주께서는 이렇게 큰 뜻으로 너를 보내어 잇게 하실줄을 미물인 내가 어찌 알았겠느냐. 원래가 박수란 몸주 받은 만신의 호위 시종이나 될게 마련이라 내가 섬긴 용녀이고, 구월산 산신님의 몸주 받은 두령이니라. 이 땅의 서편에서는 너보다 더 큰 성주를 모신 이가 없다.』

안무당은 다시 큰 숨을 몰아쉬었다.

길산이 더이상 말을하지못하게 막고 싶었으나, 언중에는 그가 헤아리지못할 깊고 간절한 뜻이 담긴듯하여 만류할수가 없었다. 길산은 고개를 숙여 침묵하고 앉았다. 방바닥만 내려다 볼뿐이었다.

『어머님의 무구를 잘 풀어 이 승에있는동안 아프고 병들고 맺힌 사람들을 어루만질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잡된 것들을 싸워 물리치겠어요. 이제 눈을 감으시면 황천을 건너…』

流星의 劍 <155>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山空花自紅 ⑤

『무슨 말인가』

홍성민이 이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귀문(貴門)의 사람일듯 한데 혹시 홍계남이란 이름을 아는가?』

『홍계남? 계남?』

홍성민은 이렇게 중얼거려 보곤 당황했다.

『모르겠는데』

『아직 젊은 사람이야. 안성 사람이지』

『안성엔 우리 일문이 있긴 하지. 그러나 우리완 파가 달라』

『그의 아버지를 자수라고 했지. 내가 옥당에 있을때 그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천거하려 했더니 거절하더군. 조정내의 분규가 목불인견(目不忍見)하다는 거야. 뿐만아니라 이 상태대로 가면 관도(官途)에 오르길 영영 단념하겠다는 말도 있었어. 더 이상 권할 수가 없었어. 남양홍씨의 뼈대가 있는걸 알았지』

『남양홍씨의 뼈대를 이제사 알았나?』

『뻐기지 말게. 더 이상 뻐기면 내게서 좋지못할 애기가 나올걸』

『그게 안타깝다는 애긴가』

『그 뿐만이 아니지. 세상의 도리가 안타까와. 내가 허통(許通)을 골골 주장했을때의 마음의 한구석엔 홍계남이 있었지. 그와 같은 인재를 썩이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세상에 계남과 같은 경우가 많을 것이 아닌가』

"아는 것이 힘"
소매상경영학 강좌안내

RSI RETAIL SERVICES INSTITUTE

〈캐나다 로스만·활말 주식회사〉는 고도의 경쟁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매상을 위한 무료 경영학강좌를 마련했읍니다.

동사의 소매상경영연구소(Retail Service Institute)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캐나다의 현존하는 소매상들을 위한 이익 개선책과 경영의 능률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강좌는 소매상 경영학 전문코스로서 각종 세미나와 같이 일주일 한번씩 5주~6주간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7백여명 소매상 경영주들이 거쳐간 이 강좌는 오는 9월초부터 새로 시작될 예정이며, 10명 정도의 조그만 경영학교실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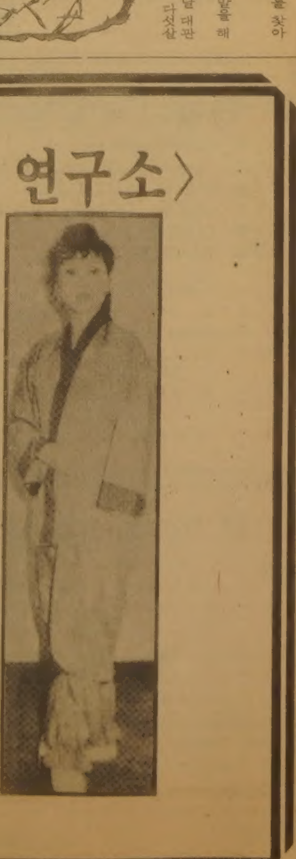
등록은 선착순이며 $25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종강후 되돌려드립니다.

이 강좌에서 쓰이는 모든 교재와 자료는 무료입니다. 한국인 통역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강좌입니다.

등록문의는 : 1500 DON MILLS, DON MILL, ONT.
전 화 : (416) 449-5525
THE RETAIL SERVICES INSTITUTE
MR. PETER TESAR

〈김미영 한국 민속무용 연구소〉

MI YOUNG KIM'S KOREAN FOLK DANCE INSTITUTE



경력 :
- 6세부터 부친 김윤학씨 사사
- 제1회 전국국교(이화여중·고 및 조선일보사 공동주최)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 제4회 전국중·고교 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이화여대 주최)
- 배화여중·고 동창회 주최 무용발표회 개최
- 김미영 무용발표회 수회 개최(한국예술극장, 전국)
- 무용연구소경영(서울돈암동 12년간)
- 일본및 유럽순회 공연
- 현 김미영 한국민속무용 연구소 경영

〈만5세 이상 남·녀 어린이 지도 합니다〉
201 VAN HORNE AVE. #509(Donmill × Finch)
499-5079

※고전무용에 필요한 무대장치및 소도구 제작에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1學年…聖光,서울高 격침

暴風의 8회말 大逆轉 6점탈취

冲岩、약체 仁川體에 콜드게임勝

6대3

鳳凰大旗 고교野球

光州商高가 제11회봉황대기전국고교야구대회의 2회전관문을 가장 먼저 돌파, 16강에 선착했다.

새로운 야구명문으로 이름을 굳혀가고있는 光州商은 11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2회전 첫경기서 4회말 孫文坤의 2타점 적시타를 비롯한 집중 4안타로 3득점, 승기를 잡고 우완 朴京柱의 역투로 大光高에 3-2로 신승했다.

이에 앞서 벌어진 1회전경기서 신생 大邱 聖光高는 1년생들의 패기넘친 반격으로 浦鐵工高에 이어 중앙무대 데뷔전서 또한차례의 역전드라머를펼쳤다.

聖光高는 3-0으로 뒤지던 8회말 吳永錫의 2타점적시타, 李律洛의 스퀴즈 번트로 동점을 만든후 2死만루서 터진 趙相憲의 주자일소 결승 2루타로 강적 서울高를 6-3으로 격파했다.

冲岩高는 7안타, 14四死球, 7도루를 모아 仁川體高에 9-2, 8회 콜드 게임승을 거두었다.

聖光高-서울高

1년생으로만 구성된 신생팀의 기개를 떨친 통쾌한 역전승이었다. 7회까지 서울에 3-0으로 압도당했던 聖光은 8회말 2개의 2루타를 포함한 4안타를 몰아쳐 대역전극을 펼쳤다.

선두2번 李錫洙가 중전안타로 포문을 열고 1사후 4번 崔一圭가 포볼을 골라1、2루의 찬스를 만들자 5번 吳永錫은 적시에 우월 2루타를 터뜨려 2점을만회했다. 6번 金永大는 메트볼, 7번 崔在涉은 내야안타로 살아나가 찬스는 1사만루로 계속되었다.

聖光은 8번 李律洛의 스퀴즈번트로 3-3의 동점을 만들고 9번 金炳翼의 포볼로 또다시 베이스를 가득 채웠다. 2사 만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聖光의 스타 1번 趙相憲은 첫스트라이크를 그대로 보낸후 崔政燮의 아웃 코스 높은 볼을 힘껏 밀어쳐 우중간에 통쾌한 3타점 결승 2루타를 날렸다.

초반은 서울高의 일방적인 리드였다. 1회초 선두1번 方德容의 좌월 2루타, 1사후3번 金鍾琅의 내야안타, 2사후5번 李錫敏의 우전적시타로 1점을 선제하고 6회초에는 7번 鄭泰俊의 2타점 좌월2루타로 2점을추가, 3-0으로 앞섰다.

冲岩高-仁川體

1회에 1점, 2회에 2점, 3회에 3점, 이닝수에 맞추듯 冲岩은 연습게임처럼 손쉽게 득점을쌓아 4회만에 7-0에 도달했다. 어떻게 콜드 게임패를 면하느냐는것이 仁川體의 과제.

7회초 공격에 나선 仁川體는 선두 4번 金民植이 冲岩유격수의 1루 악송구로 살아나가 5번 金周伯의 좌전안타로 무사1、2루의 찬스를 만들었다. 1사후 7번 安榮煥의 투수앞 내야안타로 2루주자 金이 3루를 돌아 홈까지 노렸으나 태그아웃. 그러나 8번 白基琅의 중전적시타로 仁川體는 2점을만회, 아슬아슬하게 한회를 연장시켰다.

冲岩은 8회말 5점차로따라붙은 仁川體에 5번 蔡道東의 우중월 2루타와 1포볼, 1적실로 2득점, 9-2로 8회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冲岩은 1회말 첫공격에서 메드볼로 나간 선두 1번 金昌植이 2、3루에 이어 홈까지 스틸, 간단히 1점을 선제하고 2회말에는 金昌植의 2타점 중전적시타로 2점, 3회말에는 4개의 四死球와 2안타를 묶어 3점을얻어 초반에 대세를 결정지었다. 仁川體의 세투수가 허용한 안타는 7개, 四死球는14개 였다.

◇아깝게 狹殺 仁川體高—冲岩高대전。3회초 1死후 仁川體의 3루주자 金光洙가 冲岩포수의 견제송구에 걸려 3루와 홈사이에서 협살되고있다。

光州商、3回戰에 선착

大光、9회 追擊허사 3-2

光州商-大光高

光州商은 2회말 2死후6번 孫文坤이 大光 2루수 실책으로 살아나가 2루에 스틸, 7번 鄭榮民의 중전적시타로 3루를 돌아 홈까지 달렸으나 大光 유격수 金大植의 호송구로 분사했다.

이후 양팀 모두 찬스를 잡지 못하고 4회초까지 팽팽한 투수전을 벌였다. 4회말 양팀의 균형이 깨졌다.

光州商의 선두2번 金元이 우전안타를 날리고 3번柳佑錫이 유격수앞 땅볼을 때려 金을 아웃시켰으나 대신 2루에 스틸, 찬스를 살렸다.

4번 張彩根이 포볼을 고르고 5번 朴聲鉉이 중전적시타를 때려 1점을선제, 계속된 1死2、3루의 찬스서 6번 孫文坤이 중전2타점적시타를 날려 소나기3안타로 3-0의 리드를 잡았다.

우완 朴京柱의 위협적인 커브로 大光의 추격을 막았던 光州商은 종반 잇달아 큰 고비를 맞았다. 大光은 7회초 선두 2번 金光龍이 내야안타, 후속 땅볼로 2進, 1死후 4번趙一植의 좌전적시타로 홈인, 1점을 만회했으며 9회초 2사후 또다시 趙一植이 포볼을 고르고 5번 金成喆, 6번 대타 尹慶錫의 연속안타로 1점을추가 3-2로 추격.

그러나 3루까지달리던 1루주자 金成喆이 光州商중견수 柳佑錫의호송구에 3루수에걸려 역전의꿈이 깨졌다.

◇제6일전적

▲1회전

서울고	100	000	200	3
성광고	000	000	06×	6

▲서울 투수=崔政燮 포수=方德容 ▲성광투수=吳永錫(1·8회) 金炳翼(6회) 포수=崔在涉

인천체고	000	000	020	2
충암고	123	100	02×	9

〈8회콜드게임〉

▲인천투수=金希坤·張文伯(3회) 白基琅(3회) 포수=金光秀 ▲충암투수=蔡道東·李浩斗(4회) 포수=李東勳

◇2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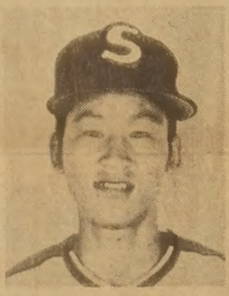
대광고	000	000	101	2
광주상	000	300	00×	3

▲대광투수=金照植 포수=朴萬隆 ▲광주상투수=朴京柱 포수=張彩根

鳳凰스타

中學야구의 最强者 관록 聖光高 선두打者 趙相憲

『투 아웃 만루여서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그렇지만 꼭 쳐야겠다고 마음을 다져 먹었지요』 聖光의 수훈선수 趙相憲은 상기된 얼굴로 결승타의 순간을 말했다. 지난해 문교부 장관기와 대통령기를 석권, 중학야구의 최강으로 군림했던 大邱中의 주전 유격수이자 선두타자였다. 드래프트에 의해 聖光高진학이 결정돼 하기초에 무척 낙심했었지만 구성된 신생聖光高의 선두타자겸 유격수로 대선수의 꿈을 키우고있다.



趙는 『서울高와의 1회전은 해볼만하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붙어보니 서울高 반발이가 대단했읍니다』라고 말했다.

聖光高는 금년 공식대회서 3승1무9패를 기록했으나 趙는 꾸준히 3할대의 타격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光州서 열린 대통령기 중학야구서는 홈런상을 받았었다.

1m70, 62kg. 趙鍾福씨(48)의 3남2녀중 차남.

鳳凰관람석

在日同胞 打力은 놀라와 大器될 捕手들 많이있다

1회전 17게임을 보고 韓乙龍(建國大감독)

지역예선을 거치지않고 참가할수있는 봉황대기대회에는 전혀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지않았던 인재들이 중앙 무대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때가 가끔 있었다. 이번 11회 봉황기 대회에도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고있다. 1회전 17게임을통해 갑작스럽게 두각을 나타낸 선수는 全州高 투수 金大鉉과 木浦商 포수 陳鉉이다. 대부분의 대학팀들이 이미 스카우트를 끝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들군은 이번대회 출전을 계기로 대학팀들로부터 주목을 끌것같다. 특히 陳군은 포수로서 대성할 가능성이 엿보이며 타자로서도 크게 성장할것같다.

창단 1년이 채안되는신생 浦鐵工과 大邱聖光高 德壽商高도 자유출전의 대회 특전을 살려 성과를 올렸다.

浦鐵工이 전통과 실력을 갖춘 東大門商에, 聖光이 서울高에 각각 역전승을거둔것은 고교야구에서 패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입증한 본보기인 동시에 의외성이 많은 야구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수있다.

특히 浦鐵工은 스타감독 劉白中씨를 사령탑으로 초빙할때부터 劉감독의 유명도 때문에 팬들로 부터 주목을 끌었는데 이번대회 1회전서의 역전승리로 더욱 성가가 커졌다. 전원1년생들로 구성된 양팀이 이같은 성적을 올린것은 지난해 慶北道교위가 마련한 드래프트에 의한 선수선발제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

자유경쟁으로 중학선수들이 일부고교팀에 몰려갔을 경우 이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浦鐵工과 聖光이 1회전을 통과했지만 상위성적을 낼수있다고 속단할수는 없다.

다만 신생팀으로서 수많은 관중앞에서 서울운동장을 밟은 이들이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정신력과 도전적자세만을 높이 평가하고싶다.

우승까지도 바라볼수 있었던 慶南高가 善隣商에참패한것과 東大門商, 서울高 등의 초반탈락은 1회전서 일어난 「의외의패배」였다.

또한 작년3위팀 大邱商이 善成高에 5-4 역전패한것도 이변이었지만 봄시즌 대회에 비해 의외의 결과는 줄어들었다고 할수 있으나 경기센스나 게임소화능력이 봉황대기에 이르러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팀들이 제페이스를 유지하고있다고 할수있다.

이번 대회서는 대형투수나 이른바 홈런타자가 잘 눈에띄지 않는대신 포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있다. 포수들의 수준이 역대대회때보다 높다는것이 이번대회의 큰특징으로 꼽을수있다. 투수나 타자에비해 활약상이 두드러지지않는 포지션이기는하나 이번 대회의 각팀 포수들은 저마다 스타로자랄 소질을 갖고있다.

우승후보로 높이 평가되고있는 大邱商 光州一高는 京東高와 東山高의 파이팅에 의외로 고전했다. 특히 大邱商은 대봉기대회서 창단이후 첫우승을 거두었지만 투수진이 안정돼있지못했다.

지난해 봉황대회 在日동포팀은 이번대회 1회전서 놀라운 타력을 과시, 국내팀들에게 상당한 자극을주었다. 앞으로펼쳐질 2회전서 더욱많은 파란과 이변이 예상된다.

柳斗烈 2루타로 打線에 점화

8회말 大攻勢…日本꺾어 2-0

大陸間컵野球

【에드먼턴(캐나다)=聯合】한국 야구대표 팀은 11일 상오 에드먼턴에서 벌어진 제5회 대륙간컵 야구대회 4차전에서 8회말 柳斗烈의 적시 2루타등 집중3안타로 日本을 2-0으로 제압했다. 8개팀의 예선 풀·리그에서 주최국 캐나다는 예상을뒤엎고 쿠바를 2-1로 격파, 이날 현재 美國이 3승으로 선두를, 한국과 캐나다가 3승1패로 공동2위를 달리고있으며 쿠바는 2승1패를 마크하고있다.

1위 美、한국은 加와함께 공동2위

黃圭奉과 히구찌의 팽팽한 투수전으로 전개된 이날경기서 한국은 8회말 선두 3번 金在博의 기습번트와 4번 吳大錫의 보내기번트, 5번 張孝祚의 경원四球로 1死1·2루의 찬스를 만든후 6번 柳斗烈의 좌중월 2루타와, 2死후 7번 金貞洙의 좌전안타로 결승2점을 올렸다.

선발 黃圭奉은 5안타, 계투한 李善熙는 2안타로 日本을 완봉했다.

◇제4차전

일본	000	000	000	0
한국	000	000	02×	2

◇중간전적(11일상오현재)

①美國	3승
②韓國	3승1패
②캐나다	3승1패
④쿠바	2승1패
⑤도미니카	2승2패
⑥日本	1승3패
⑥濠洲	1승3패
⑧파나마	4패

選手團 12명 확정

세계 自由型레슬링

대한레슬링협회는 81년도 세계자유형 레슬링선수권대회(9월11~14일·유고·스콥제)에 출전할 한국선수단12명(임원6·선수6)을 확정했다.

81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 은메달리스트 柳寅卓(任公)등 유니버시아드대표 4명에 주니어대표 安勝文(한체대)과 李正根(한체대)이 보강된 한국선수단은 9월5일출국한다.

◆한국대표팀

▲단장=梁勇治 ▲감독=安昌文 ▲코치=金益鐘 ▲주무=鄭奎渲 ▲회의대표=金泰信 ▲국제심판=金榮吉 ▲선수=孫甲道(동아대) 柳寅卓 金義坤(이상 주공) 安勝文 李正根(이상 한체대) 高鎭源(육군)

永登浦工·鶴城高·安養工 4強대결 先着

추계 中高축구

永登浦工, 鶴城高, 安養工高가 4강전에 선착했다.

鶴城高(울산)는 11일 議政府 공설운동장서 벌어진 추계 전국 중고 축구연맹전 고등부 준준 결승전에서 신예 慶州商과 격전끝에 3-1로 승리, 4강전에 진출했다.

지난해 우승팀인 永登浦工은 전반 락판에 趙壽珍과 洪昌吉이 연속 골을 터뜨려 漢陽工에 2-0으로 이겼다.

◇준준결승

학성고	3 (2-1, 1-0) 1	경주상고
영등포공고	2 (2-0, 0-0) 0	한양공고
안양공고	1 (1-0, 0-0) 0	우신고

서울 國際주니어陸上 심볼마크 制定

대한육상경기연맹(회장 張翼龍)은 오는15일 개막되는 81년도 서울국제주니어 오픈 육상대회 심볼·마크를 제정했다.

심볼·마크는 개최장소의 서울의머리글자S와육상경기장트랙을조화시켜만들었다.

SEOUL JUNIOR OPEN 1981

◇심볼마크

20일부터 壯士씨름

대한씨름협회는 제11회 장사씨름 전국장사및 학생씨름대회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仁川실내체육관에서 갖기로 했다。

車律、國家代表은퇴 펜싱界의 1人者

국내펜싱계의 1인자인 재일동포출신의 車律선수가 지난7월의 루마니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을 끝으로 만 3년간의 국가대표생활을 청산하고 日本으로돌아갔다。

한국일보 詩壇

물소리·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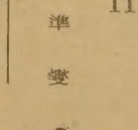
李準燮

빈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나도 하나 빛이 되어
흐르는 물소리로 계속 흘러가노니
수없는 아픔들이 모여
반짝이고 있구나。

아픔이 잎이 되어
반짝이고 있구나
쉼없이 몸 뒤채며
종소리로 울릴 때、

바쁘게
하늘을 複寫해
잡혀주는
네 絶望들。

무수히 죽어 쓰러진
수평선 꿈 다시 서고
푸른 잎 물결마다
魂의 눈물 싣고 와서
머나 먼
산봉우리 애절
되뇌이고 있구나。



김용순무용연구소

동 부(SCARBOROUGH)
장소 : 한인회관대강당(20 MOBILE DR.)
시간 : 수요일 : 5시~7시30분
토요일 : 10시30분~3시까지
서 부 (MISSISSAUGA)
장소 : Burnhamthorpe Community Center Lounge "C"(1500 Gulleden Dr.) (Burnhamthorpe & Dixie)
시간 : 금 : 6시~7시30, 7시30~9시까지
중 부(DOWN TOWN)
장소 : Western Y. M. C. A(15 Robina Ave (on St. Clair)
시간 : 화 : 5시~6시30분 학생반
7시~8 : 30분 주부특별교실
문의전화 : 751-8891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객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 MEADOWGLEN PLACE # 202A, SCARB. ONT M1G 2V6
☎ (B)438-6440 (R)439-1330

"차를 도매가격으로 살수 있읍니다"

무슨차든지 주문을 주시면 DEALER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살수 있읍니다.
ADDISON(G·M) DEALER
ELGIN(FORD) DEALER
ONTARIO크라이슬러 에서
차를 보시고 PICK UP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 : 362-3592로 연락 바랍니다.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 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정렬. 김선남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입)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엑기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745-2058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럴병원근처)
☎ : 439-6717 김남집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제2태창호 선원17명이 기자회견을갖고 「8개월간의 지옥같은 세뇌교육」의 경험들을 폭로했다. 【仁川=鄭在斗기자찍음】

女子들이 소대식 쟁기끈다

金日成父子에 不滿팽배… 민심離反 증거

沙里院、海州등지에 拉北어부 收容所

濟州道등 美·日基地化 허위會見강요

【仁川=申鉉錫기자】북한억류 8개월만에 귀환한 제2太昌號 선원 17명이 11일상오10시 仁川항운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沙里院·海州·元山등지에 「국제여관」「3·8여관」등의 이름을 가진 어부수용소가 있어서 납북어부들에대한 전문적인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水協중앙회 경기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太昌號 사무장 高成國씨(32)는 「8개월간 金日成사상교육과 金日成·金正日부자의 찬양노래…」

養老保險 가입이 늘어난다

작년보다 22% 生保·教保중심 패턴 變化

생명보험가입형태가 바뀌어지고있다. 생명보험은 지금까지 저축성이 가미된교육보험등 생존보험이 주종을이루었으나 최근들어 노후생활을 대비하기위한 養老保險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개인보험수입보험료 2천8백2억원중 양로보험이 68·2%인 1천9백10억원을 차지, 전년동기중의 56·3%에 비해 그비중이 크게 높아진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보유계약금액중 양로보험의 비중이높아져 지난 6월말 현재 개인보험 총보유계약금액 13조2천2백29억원중 양로보험이 6조2천2백93억원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 전년동기중의 42·7%에 비해 4·4%포인트나 증가됐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고 있는데 가입건수도 지난6월말현재 1백61만7천2백5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2·7%나 늘어나 교육보험등 생존보험의 증가율 5·8%에 비해 급증하고있다. 보장성보험인양로보험이 이같이 늘어나고있는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核家族화와 함께 가입자들이 노후생활을 자녀들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줄어들고 있는 때문으로 분석되고있다.

食品시장 外國商社진출急增

合作형식…신제품개발 경쟁加熱

국내 식품시장에 합작형식을 통한 외국유명식품 업체들의 진출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이런가운데 신제품개발 경쟁이 이들 업체들의 상품화를 계기로 더욱 가열, 선후발업체간의 판매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어촌개발공사와 스위스의 네슬社가 합작으로 설립한 韓西食品은 유아식 쎄레락을 생산, 市販에 들어갔다.

味元과 美CPC 인터내셔널社가 50대50비율로세운 韓國크노르는 마요네즈를 市販중에 있다.

이회사는 콘소메(국물에 넣는 양념류)등 각종 인스턴트식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釜山등 9大都市 물가

서울보다 오히려 비싸다

◇도시별 주요상품 소매가격 (81년 7월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주	춘천	청주
일반미 (8kg)	6,804	6,758	6,824	6,672	6,784	6,778	6,401	6,699	6,579
보리쌀 (10ℓ)	2,500	2,333	3,000	2,550	2,550	2,750	2,350	2,667	2,700
콩 (〃)	7,250	7,889	7,833	7,500	7,000	7,200	6,583	6,500	6,767
돼지고기 (600g)	2,400	2,550	2,500	2,367	2,333	2,200	2,300	2,200	2,233
쇠고기 (〃)	4,133	4,050	4,200	4,200	4,000	3,900	3,900	3,900	3,900
북어 (40cm)	317	450	500	350	350	383	380	400	375
마른멸치 (375g)	1,633	2,167	1,845	1,500	1,667	2,000	1,800	1,667	1,500
달걀 (10개)	482	421	416	445	492	417	407	477	500
김 (10장)	450	483	517	450	500	483	525	500	500
콩나물 (375g)	155	200	183	200	250	170	175	200	150
고추 (600〃)	2,367	1,989	2,133	2,453	2,067	2,383	2,083	2,283	1,467
참기름 (0.18ℓ)	2,417	2,467	2,067	2,250	2,250	3,000	2,400	2,500	2,350
소금 (2〃)	490	511	556	500	600	600	515	500	600
간장 (0.9〃)	423	420	407	380	400	433	430	427	427
두부 ([illegible])	100	128	160	90	167	156	150	100	120
소주 (360ml)	287	300	280	320	300	300	300	350	290
사이다 (340〃)	224	240	227	250	230	250	230	250	230
연탄 (10g)	1,380	1,465	1,410	1,410	1,410	1,420	1,410	1,420	1,415
러닝셔츠 (1장)	868	95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치약 (100g)	305	300	300	350	350	320	350	300	350
여자흰고무신	1,275	1,000	1,033	1,000	1,000	1,000	1,000	850	1,200
선풍기 (14인치)	34,600	34,000	34,600	30,000	33,000	33,500	33,000	34,600	34,600

콩·豚肉 釜山이 가장 앞서

大邱는 일반米·선풍기등

光州·春川 肉類싼편

企劃院 7월중 小賣價조사

釜山 大邱등 직할시급 대도시 물가가 서울수준을 웃돈다. 이들지역의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생각처럼 서울물가가 제일높지는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기획원통계국이 소비자 물가지수작성을 위해 조사한 지난 7월한달동안 서울·釜山·大邱·仁川·大田·光州·全州·春川·淸州등 9대도시의 주요상품 소매값을 보면 주부식·의복·음료수등 22개 주요생필품 가운데 북어·김·소금·사이다·연탄·러닝셔츠외 6개품목 소매가격이 서울에서 가장 낮게 형성된것으로 나타났다. 9대도시중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상품은 여자고무신 1개품목에 불과한것으로 조사됐다.

설탕값(都賣) 최저時勢

3kg짜리2천9백원 판매량도 예년60~70%

설탕 도매가격이 여름철성수기를 맞고도 올들어 최저시세를 보이고있다.

11일 관련상가에 따르면 흰설탕 15kg짜리 도매가격이 1만4천5백원에서 1만4천원으로 5백원이 하락했고 3kg짜리는 3천원에서 2천9백원으로 1백원이 떨어져 올들어 바닥세를 나타냈다.

현재 설탕의 실제가격은 흰설탕 15kg짜리는 정상도매가격에서 1백27원50전이 각각밑돌고있다.

설탕은 지난 6월17일자로 공장도 가격이 12·5%인하된후 거래단계의 판매가격이 계속약세를 보여왔는데 피서등으로 매기가위축돼 현재의 판매량은 예년의 60~70%수준에 머물러있다.

中古자동차去來 활기

포니78~79년型 80~2백80만원線

중고자동차 거래가 활기를 띠고있는 가운데 값도 오름세를 보이고있다.

11일 중고자동차시장에 따르면 포니 78, 79년형은 지난6월보다 대당 5~10만원이 올라 최저 80만원에서 최고2백8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브리사I 79, 80년형도 3~5만원이 올라 최저 70만원, 최고 1백60만원까지 시세가 형성되고있다.

농가家電 제품수요 작년보다 39% 늘어

농가에서 가전제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農協조사에의하면 지난상반기중 農協연쇄점을통해 판매된 냉장고 TV수상기 선풍기 전기…

햇蔘 出荷期맞아 人蔘값 크게내려

햇삼 출하기가 다가오면서 人蔘값이 크게떨어지고있다. 11일 관련상가에 따르면…

본社 취재·寫眞 2부문受賞

13회한국記者賞

任哲淳기자 「심장병어린이」를 報道

崔東完기자 「4大江 오염」사진 告發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416)533-2361

◇사진보도부문수상작 崔東完기자의 「오염된 琴湖江」。

김 북어등 대량放出키로

수산청 秋夕맞아 25일부터

수산청은 다가오는 秋夕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오는25일부터 9월15일까지 22일간 김·북어·조기·명태등 5개주요수산물을 대량방출키로 했다.

11일 수산청에 따르면 이기간중 정부비축물량과 민간보유비축물량은 김1백47만속, 북어 4천속, 조기 1천5백18톤, 명태 9천3백50톤을 수협공판장과 직매장을통해 방출키로했다.

出版풍토 改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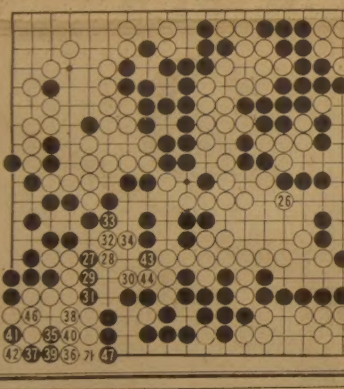
전국出版人 2천여명、결의문

전국 출판인 2천여명은 11일상오10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출판질서확립촉진대회를 갖고 새 문화정책의 효과적인 실천을위해 출판풍토를 개선하는데 앞장설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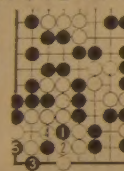
제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4局 第12譜 226~248 (각5시간 덤5집반)

白(名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黑、痛恨의 敗着



【一凡】

독립유공 白汝範씨

독립유공자白汝範씨(사진)가 10일상오8시 서울江南區大峙洞 銀馬아파트29동207호 자택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78세. 발인12일 상오9시. 장지는 경기抱川郡靑山面 長潭里공원묘지.

외무부, 美大使館에

舊여권無効로 美 非移民비자 所持여행자

새旅券 查證 유효 요청

외무부는 11일현재 유효한 미국非移民사증(비자)을가진 미국여행자에대해서는 새여권법발효에 따라 舊여권이 무효가됐더라도 새로 발급받는 여권에 査證의有效를 인정받을수있도록 駐韓美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외무부는 또 査證移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舊여권과 새여권을 함께 휴대, 출국할수 있도록 조치했다.

외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無効化된 여권에 기재된有効한 査證을 계속 이용할수있다」고 명시돼있는 미국이민査證규정을 활용하기위한 것이다.

외무부의 이번조치는 그러나 舊여권과 새여권의 여행목적이 동일한 여행자에한해 적용된다.

灰色 노우트 ④

趙善作 作
禹慶熙 畵

…의 머리속에 남아 있는 세호는 중고생의 제모를 쓴 소년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조금은 나를 안심시켰다. 아버지 말고 그가 우리를 가족중의 누구와 의논한다면 어머니 뿐인데, 어머니 에게라면 나는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았던 것이다. 『엄마를 조금 흉내내 보았을 뿐인데 뭘 그래요』라거나 『어머, 그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같은 유치한 남자가 또 있네요?』하고, 사랑에 관한 한 정신연령이 낮은 남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비애(悲哀)를 나눌수도 있을 것이다. 결코 어머니께서는 나를 탓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혼란이 아니라 당신도 그런데 딸이 또 그렇다고 아버지께 전하지도 못하실 것이며, 당신의 가슴에 내 머리를 당겨 안으시고 혀를 차시며 『그래도 넌 나은 편이지? 앞날이 창창하잖아?』하고,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

…에 홀로 내던져져 버린듯한 느낌이었다. 또는 미아(迷兒)가 되어 도회의 한복판에 버려진듯한 느낌이기도 했으며, 그렇게 어리둥절 새해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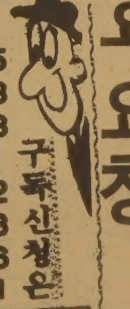
그가 결코 아버지를 찾아오는 일이 없을것이라는 확신과 회임의 징조가 거짓으로 판명된 것은 거의 비슷한 시기였다. 이두 가지 일이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뒤인가는 확실하지 않았다. 다만 몹시 갈망했던 회임이 상상임신으로 나를 배반한일과 그가 결코 아버지를 찾는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이두 가지가 나를 어딘가 유폐된 적막강산으로 따돌려 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는 말할 수 있으리라.

이제는 시인 J씨와 만난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것이 순서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지난 해 초겨울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다녀가지 않았나 탐색하곤 했다. 그러나 어머니나 세호는 달랐다. 세호는 먼 거리에 있으니까 만나기가 어려우리라는 판단이기도 했고, 또 그…

실 뿐이리라. 문제는 아버지 뿐이었다.

모든 좋이 외국生 <172>



한 국 일 보

구독 신청서

Please enter my subscription

NAME ......
ADDRESS ...... APT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 한국일보 1년 $90.00, 반년 $46.00 ☐ 1년
*주 1회 주간한국 무료제공 ☐ 반년
*주 6일 (매 8면) 발행, 신속우송

Office Use Only Sub Date ......

Mail this card today!

광고는 좋은 뉴스입니다.

광고는 메이커로 하여금
소비자를 위해 경쟁하게 합니다.
광고는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나오도록 합니다.
새로운 상품의 경쟁은
기술혁신을 낳게 하고
생활의 질적향상을 가져옵니다.
민주복지사회는 곧
광고가 좋은 뉴스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입니다.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신문판매처

고려식품
동양식품
반도식품
한국식품(본점)
(동부)
〃 (서부)
서울식품
삼복식품
한 국 관
한국일보사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2361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꼼꼼일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머라이어티 스토아에서 일할
경험있는 남자 헬퍼 구함
☎ : 532-6160

스토아 헬퍼구함 (영×휜치지역)
☎ : 222-2848

(1)출퇴근 하시면서 애기봐 주실 할머니
(2)경험있는 가게 헬퍼구함.
☎ : 2414755

주방헬퍼구함(남자1명, 여자1명)
628 BLOOR ST. W 한국관
☎ : 536-0290

웨이트레스 구함 (Choi's 레스트랑)
☎ : 759-8512

살림해주실분 구함☎ :
☎663-1053 244-7303 (Mrs. LEE)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풀, 파타임)
STEELE & DON MILLS 지역
☎ : 491-1931

가게헬퍼 구함 유경험자 (풀, 파타임)
DON MILLS & SHEPPARD 지역
☎ : 491-9701

펀치-프레스 기술자
시간당 $4·50 헬퍼 시간당 $4·00
B & S ELECTRICAL MANUFACTORY
37 DRUMMOND ST. ☎ : 259-7691

전자제품 만드실분 약간명 모집
잘 건설된 전자공장에서
경험있는 전자제품 만드실 분과
전자 기술자를 모집 합니다.
오전, 오후, SHIFT WORK.
직접 내방 요합니다.
DORCHESTER ELECTRONIC CO.
40 FIMA CRESCENT
(Q·E·W· 427지역)

매매및 양도

좋은위치에 자리잡은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
1801 LAWRENCE AVE. E SCARB.

UPRIGHT 피아노 세일
TUNE 되어있는 우수한 상태
$680 ☎ : 451-6751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OPENWINDOW BAKERY & GROCERY
1550 Bloor St. W.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 233-2576

작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가격 : $30,000+스탁
☎ : 266-5715(오후6시 이후 연락바람)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 783-1984

3베드룸 방갈로 매매
크기 40×120피트
베이스먼트 다 되어있고 옆에따로 붙어있는
가라지 있음.
문의전화 : 422-0816

현 전면허증을 가진 레스트랑과 라운지 매매
120개좌석, 긴 리스, 한국, 중국레스트랑 하기에
적합한 위치. 캐쉬 $295,000 또는
$165,000 다운페이먼트와 나머지는 몰게지로 가능.
연락 : 피터 ☎ : 368-9557

GIFT & VARIETY STORE
연평균 주매상 $5000이상, 주 $300~$400
+EXTRA인컴.
3200 ERINMILLS PARKWAY, 미시사가
(MILLWAY SHOPPING CENTRE, 1 BLOCK N. OF DUNDAS)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CALL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FAST FOOD 프렌차이즈회사 매매
12년동안 잘 건설된 비즈네스 퇴직상 매매코자 함.
캐나다에 정식 등록된 회사명, 프라이드 취헌을 전문,
본 회사는 지금 4번에 걸쳐 백만달러에 가까운 이익을
획득, 이 비즈네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 문의 바람.
(요리법, 고정손님, 빌딩등은 캐나다 어느곳에서든지
얻을수 있음.)
Chick-N-Joy Systems Ltd.
P.O. Box 327,
WestHill, Ont., M1E 4R8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비둘기 사진식자 인쇄소(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 : 493-8894 윤종대
주보, 명함, 청첩장, 책자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536-7875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 현 CA Office 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2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스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목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037

로마노 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니아 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윌스 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식 당

CHINA HOUSE
CANTONESS & MANDARIN CUISINE
781-9122 825 Eglinton W.

KOREA HOUSE
＊즉석불고기 전문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TEL. 536-8666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 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80, B) 783-69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집·방세·하숙

방세놓음(독신원함) 8월24일 입주가능
PAPE서브웨이에서 1브럭 $130
☎ : 466-3764 (오후4시이후 연락바람)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방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관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80(R) 변 달 원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INIT TUNE : 주정부 지정 차량검사장
①TUNE UP, ②BRAKE검사무료, ③각종차수리일체
☎ : 782-6311 이 태 경(793 Spadina Rd. at Eglinton)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5247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362-1433, (R) 493-6792 송 장 섭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 서비스 (B)256-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식품점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743-8270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꽃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2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6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철 룡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651 이 동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저렴한 정비 ●캐나다 정식급 자격증소지
[illegible]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실·이인식)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81-0102 MR.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8118 오 현 구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8-0656(B), 493-7185(R)
정 해 문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8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심

기 타

변호사 개업(黃永興 律師)
WING H WONG
BARRISTER & SOLICITOR TRADE MARK AGENT
OFFICE : SUITE 214, 4455 Sheppard Ave. E. (at Brimley)
Scarborough Ont. Tel 298-6767

PICTURE FRAME WAREHOUSE 조 혜 숙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Can-Am Coin Investments Ltd. 25년간 경력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81 - 366-3062

새한칼라 현상소
618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싸다고 소문 난 가 나 안
카텐
28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우리나라 사람은 不淨타는일 많다

[illegible]

尹元淑씨 신앙과 察思 발표

재난과 苦痛은 人間의 過誤
危機 이기는 生活 방편으로

[illegible]

블론디 딘·영 作

"배심원을 맡으라는 통고서를 받았어" "내일 법정에 나가야 돼.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야" "걱정되니" "그럼" "입을 옷이 없거든"

한국일보 詩壇

어둠의 노래 5

석 성 일

아아,
울어가지 못한 모퉁이에서
글로를 쉬쭈로 만나
어느날 떠나간 이들의
짐은 이야기를 말리고
건달만한 불진 멍울로
빼앗긴 길이를 숨지게
키울것 없어 숙이며 가는
우리들의
傷
숨어서 기다리는 친구
쓰리운 言語 떨게, 허리 굽은 산 내
음에 젖어, 나뒹굴고
이 놓뫼 돌 풍납 아득히 드드는데
뜻없이 화려한 사방 곳곳엔
맞으로만 만가려는 소리 가득하여라.
이제 남은 것은 한덤어리 주른 살점
어디에 묻고 흙으로 하늘을 보라
낮이 낮이 아닌 밤이 밤이 아님이
세상
미더운 곰 바다난 꽃 길을 지나
갑내 찌안고 감 노래는 떠구낭